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

정병훈 4 편집인 인사말

논 문

김희선 7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주세페 비아지니 27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실비아 야만 47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이은진, 한재희, 정수연, 김도은 65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 실태

비토리오 살모니 93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CONTENTS

대 답

주세페 비아지니/ 정병훈/ 로니 로피스/ 위티아 피통나푸/ 비토리오 살모니 101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129 알-하사 (사우디 아라비아); 비다 (나이지리아); 쿠타히야 (튀르키예); 와가두구 (부르키나 페소); 파두카 (미국); 산타페 (미국)

리 뷰

정병훈 166 진주시의 국제교류 활동

렉시 밀리칸 177 파두커에서 진주로

문 화 유 산

콘스탄스 페라리니 183 이탈리아 텍스타일 밸리의 중심 코모

UCCN 도큐먼트

192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결론

2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 14차 연차회의의 결론

204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

217 Foro de Ciudades Creativas de Norteamérica

편집인 인사말

올해 이 저널의 세 번째 권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내외 편집위원들의 협조와 기여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저널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브라질, 산토스에서 열린 UCCN 연차 회의에서 우리는 <공예 및 민속 예술 국제 저널>에 대해 여러 창의도시의 대표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의 메리 해몬드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우리 저널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도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소개했습니다.

올해 우리 저널의 주제는 “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고,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주에서 열린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도 같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대부분 이 두 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들입니다. 이번호에 참여해주신 모든 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의 주요 대담 주제를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책”으로 잡았습니다. 그 대담은 창의도시 활동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명합니다.

9개 도시가 창의도시 활동 및 문화유산 섹션에 기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도시의 포괄포인트들과 기고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산토스 회의와 진주 회의에서 우리 저널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의 공식 매체로 만드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메리 해몬드 의장의 동의를 얻어 산토스 회의와 진주 회의의 결론, 북미 창의도시 선언,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 거버넌스 규칙을 포함한 문서들을 이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저널은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의 공식 매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저널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지식과 경험, 실천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저널이 창의도시 활동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저널을 발간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과 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인 정병훈

논문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김희선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야만

진주의 문직물 제작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 간 융합과 협업 가능성

김희선*

초 록

진주는 역사와 문화가 풍부하고 민속예술 악가무의 전통이 보존 전승되고 살아있는 문화로 가꾸어 온 도시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은 도시의 개성을 살려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전 세계 도시와 협력하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창의성'에 주목하며 이 연구는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창의분야 간 융합과 협업의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융합가능한 창의분야로 '음악'과 '미디어아트'를 주목하고 관련한 국내의 여러 사례를 살펴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진주의 '창의성'이 글로벌 창의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연-전시-교육-체험-국제교류로 환류되는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UCCN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적인 분야 간 융합과 협업.

* 김희선은 피츠버그대학교 음악인류학박사로 현재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과 국제전통음악학회 전통음악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메일: hekst10@hotmail.com.

I. 들어가며

2004년 시작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는 개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을 중심에 둔다. 개별 도시가 보유한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반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일과 세계의 도시 간 협력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는 일도 중요한 목적이다. 각 도시의 문화자산의 창의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를 상승시키며 도시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발전’은 경제를 넘어 사회와 문화, 환경의 발전을 포괄하는데 궁극적으로 2004년 10월 유네스코가 선포한 ‘문화다양성’(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증진에 도달해야 하는 목적을 갖는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기저에는 산업화와 대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중소도시의 공동화, 무분별하며 모방적 획일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부작용의 성찰적 극복의 패러다임이 자리한다.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의 강조는 ‘전통’의 존중을 통해 과거형 산업발전모델을 극복하며 ‘전통’이 도시의 개성으로 연결됨으로서 인류의 ‘문화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영화의 7개 창의분야로 나누어 해당 도시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들 도시들간 협력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 7개 분야에 걸쳐 총 11개 도시가 네트워크 목록에 올라있다. ‘공예와 민속예술’분야는 2004년 이천시가 도자기를 주력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진주시, 2021년 김해시가 각각 네트워크 목록에 도시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공예와 민속예술’분야에는 아프리카 8개 도시, 아랍 지역 7개 도시, 아시아-퍼시픽 17개 도시, 유럽과 북미 14개 도시, 라틴과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20년도 개정판)』, 2020; 남기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의제분석과 도시의 문화정책방향」, 『문화콘텐츠 연구』 2021; 이철호·박소윤, 「글로벌 발전의제와 로컬 문화정책-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의 도전」, 『로컬리티인문학』 24: 7-49, 2020.

카리브해 지역 10개 도시로 현재까지 총 56개 도시가 지정되어있다.²

진주에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공예와 민속예술’분야에 선정되었던 이천은 도자기에 특화된 ‘공예’에 주력하고 있다.³ 그렇다면 진주시는 오랜 악가무희(樂歌舞戲)의 전통이 보존된 ‘민속예술’을 ‘창의성’의 주력으로 삼는 국내 첫번째 유네스코 창의도시라 할 수 있다. 진주의 ‘민속예술’은 음악, 춤, 연희를 포괄한다. 진주 민속예술의 대표적인 진주삼천포농악(晉州三千浦農樂)은 1966년 민속예술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12차 농악’)된 ‘지역’예술이며 진주오광대, 솟대쟁이 놀이는 대표적인 연희종목이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는 지역 전승 산조의 대표로 중앙중심의 전승산조와 구별되는 전승계보를 갖는다. 또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검무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포구락무는 궁중과 지역의 문화 교섭(交涉)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 또한 무언춤인 한량무와 교방청에서 전승된 진주교방 굿거리 춤은 지역민속예술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미 중앙과 지역문화재로 지정된 이들 진주의 민속예술은 역사적 뿌리가 깊고 이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이 높다는 점에서도 타 도시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갖는다. 또한 ‘민속예술’ 뿐 아니라 ‘공예’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세 종목인 목가구 제작장인 소목장, 가구장식 제작장인 두석장, 장도제작의 장도장이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진주는 드물게 ‘공예와 민속예술’ 두 분야에 걸쳐 풍부한 전통을 간직한 도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도시들에게는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창의산업’ 육성이외에도 도시간 ‘비경쟁적 협력’과 ‘발전 경험의 공유’가 요청된다.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창의산업’ 육성과 각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진입도 중요하게 여긴다.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도 ‘지속가능한 미래’의 창출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다. 즉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이에 가입한 도시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국

2. <http://map.unesco.or.kr/creativecities/>.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20년도 개정판)』, 2020; 정수희,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의 공예와 공예도시연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4: 81-108, 2018.

4.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20년도 개정판)』, 2020: 93-95쪽.

제사회의 목표를 공유하며 인류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사명을 가져야 하기에 해당 도시들에게 주어진 과제에는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창의성’에 주목하며 이 연구는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중심으로 창의분야 간 융합과 협업의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융합가능한 창의분야로 ‘음악’과 ‘미디어아트’를 주목하고, 관련하여 국내 ‘전통예술’을 음악공연으로,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로 융합한 사례를 고찰하여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진주의 ‘창의성’이 글로벌 창의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연-전시-교육-체험-국제교류로 환류되는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II.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과 창의분야간 협업: 음악, 미디어아트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에서는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분야와 융합이 가능한 창의분야로 음악과 미디어아트와 협업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글로벌 공연예술시장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로컬의 음악들이 세계의 시민들과 만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SNS는 지역음악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⁵ 음악은 문화도시 지정사업의 중요한 분야로 지역 음악산업의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⁶ 그런가하면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미디어아트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실감 미디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⁷ 미디어아트는 점차 엔터테인먼트, 광고 등의 상업영역에서 벗어나 교육과 예술분야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는 도시경관을 변화시키기

5. 김희선, 「월드뮤직 장의 한국전통음악-탈경계 실천의 궤적과 의미」, 『동양음악』 40: 11-40, 2016.

6. 조충제, 「문화도시 지정사업 지원정책에서 음악산업 활용의 중요성 재인식」, 『음악과 문화』 44: 61-90, 2021.

7. 강여울, 「몰입형 비디어아트의 빛과 그림자-수목산수화 심미체험과 비교를 통해서」, 『인문과학』 124, 2022.

도 하고 전시와 공연에 활용되면서 예술과 일상을 통합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⁸ 또한 최근 세계의 박물관과 도서관은 미디어아트와 새로운 전시기법을 활용해 살아있는 전시를 구현하고 미래박물관으로 전환해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국제교류로 연계하는 등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⁹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염두에 두고 한국전통예술을 무대화하면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의 기술을 융합적으로 구현한 최근 공연사례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공연, 실감콘텐츠 공연 <태평성시도>, 무형유산공연 <생각하는 손>, 남사당놀이 소재 공연 <장단의 민족: 바우덕이 트랜스포머>를 살펴본다. 이어 전통예술 및 유물의 기술융합을 전시와 교육콘텐츠로 연계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과 국악박물관의 사례를 소개한다.

1. 한국전통예술 융합 공연사례들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식은 한국의 역사, 예술, 기술의 역량을 집결한 공연연출을 잘 담아낸 대표적 기술융합 공연사례이다. 전통과 동시대, 한국과 세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와 융합을 넘나들었던 공연연출이었다. 특히 지역의 예술적 자산

8. 정혜옥, 「도시광장으로 확장된 미디어아트-미디어 생태학관점에서 바라본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아트」, 『Contents Plus』 10(4), 2012; 정혜영·김경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역축제의 연관성 연구 리옹 샹포르 린츠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4, 2016.

9. 최선주, 「박물관 특별전시 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 미술> 특별전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38, 2019; 김은성, 「상호작용적 전시공간 연출을 위한 하이퍼미디어 활용방안연구: 어린이박물관 현장체험학습에의 적용가능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희선·권주렴,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동양음악』 48, 215-264, 2020; 신우석, 「미래형 도서관 체험전시 콘텐츠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뉴미디어 체험관 사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원지연, 「놀이형 체험전시 프로그램 방향성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지은·강태임, 「인터랙티브한 실감콘텐츠의 유형별 특성연구-국립중앙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7(3), 2022.

을 보편적 정서와 해석안에 담아 미디어아트로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이때의 '지역'은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국내적으로는 '강원도'를 지칭하며 두 지역성이 중첩되게 표상하였다. 개막식 <Peace in Motion>은 '평화의 땅', '태고의 빛', '아리랑 시간의 강', '모두를 위한 미래', '행동하는 평화'로 구성되었다. 개막식이 펼쳐진 무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폐회식의 용도로만 건축된 스타디움이였다. 메인무대는 지름 72미터, 면적 4,096m²의 원형의 무대로 스타디움 한복판에 위치했다. 실제 이 크기는 하계 올림픽 경기장에 비하면 작은 공간이지만 3만 안시(Ansi)의 레이저 프로젝터 60대를 투사할 수 있어 300룩스(Lux)를 넘는 영상투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아트에 적합한 무대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물리적 무대장치없이 은유와 상상력을 시각화하는 프로젝션 매핑을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무대 위 다양한 연행자들은 따로 물리적 무대장치의 전환없이 영상이 투사되는 프로젝션 매핑을 배경으로 최소한의 소품을 이용해 공연했다. 공연의 문을 연 것은 상원사 동종의 평화의 종소리였다. 무대 위 프로젝션 매핑은 동종의 평화의 종소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시각화한다. 바로 이어 무대에는 장구놀이 연희와 장고춤이 펼쳐지다 태극문양으로 바뀐다.¹⁰ 개막식의 서사는 다섯 아이들의 시간여행으로 시작되는데 아이들의 시간여행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문도, 거북선, 백제금동대향로, 신라금관, 훈민정음, 첨성대, 해시계, 고구려 사신도 등이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등장한다. 홀로그램 속 사신도의 백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특수제작한 인형으로 연행자들과 함께 무대에 등장하고 이어 고대 벽화의 춤추는 여령이 무대 위 공연을 펼치면서 고분벽화 속 판다지를 재현한 무대 퍼포먼스로 연출되었다. 이어 등장한 단군 이야기 속 웅녀와 신화 속 사람 얼굴을 한 새, "인면조"가 함께 춤을 추는데 이 공연은 바닥에 있던 빛의 입자들이 하나로 뭉쳐지며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문도를 변화하며 마무리한다. 천문도의 별

10. 목진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프로젝션 매핑에서 나타난 태극 표현의 입장과 배경-〈태극〉 우주의 조화〉 공연영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4: 196-207, 2018; 목진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문화공연, 아리랑의 은유와 서사 <아리랑: 시간의 강> 프로젝션 매핑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4): 203-213, 2018.

자리는 AR(증강현실)로 구현되었다.

1막 <아리랑: 시간의 강>은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김남기 선생의 정선아리랑으로 시작한다. 무대 위 뗏목이 등장하면 프로젝션 매핑은 메밀밭의 영상으로 변화된다. 뗏목은 메밀밭으로 표현된 근현대 역사 속을 헤쳐나가는데 기쁨과 슬픔의 합성의 소리로 표상하는 역사속을 뗏목은 유유히 흘러간다. 이어 밝은 반딧불이가 공중으로 피어오르는데 이 장면도 AR로 구현되었다. 2막 <모두를 위한 미래>은 LED가 장착된 '미래의 문' 퍼포먼스로 시작하는데 미래의 여러 장면들이 홀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무대 위 장착된 미디어 링크로 마무리된다. 3막 <행동하는 평화>는 촛불로 시작해 비둘기 풍선과 AR 비둘기가 함께 하늘로 날아간다. 공중을 나는 1218개의 드론으로 만들어낸 드론 오륜기가 어두운 밤하늘에 올림픽의 개막을 선포한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통공연양식은 현대적 퍼포먼스로 구현되는데 프로젝션 매핑, 투명디스플레이 LED, 자동주행 AI, AR, 드론, 대형 LED 빛기둥의 기술은 예술의 상



Figure 1.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상력을 더욱 확장해주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무대에 오른 공연 <태평성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한 문화유산 기반 실감 콘텐츠 공연이다. 18세기 후반, 8폭 병풍에 그려진 조선회화 <태평성시도>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회화 <태평성시도>는 당대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담은 상상의 그림으로, 공연은 그림 속 장면들이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으로 되살아나고 이상세계의 서사가 공연의 중심을 이룬다. 이를 위해 3D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술이 적용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무대를 구현한다. 또한 달항아리를 비롯한 여러 한국의 문화유산들이 홀로그램으로 무대 위 공간 위를 부유한다. 여기에 국악과 현대음악, 탈춤 등의 연희 종목이 융합된다. 이 공연에서 첨단기술은 물리적 무대 장치의 한계를 넘어 예술의 상상력과 전통예술의 구현에 핵심이 된다. 평면적이던 문화유산과 유물의 감상은 실감 영상기술, 무대공연과 융합되며 “입체적이고 경쾌한 느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¹



그림 2. 국립중앙박물관 <태평성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11. 「유토피아를 꿈꾸며...최첨단 기술로 만나는 태평성시」, 『KBS 뉴스』 2020.11.4.
「태평성시..실감콘텐츠 공연 첫 선」, 『YTN』 2020.11.7.

앞의 두 공연이 전통예술의 다양한 장르-음악, 무용, 연희, 그림, 유물 첨단 ICT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협업하여 무대 위 공연으로 재현했다면 다음의 두 공연은 전통예술을 기예능을 새로운 미학과 메시지로 해석하는 작업의 결과물로 소개한다.

우선 첫 번째 공연은 공예자인 소재의 음악무용극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이다. 이 작품은 국립무형유산원의 2021년 브랜드 공연으로 제작되었다. 작업은 명인, 명창들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던 기존의 전통공연을 확장하여 수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명장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시연을 하도록 연출했다. 전통음악·현대음악·현대무용·의상이 융합된 무대로 공연 자체의 완성도도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김정옥(84) 사기장 보유자, 김해순(77) 매듭장 보유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에 몰두함으로써 기존 문화재 공연무대와 다른 새로운 공연서사가 구현된다. 무형문화재 장인의 작업 자체가 예술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공예’가 ‘공연’이 되는 융합의 결과물이 된 셈이다. 김희정 예술감독은 “장인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인고의 작업과정자체를 부각해서 공연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한다. 예술감독은 이 작업을 ‘사실주의 작업무용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간 장인들의 ‘작품’이 무형문화재의 결과물로 보여졌다면 예술가의 작업이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은 ‘장인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서 ‘전승’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관객은 이



그림 3. 국립무형유산원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

들의 삶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¹²

2022년 공연된 <장단의 민족: 바우덕이 트랜스포머>는 남사당놀이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안성시립바우덕이풍물단의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연희의 과장을 도입하여 총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줄타기, 버나, 꼭두각시 놀음, 길놀이 등 남사당의 요소를 국악의 다른 요소들을 ‘믹스매치’하여 융합하는 방식의 연출이 돋보였다. 안성의 유일한 여성 예인이었던 바우덕이의 줄타기에 함께 연행한 상모들리기에서는 풍물의 ‘소리’를 제거하고 연행자의 몸짓을 부각시킴으로서 영화의 한 장면같은 트랜스미디어 효과를 내는 극적 연출이 돋보였다. 이러한 연출은 풍물의 ‘흥’의 감정을 슬픔의 ‘페이소스’와 불안함의 ‘이어리(eerie)’적 감정을 오가는 새로운 감성을 구축했다. 접시들리기에서 유래한 연희 버나에서는 카메라를 연희연행자의 집중된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보여줌으로서 ‘기예’보다 ‘예인’을 부각시킨다. 또한 줄타기에 경기 민요 오봉산 타령, 버나에 전통성악 가곡을 함께 배치하고, 의상, 무대미술, 조명, 영상, 관객참여 등의 동시대적 요소를 융합했다. 이러한 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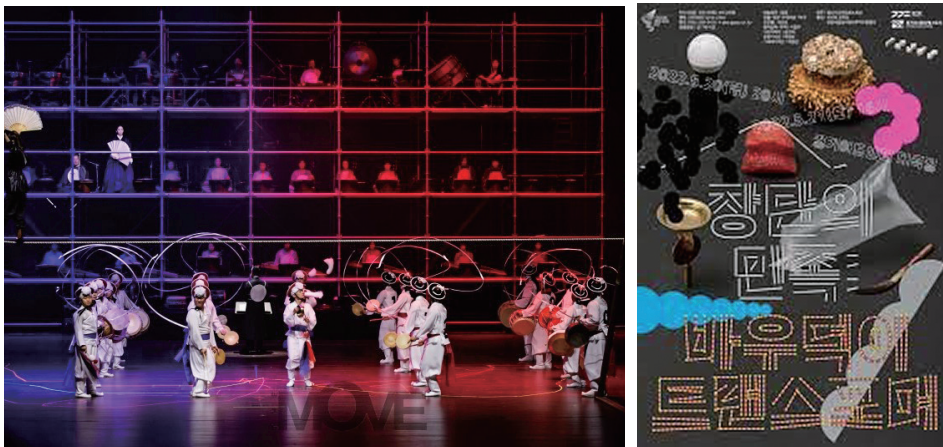


그림 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안성시립바우덕이풍물단 <장단의 민족: 바우덕이 트랜스포머>

12. 문화 인사이드-국립무형유산원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 『국악TV』 2021.12.6.

한 발상의 연출은 전통예술의 기존 어법과 미학을 비틀어 관객은 ‘강요되지 않는’ 전통예술과 예인에 대한 경외를 경험할 수 있었다.

2. 전통예술의 기술 융합 전시 및 교육 콘텐츠 활용사례

다음으로는 최신기술인 미디어아트, VR, AR 등을 전통예술에 융합하여 전시와 교육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영상전시, 문화재청의 AR <태평하기를>, 국립국악원의 국악 VR, 국악박물관 체험전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 총 4개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1은 파노라마와 반응형 영상이 설치된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의 전실에서는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가 반응형 영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들이 배치된 태블릿 PC로 자신의 책가도를 구성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이다. 전실을 지나 본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폭 60m 높이 5m의 대형 3면 파노라마 스크린에 초대형 영상이 펼쳐진다.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그림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 <강산에 펼친 풍요로운 세상, 강산무진도>, <금강산에 오르다>,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신선들의 잔치> 5종이 교차 상영된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2관은 VR 체험관이다. VR, AR의 8K 고해상도 미디어관으로 <박물관 정원을 거닐다>, <보존과학실>, <박물관수장고>, <감은사 사리장엄구>, <청자에 담긴 세상> 등 5종의 실감영상이 전시 중이다. 증강현실 AR은 3차원 가상 이미지를 현실 공간으로 불러내는 기술을 구현하는데 <옛 그림이 살아나다>에서는 VR로 옛 그림속 동물과 식물을 불러내고 <조선시대 초상화> <태평한 하루 속으로, 태평성시도>, <풍속도 속으로>, <조선사람들의 꿈, 평생도>등으로 조선시대 시간 속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디지털 실감 영상관 3은 <고구려 벽화무덤>이다. 고구려 벽화무덤은 건축기술의 우수성과 벽화의 생동감으로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중국과 북한에 있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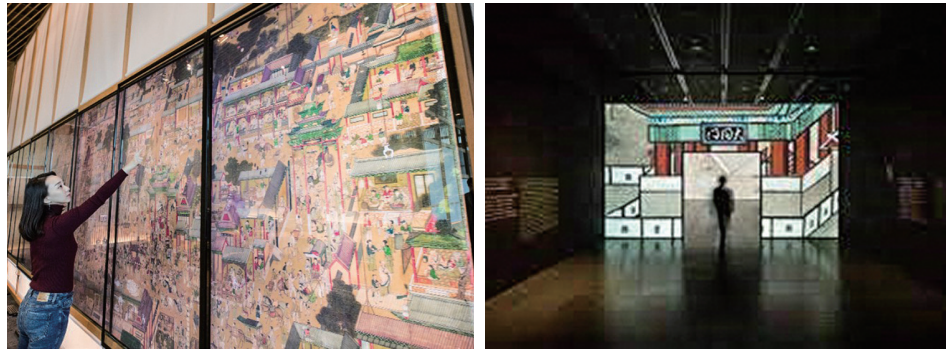


그림 5.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전시>

이 어렵다. 직접 관람할 수 없는 <고구려 벽화무덤>의 관람을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벽화의 전면, 양측면, 천장에 4면에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하여 관람객은 직접 무덤에 실제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안악 3호무덤>, <덕흥리 무덤>, <강서대묘>가 재현되어 있는데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배치가 보임으로서 교육적 효과도 크다.

경천사 십층석탑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하늘 빛 탑>은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AR 기술을 활용한다. 경천사탑의 기단부터 탑신 10층까지 각면의 조각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불교의 상징, 극락정토, 서유기, 석가모니 열반, 부처의 법회, 대승불교의 진리-를 담은 영상이 십층 석탑위에 펼쳐지도록 연출되었다. 또한 박물관의 어플을 설치하면 증강현실 AR로 석탑의 조각과 도상을 감상할 수 있다.¹³

AR은 문화재청의 콘텐츠 영상 <태평하기를>에서도 구현된 바 있다. 2020년 문화재청은 '태평무' 문화재 보유자인 양성옥과 동시대 스트리트 댄스의 유명 안무가인 리아킴의 협업을 증강현실로 구현해 공개했다.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융합의 사례로 문화재청과 SK 텔레콤이 공동기획한 이 작품은 볼류메트릭비디오와 4K 고화질로 제작되었고 점프 AR 앱에서 감상이 가능하여 무형문화재 체험을 박물관이나 공연장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13.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 통합안내지』

국악 악·가·무·희의 다양한 장르를 360° 국악 VR로 구현해 공개한 국립국악원의 사례도 살펴볼 만 하다. 국립국악원에서 2020년 공개한 국악 VR은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전통예술 공연을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과 360° VR 공연콘텐츠로 생생한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평면적 경험을 넘는 역동성과 입체감의 경험, 현장감은 체험의 요소를 극대화한다. 국악 VR은 특히 국립국악원 공연장 뿐 아니라 고궁(창덕궁), 고택(한규설 고택), 자연에서 촬영하여 국악공연의 다양한 맥락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의 정악단, 민속악단, 무용단,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참여하여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간의 기악, 성악, 춤, 연희, 굿 등 총 37개 종목을 VR 작품으로 담았다. 기악종목으로는 종묘제례악, 수제천, 영산회상, 천년만세, 대취타, 시나위, 강태홍류 산조 합주, 성악 종목으로는 쾌지나칭칭,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창극 춘향가, 무용종목으로는 승무, 부채춤, 소고춤, 장구춤, 처용무, 산조춤, 설장구춤, 진도북춤, 강강술래, 동래학춤, 진주검무, 연희종목으로는 씻김굿, 판굿, 사물놀이, 삼도풍물가락을 VR로 감상할 수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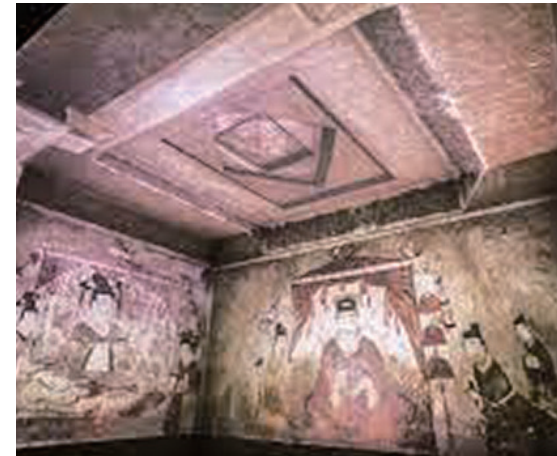


그림 6.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벽화무덤>



그림 7. 국립중앙박물관 <하늘 빛 탑>

14. 김희선·박유성, 「기술구현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확장과 미래- 국립국악원 국악 VR의 제작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49: 45-74, 2020.



그림 8. 문화재청 <태평하기를>

그런가 하면 국립국악원의 국악박물관은 박물관 리뉴얼 작업을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와 체험전시를 구상하여 2020년 재개관하였다. 5개의 전시관으로 구성하면서 미디어 아트, 3D 악기소개, 고악보 연주법을 소개하는 미디어 월과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고악보 연주법 소개와 국악기 체험, 구글과 협업하여 기가 픽셀로 촬영한 영상과 인터랙티브 테이블로 유물을 소개하는 <임인진연도병> 등이 전시되어 있다. 국악기 합주체험의 인터랙티브 테이블도 설치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2021년에는 몰입형 영상체험콘텐츠로 <진연(進宴)_120년의 시간을 잇다>도 공개되었다. 2부로 구성된 <진연>은 국립국악원에 소장중인 <임인진연도병>에 그려진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덕수궁 함녕전 뜰의 연향의 일부를 3면의 스크린에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며 이어 국악박물관 국악뜰에 전시된 궁중악기에 빛을 입혀 악기를 눈과 귀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형 콘텐츠이다.



그림 9. 국립국악원 <국악 VR>

III.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분야 협업 제언

현재 진주시는 창의도시 사업으로 국제활동, 지역활동,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제활동으로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의 개최와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발행으로 성과를 공유한다. 지역활동으로 융복합 민속예술공연제작지원사업, 민속예술보급(1인 1예능), 도시와 문화랩, 문화예술택배, 전통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진주의 지역예술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예술가들과 시민을 연결한다. 네트워크 활동으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팅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참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긴밀히 소통한다.

진주시는 진주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창의도시의 임무를 완수하고자 네 가지의 전략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첫째는 다양한 진주의 문화사업을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창의산업 육성, 두 번째는 창의인력 양성과제,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창의적 분위기 조성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는 국제교류 활성화 과제로 아직 미흡한 예술분야간 교류, 시민간 교류, 예술가간 교류는 향후 진주 창의도시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들이다.

앞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진주 창의도시의 과제를 완수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활용한 ‘웰 메이드’ 공연작품을 만들어 국내·외 무대에 선보이는 것이다. 특히 현재 다양한 공연기술의 접목으로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구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유산과 전통이 가진 역사성과 전통성에 진정성과 예술성을 담는 연출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동시대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그림10.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체험전시.

한다는 점이다. ‘기술’은 감동을 배가시키는 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작품들의 사례를 통해 공예도 공연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주시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내러티브로 구상하는 공연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둘째, 진주의 공예와 민속예술을 중심에 놓고 현재 개발된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전시 기법을 도입한 전시콘텐츠를 구상하여 진주와 국내외 다양한 박물관과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줄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가능한 전시기술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전시 콘텐츠를 구상한다면 공예와 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넘어 창의적인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공연과 전시콘텐츠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 공연이나 전시 콘텐츠를 교육과 연계하는 개별프로그램을 구상함은 물론 이를 교육콘텐츠로의 재가공하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 콘텐츠는 진주 뿐 아니라 전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국제교류로 연결시켜야 한다. 진주의 공예와 공연예술을 기반으로 만든 공연이 글로벌 공연시장으로 진출하며 국내·외 이동 가능한 전시콘텐츠와 교육콘텐츠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진주시의 자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협업적 모델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유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공연, 전시, 교육, 국제교류에 필요한 기획인력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할 때 ‘창의성’은 진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적 협업의 결과물이 공연-전시-교육-체험-국제교류에 환류되며 진주 창의도시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강여울, 「몰입형 미디어아트(Immersive media art)의 빛과 그림자-수묵산수화 심미체험과 비교를 통해서」, 『인문과학』 124: 178-204, 2022.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 통합안내지』 2020.
- 김은성, 「상호작용적 전시공간 연출을 위한 하이퍼미디어활용방안연구: 어린이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에의 적용가능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희선, 「월드뮤직 장의 한국전통음악-탈경계 실천의 궤적과 의미」, 『동양음악』 40. 11-40, 2016.
- 김희선·박유성, 「기술구현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확장과 미래- 국립국악원 국악 VR의 제작과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49: 45-74, 2020.
- 김희선·권주렴,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동양음악」 48: 215-264. 2020.
- 남기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의제분석과 도시의 문화정책방향」, 『문화콘텐츠연구』 . 21: 7-39, 2021.
- 목진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프로젝션 매핑에서 나타난 태극 표현의 입장과 배경-〈태극〉 우주의 조화〉 공연영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4: 196-207, 2018.
- 목진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문화공연, 아리랑의 은유와 서사 <아리랑: 시간의 강〉 프로젝션 매핑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4): 203-213, 2018.
- 신우석, 「미래형 도서관 체험전시 콘텐츠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뉴미디어 체험관 사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안영숙·김경섭, 「진주정신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방법론 제언」, 『글로벌문화콘텐츠』

- 24: 183-220, 2016.
- 원지연, 「놀이형 체험전시 프로그램 방향성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지은·강태임, 「인터랙티브한 실감콘텐츠의 유형별 특성 연구-국립중앙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7(3): 131-142. 2022.
- 이철호·박소윤, 「글로벌 발전의제와 로컬 문화정책-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의 도전」, 『로컬리티인문학』 24: 7-49, 2020.
- 정수희,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의 공예와 공예도시연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4: 81-108, 2018.
- 정혜욱, 「도시 광장으로 확장된 미디어아트-미디어 생태학관점에서 바라본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아트」, 『Contents Plus』 10(4): 121-135, 2012.
- 정혜영·김경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지역축제의 연관성 연구 리옹 샤푸로 린츠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4:399-409, 2016.
- 조충제, 「문화도시 지정사업 지원정책에서 음악산업 활용의 중요성 재인식」, 『음악과 문화』 44:61-90, 2021.
- 최선주, 「박물관 특별전시 연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미술 특별전을 중심으로」, 『미술사학』 38:7-25, 2019.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길잡이(2020년도 개정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0.
-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 웹사이트
- 「유토피아를 꿈꾸며...최첨단 기술로 만나는 태평성시」, 『KBS 뉴스』 2020.11.4.
- 「문화 인사이트-국립무형유산원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 『국악TV』 2021.12.6.
- 「태평성시..실감콘텐츠 공연 첫 선」, 『YTN』 2020.11.7.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논문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김희선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야만

진주의 문직물 제작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

초 록

창의지식재단(The Creative Knowledge Foundation: 이하 CKF)은 유네스코의 7개 창의 클러스터 중 하나의 클러스터 또는 클러스터 간의 회원도시들이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협력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 지식의 역할과 '창의적인 사람들'의 작업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내에서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라는 CKF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사례 연구들을 제시함으로써, CKF가 연령,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사회적 응집력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현행 사업들은 창의 클러스터 전반에 걸쳐 모든 공동체에게 친숙한 보편적인 개념을 다루는 반면, 플랫폼의 유연한 사용은 대상 공동체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더 잘 맞는 사업의 국내적 및 국제적 변형을 가능하게 한다.

"일하는 손"(2017년~), "장인 치즈"(2019년~), "창의도시의 빵"(2018년~) 프로젝트들과 이들의 현재 변형 프로젝트들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위한 공동 계획으로서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의 초기 단계를 강조할 것이다.

키워드: 창의적 지식(CK), 창의지식 플랫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 클러스터 간 사업, 협력, 사회적 응집력.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주에서 열린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례회의'(UCCN Crafts and Folk Art Sub-network Annual Meeting)에서 발표되었다.

** 주세페 비아지니(Giuseppe Biagini)는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 있는 창의지식재단의 창립자이다. 그는 피사 대학교(이탈리아) 컴퓨터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이후, 그는 여러 회의와 2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언-「산 크리스토폴 데 라 카사스 선언」(Declaration of San Cristobal de La Casas, 2018)과 「카라라 선언」(Declaration of Carrara, 2021)-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는 또한 창의지식 플랫폼을 개발했다.

1. 창의지식재단¹

창의지식재단은 미국 501(c)(3)에 속하는 비영리단체로, 비록 수천년은 아니지만 수세기에 걸쳐 행동 및 장소 특정적 방법론을 통해 다듬어진 공동체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창의적인 사람들’—세계 전통지식의 살아있는 지킴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창의적 지식(Creative Knowledge: CK)이라는 개념은, “... 자연의 법칙에 적응하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으며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 온 전통지식에 기반한 관행들의 현대적 진화...”를 말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구밀도의 증가로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 볼 때, CK 체계는 현대세계에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지식재단은 CK 체계를 보호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예: 농부, 요리사, 장인, 예술가 등)이 그들의 고유한 공동체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UCCN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델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과 도구들로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과 목표들을 강조하고자 몇몇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2.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 모델과 창의지식 플랫폼

창의지식재단은 재단의 사명을 달성하고 이행하기 위해 창의지식 플랫폼(Creative Knowledge Platform: CKP)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

1. 2022년 9월 16일자로, 국제전통지식연구재단(International Traditional Knowledge Institute Foundation, ITKIF)은 재단의 사명 선언문에 있는 창의적 지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 명칭을 창의지식재단으로 바꾸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reativeknowledge.foundation/>을 참조.

다”(THEFUTURE)라는 사업 포맷을 정했다².

2.1. “미래는 ... 당신 발 아래 있다”(THEFUTURE) 모델

THEFUTURE는 지역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파로협약」(Faro Convention, 2005),³ 「벤토테네 디지털 선언문」(Ventotene Digital Manifesto, 2017-2021년),⁴ 그리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의해 표명된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⁵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기록 및 미래 세대로의 전승을 위해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문화’를 증진한다.
- 지역사회를 회복탄력성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모범 사례를 확인한다.
-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발전 모델을 공동으로 만드는 데 정부, 시민사회, 학계, 창의적인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2. CKF와 베니핏 기업 코오르(Benefit Company KOOR, 이탈리아 밀라노 소재)는 창의지식 플랫폼(CKP)과 “미래는 ... 당신의 발 아래 있다”라는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후자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ilfuturosottoituoipiedi.org/en/who-we-are/>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파로협약」(2005)의 전문은 <https://www.coe.int/en/web/culture-and-heritage/faro-convention> 참조.

4. 「벤토테네 디지털 선언문」(2017-2021)의 전문은 <https://www.diculther.it/blog/2021/09/15/manifesto-ventotene-digitale-loccasionedigitale-per-la-cultura-e-leuropa/>.

5. <https://sdgs.un.org/goals> 참조.

이 프레임워크는 4개의 주요 단계로 나뉘어진다.

- **1단계—영역 지도 그리기.** 지역 지식의 보유자들과 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들의 지도를 작성하여, 이 영역의 전통적이고 창의적인 자산들을 기록하고, 지역 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2단계—해리-텔링(지역 유산 + 스토리텔링).** 창의적인 사람들(누가)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고, 그들의 활동(무엇을)과 창의적인 자산들이 발전되어 온 환경(어디서)을 서술하는 웹 기반 사업—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범위—을 개발하여 특정 영역과 독특한 지역 유산을 증진시킨다.
- **3단계—지역 창의지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세대 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기관들과 지역 창의성의 보유자들을 참여시킨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의 목표는 디지털 소통 언어(경험 기반 학습(learning-by-doing), 해커톤,* 역할 놀이 등)의 사용과 결합된 대화형 학습(interactive learning) 방법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4단계—지역 발전을 위한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 이 특정 단계는 창의적인 사람들, 시민사회, 학계 및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영역에서 수행하고 싶은 제안을 이끌어낸다. 이에 대한 조치들은 해당 영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상향식 접근법), 앞서 언급한 이 모델의 3가지 단계에서 드러난 우선순위에 대응하며 SDGs와도 일치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의 2단계와 3단계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창의지식 플랫폼의 사용이 필요하다.

* ‘해커톤’은 hack(‘만들다, 파고들다’라는 뜻)과 marathon(장시간의 달리기)의 합성어로, 혁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한 행사를 말한다.

2.2 창의지식 플랫폼

창의지식 플랫폼(CKP)은 사용자들을 안내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특정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 해당 영역의 고유한 창의적 자산들을 부각시키는 방법, 하나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허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문자, 비디오, 이미지, 음성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 지역 창의지식의 실천가들을 참여시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는 방법, 보다 공평한 방식으로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 요구를 공동체의 고유 영역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원격으로 올릴 수 있는 공동 웹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CKP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관리한다. 사업 소유자(사업 리더)는 그림 1과 같이 이 플랫폼의 작업 흐름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게시한다.



도표 1. CKP의 작업 흐름 및 사업 관리

CKP는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산출물과 도구들을 제공한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이야기, 이미지, 비디오 등)를 보관할 디지털 도서관.
- CKP에 있는 참여자 프로필을 전용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연결시키는 QR 코드.
- 인터랙티브 전자 소책자와 책들을 제작할 도구.
- 수집된 지리공간 데이터를 지역이나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지오태그(geo-tagged)된 웹 기반의 대화형 지도.
- 지식 보유자들의 위치와 지역의 관심 지점(내 주변).
- 사용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특정한 관심 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커톤을 조직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

3. THEFUTURE와 CKP를 적용하기

이번 장에서 우리는 THEFUTURE를 적용하고 CKP 도구를 사용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킹(UCCN)의 일부인 도시와 지역에 이익을 주는 3개의 사업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사례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목표와 부합되는 주요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선별되었다.

- 1) 창의성과 혁신의 거점 개발에 기여하고, 문화부문의 창의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며, 공동체가 자신의 독특한 문화자산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한다(카라라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일하는 손” 프로젝트).
- 2)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계획에 통합시킨다(베르가모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장인 치즈” 프로젝트).
- 3)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한다(투손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와 협력하여 CKF가 발전시킨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



3.1. “일하는 손” 프로젝트와 「카라라 선언」

카라라 시와의 협력은 2017년 창의지식재단(CKF)이 카라라 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가입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시작되었고, THEFUTURE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영역 지도 그리기”)는 유네스코에 성공적인 서류 제출과 더불어 『일하는 손: 카라라 대리석』(Hands at Work: Carrara Marble)⁷의 2개 국어판이 출간되면서 완료되었다.

2020년 카라라 창의도시의 CKF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단체들의 지원 하에 “일하는 손”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인 지역 예술가 및 장인들의 작업과 방문 일정을 설명하는 9

7. ISBN 978-88-8341-679-8 (2017). 이 책의 프리뷰는 <https://www.dropbox.com/s/p0tia1ckdvytst1/Carra-Marble-Preview.pdf?dl=0>에서 볼 수 있다.

개의 비디오와 1개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준비를 발표하면서,⁸ THEFUTURE 프레임워크의 2단계(“헤리-텔링”)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의 나머지 두 단계(지역적 및 국제적)는 현재 카라라에 살고 있고 카라라 대리석을 사용해 작업하는 모든 예술가와 장인들의 지도를 그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⁹

창의지식 플랫폼으로 구축된 “일하는 손”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라라 창의도시와 지역 비영리단체, 적극적인 시민들과 교육단체들은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들의 작업을 설명하며, 그들이 매일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카라라의 독특한 문화자산이 제공하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¹⁰

“일하는 손” 프로젝트는 창의공동체 내 추가 조사를 촉발시켰고, 2021년에 카라라 시는 지역 실무단을 구성하여 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THEFUTURE의 4단계(“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실무단은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전문가와 초보자 모두), 교육기관(미술 아카데미, 젠틀레스키 연구소), 시민사회와 지역 노동조합(콘파르티지아나토, 전국 공예연맹, 상공회의소, 유네스코 카라라 클럽, 성곽강화연구소, 이탈리아 유산총국, APS 울트레), 지역 재단(카라라 카사 디 리스파르미오 재단, 마르모 재단), 적극적인 시민들, 기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향식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된 집단적 논의에서 얻어진 결과는 바로 카라라의 창의성 포럼(2021년 9월)에서 발표되었고,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에 의해 채택된 「카라라 선언」이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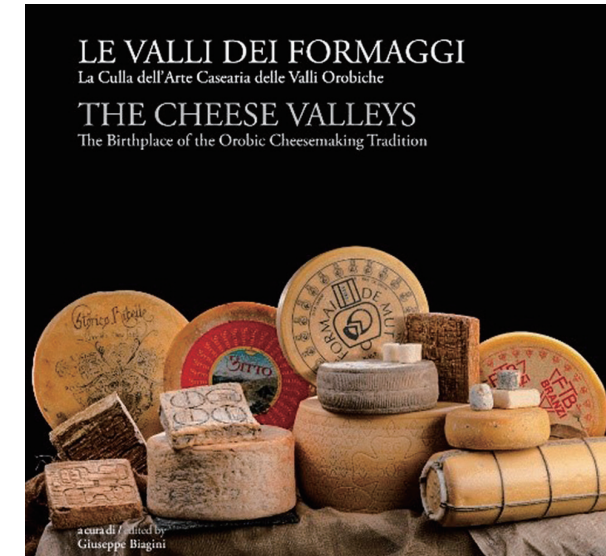
다음 단계는 이 선언의 내용을 다른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회원들과 공유

8. <https://fb.watch/8OjqGy6sV9/> 링크에 카라라의 비영리 협회 APS 울트레-스투디 아페르티가 만든 다큐멘터리 전체에 대한 프리뷰가 있다.

9. <https://ckp.creativeknowledge.foundation/view-projects/18:20/en>.

10. <https://ckp.creativeknowledge.foundation/view-projects/18:20/en?section=members>.

11. <https://en.unesco.org/creative-cities/events/carrara-reunites-italian-creative-cities-creativity-forum> and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86fQP6AtakSozG7EDV15qzgitKmbVTKjmKxtmQkQuaWBGMYV9fi45ZahyH3TMz3Ul&id=100603965306246.



하는 것이다.

CKF는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의 적용을 통해 카라라 시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와 적극적인 시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다.

- 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정책에 통합(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추동자로서 「예술과 공예에 관한 카라라 헌장」과 예술가와 장인들의 역할에 관한 「카라라 선언」의 공식적 채택).
- 채택된 정책과 전략의 실행을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조치에 대한 공동 기획. 그 한 가지 사례가 예술가와 장인들이 역사적 도심에서 거주하고 작업하도록 장려하는 “카라라 시-큐라”(Carrara si-cura)¹²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새로운 창조공간(전시실, 실습실 등)을 확

12. https://web.comune.carrara.ms.it/archivio10_notizie-e-comunicati_0_4136.html.

대하고 역사적 도심 생활에 공동체 참여가 늘어나는 데 따른 지역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3.2. “장인 치즈” 프로젝트

카라라와 마찬가지로, 베르가모 시와 CKF 간의 협력은 이 도시가 UCCN(미식 클러스터)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2018년에 시작되었다.

신청에 관련된 지역의 규모, 특히 3개 주(베르가모, 레코, 손드리오)에 걸쳐 있는 산악 지대인 오로빅 계곡이 여기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CKF는 즉시 “영역 지도 그리기”를 위한 전략과 운영위원회를 수립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정보 수집을 위해 CKP를 이용하여 『치즈 계곡—오로빅 치즈 제조 전통의 발상지』(The Cheese Valleys—The Birthplace of the Orobian Cheesemaking Tradition)라는 책을 출간했다.¹³

지역 전문가들은 오로빅 계곡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특성들에 관한 챗터를 준비하는 한편, 지식 보유자들을 인터뷰하여 왜 “... 치즈가 단순한 재료들의 혼합이나 ... 맛이나 품미 세트가 아닌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기록했다. “치즈 제조는 인간과 동물의 지속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사람들, 전문 지식, 전통적 관행으로 만들어진 인류학적 및 문화적 유산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오로빅 계곡 사람들의 시간과 삶을 나타내 왔다.”

2019년 10월, 베르가모 시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베르가모 지방 자치단체, 산 마테오 협회와 CKF는 신청서에서 치즈 공동체가 제안한 사업들을 착수했다. 이 사업에는 1) 지역 치즈 가치사슬 구성원들의 스토리텔링(2단계—“헤리-텔링”), 2) 전문 교육 과정(3단계—“지역 창의지식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3) 독특한 지역 농업 실천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농업 지구를 규정하는 앱 준비(단계 4—“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 등이 포함되었다.

13. SBN 978-1-7346136-1-2 (2019). A preview of the book is available at <https://www.dropbox.com/s/coiuid2gsi2a1c/Preview%20Book%20%2B%20Ferdyn%20Digitale.pdf?dl=0>.

“장인 치즈” 프로젝트¹⁴가 활성화되었고, 이 지방의 독특한 장인 치즈들 각각의 샘플이 하나씩 기술되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 지식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과정의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런 이유로, 지역 직업학교(베르가모 커뮤니티 칼리지인 Azienda Bergamasca Formazione), CKF 그리고 베네핏 기업 코오르가 협력하여 새로운 전문 과정인 ‘유제품 공급사슬에서 제품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자’ 과정이 개발되었다. 이 과정은 유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된 고유한 지역 지식을 전문기술자에게 교육하고, 다음 분야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새롭고 전통적인 고품질의 유제품 개발.
- 지역 유제품의 역사와 독특성 브랜드화 및 활용.
- 지역 관광 상품에 부합하는 홍보 전략 규정.
- 혁신적인(소셜 미디어 기반) 홍보 도구 사용.

그리고 또 다른 단계의 사업이 지역 학교와 함께 해커톤을 추진하면서 개발되었다. 그 첫 번째 행사에는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이후의 회복 국면에 있는 오로빅 계곡의 두 영역(세리아나 계곡과 베르가모 호수)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탄력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여러 학문 분야의 팀들로 나누어진 참가자들은 여러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그 지역에 대한 SWOT 분석을 개발하고, 그 지역을 좀 더 회복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창업을 위한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¹⁵

이 행사의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농업 및 음식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인 ‘베르가모 및 오로빅 계곡의 농업지구’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지구는 오로빅 계곡의 독특성과 일치하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인 제품들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이 지구 사업은 “장인 치즈”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며,

14. <https://www.artisanalcheese.org/>.

15. 이 행사에 관한 비디오는 <https://youtu.be/0xvYdnk9cWQ> 참조.

모델의 완전한 적용이다(중앙정부에 대한 요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모두 필요하다).

3.3.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

“창의도시의 빵”(Breads of the Creative Cities, BoCC) 프로젝트는 THEFUTURE와 CKP의 목표들 중 가장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BoCC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다양한 창의 클러스터(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영화, 미식, 문학, 미디어 예술, 음악)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연령, 종교,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공동체(단일 창의도시에 속한 공동체)가 아닌 전체 UCCN에 속한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시도이다.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BoCC는 클러스터 간의 대화 구축을 그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두번째 목표는 참여한 유네스코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ies, UCC)들과의 수년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개발된 ‘사회적 응집력’의 모범 사례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이후¹⁶ CKF와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투손은 UCCN 전체를 포괄하는 최초의(그리고 유일한) 클러스터 간 사업을 조직하고 지원해 왔으며, 현재 그 네 번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¹⁷

아마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유는 BoCC가 정의상 포괄적이고, 참여하는 모든 UCC가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빵은 풍요와 기적, 관대함과 나눔의 상징이며 ... 빵은 영양

16. 이 사업은 제12차 UCCN 연례회의(2018년) 기간 중 폴란드의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빵의 날’에서 유래되었다.

17. ‘창의도시의 빵’은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명시한 200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과 생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요리 문화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준비 방법과 관련 전통들은 세계만큼이나 다양하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 이후, 주최자들은 ‘빵’의 정의를 “현지 밀가루를 사용하고 지역사회의 유산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지의 모든 중요한 음식”으로 확장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¹⁸

이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또 다른 중요 키워드는 유연성이다. 이 프로젝트의 형식은 UCC들의 고유한 공동체 특성, 사용된 재료, 그리고 ‘빵’ 제조에 적용된 기술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18. 많은 UCC들은 ‘빵’을 그들의 문화에 특유한 산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확대하여 빵의 기본 재료—밀가루—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모든 종류의 밀가루(과일 기반, 생선 기반, 곡물 기반 등)와 모든 종류의 준비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BoCC는 참여 UCC에 대한 설명, 지역 ‘빵’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 최소 한 명의 제빵사에 대한 이야기, 빵 제조법 발표 등을 요구하는 단순한 사업에서 더욱 더 복잡한 사업으로 지난 수년에 걸쳐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도 사업 이후, 우리는 빵 가치사슬의 전체를 고려해 왔다. 다시 말해, 전통 재료를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종자를 고르는 농부, 곡물을 필요한 밀가루로 갈아주는 제분업자, 전통을 해석하여 현대인의 입맛과 지역 전통에 맞게 만드는 제빵사 등등. 이 프로젝트의 첫번째 주요 진화는 2019년 이탈리아 파브리야노에서 열린 제13차 UCCN 연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주최측은 전용 라운드테이블에서 여러 UCCN 회원들과 BoCC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이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 우리는 참여 도시들을 위해 더욱 포괄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그 문제들로는, 지역 제빵사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BoCC 주최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참여 UCC들에게 우선순위인 사회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그 결과, BoCC 조직 구성원이 제빵 공동체를 방문하여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들의 작업을 인정하는 ‘브레드 미팅’(Bread Meeting)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으며, CKF와 주최 UCC가 공동 발행하는 인증서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방문은 제빵사, 제분업자와 농부들을 직접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 지역 빵 전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이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이탈리아(알바, 볼로냐, 카라라, 파브리야노), 멕시코(푸에블라, 산 크리스토폴 데 라스 카사스), 폴란드(크라쿠프), 튀르키예(가지안테프), 미국(퍼두커, 투손) 등 여러 UCCs를 방문했다.

제13차 UCCN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온 세번째 권고사항인 참여 UCCs에게 우선순위인 사회적 문제 해결은 제14차 UCCN 회의(2022) 기간 중 브라질 상투스에서 제출된 BoCC 프로젝트의 세 번째 사업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세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모범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 1) 산토스 시는 실직 여성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식량을 마련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자신의 빵집을 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의 비영리단체인 ‘연대 기금’(Fundo de Solidariedade)의 학생들을 소개하는 비디오 인터뷰 세트를 준비했다.¹⁹
- 2)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 시는 BoCC가 고대 ‘하브라니 밀’을 현지 생산 주기에 재도입하는 사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 선정된 농가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부여한 사례를 발표했다.²⁰
- 3) 스페인의 테니아 시는 BoCC가 “공동체의 유산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대 전통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CKF와 투손 UCC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네번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15차 UCCN 회의(2023) 기간 중 이스탄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BoCC 사업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1)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시는 7개의 터키 UCCs와 함께 공동 사업을 준비하고 각 지역의 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의미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각 참여 도시로부터 제빵사, 제분업자, 농부를 각각 1명씩 이스탄불로 초청해서 빵을 만들고, BoCC 라운드테이블 기간 동안 그 빵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응집력을 구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2) 멕시코의 푸에블라 시는 공용 화덕에서 구운 빵에 도장을 찍는 오랜 관행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하고, 이 개념을 전통 빵의 명맥을 잇는 각 UCC의 제빵사를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의 기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3) 한국의 진주시는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유한 곡물 유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빵

19. <https://www.youtube.com/watch?v=54WTKUHZBuc&feature=youtu.be>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b5S3Xr032I8>.

20. <https://www.youtube.com/watch?v=rKV1XoaF5rA>.

가치사슬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농부와 제분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BoCC의 사업들을 통해 우리는 BoCC 프로젝트가 THEFUTURE의 네 단계를 완전히 채택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즉, BoCC는 참여 UCC에게 지역 밀가루로 만든 중요한 문화 음식이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제의함으로써 이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개념을 사용하고(“영역 지도 그리기”), 그 다음 지역의 빵 가치사슬의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도록 요청하고(“헤리-텔링”), 빵 전통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는 지역 교육기관들에 대한 설명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지역 창의지식에 대한 교육과 훈련”). 현재 2023년판 프로젝트에서는 신규 및 기존 BoCC 회원들에게 빵 전통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회복탄력성 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의 공동 창출”)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THEFUTURE의 4단계 적용이 제안되었다. 따라서 제15차 UCCN 회의 기간동안 그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들이 논의되고 발표될 것이다.

3.4.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 프로젝트²¹

“창의도시의 빵”의 경험을 바탕으로, CKF는 “실을 잇다—문화를 잇다”(Connecting Threads—Connecting Cultures, CTCC)라 불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 도시들은 어떻게 실, 섬유, 직물이 창의공동체와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 논의하는 데 즉각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일차적으로 지지를 보낸 도시들은 코모(이탈리아), 나소(바하마 연방), 퍼두커(미국), 그리고 산타페(미국)이다.

21. 참여사업을 정의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최종 제목은 사업의 하위 주제를 주도하는 UCC들에 의해 결정된다.

CTCC 프로젝트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 즉 신체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 몸을 덮는다는 점에서 BoCC와 동일한 기본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 실, 섬유 및 직물이 결합된 의복은 착용자의 문화와 지위를 강력하게 나타낸다. BoCC에서 ‘빵’이 한 공동체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실, 섬유, 직물’도 그렇다. ‘빵’과 마찬가지로, ‘실, 섬유, 직물’의 사용, 변형 및 준비는 ‘세상만큼이나 다양하다.’

각 참여 UCC는 이 일반 주제의 특정한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음과 같이 일부 도시들이 관심을 표명했다.

- 코모 UCC는 어떻게 패션이 전통과 창의성, 공예 솜씨 및 실용적인 용도로 정의되는 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나소 UCC는 어떻게 깊이 인종, 성별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국내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연결시켜 왔는지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초기 실무단을 완성하기 위해, ‘실, 섬유 및 직물을 착색하기 위한 천연 염료’와 ‘실, 섬유 및 직물의 재사용’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룬 UCCs의 참여를 기대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공동체의 종종 방치되어 있는 문화자산의 발견과 평가에, 그리고 해당 문화 부문의 창의적인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THEFUTURE와 CKF가 어떻게 성공적인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했다. 우리는 THEFUTURE가 전지구적 수준의 동질화에 의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전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어

떻게 문화와 창의성을 지역 발전 전략과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 사례들은 연령, 종교, 성별, 인종 및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동체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목표와 사명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논문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김희선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아만

진주의 문직물 제작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아만*

초 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 공예 및 창의산업들에서의 분야간 협력이 다시한번 주목되고 있다. 협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몇몇 중요한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왜 문화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행동들이 분야간 협업에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다.

문화, 공예, 창의산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위기에 대한 내러티브가 팽배한 현 시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위기관 파괴적인 급속한 변화가 있는 한 순간일 뿐이며, 우리는 좀 더 영구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미래의 문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내러티브들이 요구되며, 문화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되어야 한다. 창의산업들의 글로벌한 성공 사례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야간 협력을 통한 창의산업들의 글로벌한 성공 사례는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분야를 가로지르는 프레임워크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부족과 같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분야간 협력은 문화적 행동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화 영역을 넘어서는 더 넓은 생태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문화 내에서의, 또 문화와 함께하는 분야간 협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협업의 주제, 관련 거버넌스의 설정, 그리고 방법론을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우리는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 도시와 문화 등 분야를 가로지르는 주제는 이에 관련된 예시를 제공한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 보자면, 유럽 도시들에서 그동안 행해진 구체적인 분야간 협업 실천과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주요 분야간 정책 이니셔티브가 흥미로운 참고 사례가 된다.

키워드: 분야간(분야를 가로지르는, 분야-교차), 분야 내러티브, 전환, 문화정책, 창의산업, 공예, 기후 변화, 도시, 유럽 연합

* 실비아 아만(Sylvia AMANN), Inforelais 의 대표이며, EU의 도시개발 프로그램의 문화 전문가이면서 유럽 문화 수도 선정 및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성원이다. 그녀는 비엔나 경제 및 경영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이메일: office@inforelais.orgg.

팬데믹(이후의) 국면 뿐 아니라, 2020년 초반부터 발생해 온 주요한 (글로벌한) 혼란들은 문화와 창의산업 분야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위 이론이 현재 정책과 문화 조직 분야에서 지배적인 화두이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그동안 창의산업과 공예 및 문화 분야에서 긴급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해 왔다.¹

이런 지원 조치는 물론 관련 분야와 그 분야에 속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었고, 또 실질적인 대안이 없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상당한 수의 인적 자원을 구속했을 뿐 아니라, 문화 정책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 분야의 생태적 변화와 같은 긴급한 주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위기와 비상상황에서 준비상태로의 전환

미래가 보장되는 문화 정책을 위해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상당한 이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위기 시나리오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첫번째 시나리오는 보조 기구들을 개발하여 위기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혁신을 위한 상황들에도 접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2년차의 유럽 연합 내 장기 정책들과 지원 프레임워크를 분석해 보면, 상당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응급 지원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혁신 프로그램들로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느리며, 정책 입안자들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망설임이 있다."

1. IDEA Consult, Goethe-Institut, Amann S. and Heinsius J. 2021, Research for CULT Committee -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 crisis eff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Brussels

게다가, "문화와 관련이 없는 의사결정권자들의 대부분은 문화와 창의 부문이 팬데믹 이후 유럽 사회와 경제에 제공하는 중요한 이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혁신 지원 수단들을 위기 대응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지역적 차이가 더욱 커졌다." 긍정적인 측면은 "대규모 예산이 동원될 수 있었고, 실험적 환경들이 평가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재단들이 CCS 혁신 자금 지원에 계속하여 참여했다"²는 것이다.

정적 생태계와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파행적인 효과들을 피하기 위한 두번째 시나리오는 팬데믹을 비롯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문화 정책 담당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이 취하는 조치들의 맥락을 영구적인 변화에 기반한 역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생태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의 차원에서, 주요 예측 훈련은 기후변화에서부터 위협에 처한 민주주의 시스템, 디지털 혁명과 새로운 지정학적 프레임워크 등과 같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우선적인 주제들과 미래의 변화 시나리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³ 이러한 모든 발전은 문화, 공예, 그리고 창의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기회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다.

영구적인 변화의 프레임워크는 문화 분야의 정책 입안자들과 활동가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는 한편으론 잠재적으로 파행적인 부정적 영향들과 관련된 조기 경고를 받고, 그에 대응하는 완화 조치를 계획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편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금

2. Amann, S.; De Voldere, I.; Fraioli, M.; Heinsius, J. (2021) "Build Better With Innovation: Relaunch Policy Initiatives for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Brussels: Creative Flip

3. European Union (2021): „2021 Strategic Foresight Report - The EU's capacity and freedom to act", Brussels: Joint Research Centre

정적이고 더 나은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문화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이런 시나리오들은 문화뿐만이 아닌 다른 주제 영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

분야들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렇게 분야를 가르치르는 새로운 정책들의 개발은 또한 창의산업 정책 및 실행 계획의 도입과 같은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계획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우선 순위에 기초해 볼 때, 창의산업의 네러티브는 고품질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하고 주로 도시적인 사회의 요구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창의산업들은 세계적인 트렌드세터들과 수많은 (문화)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인 (문화) 창의도시의 개념을 구축하는 그들의 특별한 디자인, 공예, 건축, 패션으로 인해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창의산업은 예를 들어 새로운 작업 방식(원격, 공동 작업, 디지털) 뿐만 아니라, 섹터를 이동하는 혁신(게임, 앱)과 같이 섹터를 가로지르는 논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미 다루고 있었다.

창의산업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문화·창의 분야에서 2019년 760만개의 일자리가 집계 되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70만개가 증가한 것이다.⁴

4. Alvarez, H; Marcout, C., Nam, Q., Sauze, E. (2021) "Rebuilding Europe : the cultural and creativ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Paris: Ernst & Young for GESAC

창의산업 - 분야 간 참조 사례

창의산업의 개념은 예를 들어 문화부와 경제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수립 차원에서나 도시 내 창의적 장소들을 공동 개발하는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분야-교차적이다.

물론 향후 몇 년 동안 우선 순위와 가치들이 상당히 바뀔 수는 있겠지만, 분야 간 협력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미래의 변화 시나리오를 잘 해결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문화 및 창의 분야(다른 활동 분야와 마찬가지로)와 관련하여, 다른 주제 분야와의 상호 작용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효과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변화는 분야-교차적인 문화 정책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며 하나의 정의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함의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계획된 변화와 긴급한 변화, 일시적인 변화 또는 지속적인 변화를 구별할 수 있다.^{5 6 7 8} 긍정적인 개념은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가치 집합에 기초한다(예: 경제개발 대 자연보호). 분야-교차적인 문화정책의 경우 이와 관련한 주체는 문화장관, 문화의원, 또는 다양한 레벨의 거버넌스 문화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하고 원하지 않는) 변화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이해당사자의 역량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의에 따라 분야-교차적인 정책 또는 이니셔티브에는 다른 주제 영역의 파트너가 포함되며 관련된 협업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

5. Dunphy, D. (1996). Organizational change in corporate setting. *Human Relations*, 49(5), 541-552.

6. Munduate, L., & Bennebroek Gravenhorst, K., M. (2003). Power dynamics and organisational change: An introduc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2(1), 1-13

7. Weick, K., E., & Quinn, R., E. (1999).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61-386.

8. Nonås, K. (2005) "Vision versus reality in organizational change", Göteborg: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협업 거버넌스, 기관, 그리고 개인의 생태-시스템적 접근 방식

협업적 생태-시스템은 개인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조직 및 행정을 포함하며 참여 프로세스 및 정보에 대한 개방적 접근과 같은 협업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전히 주제별 사일로에서 개발되고 구현되기 때문에 협업 거버넌스를 설치하려면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분야-교차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문화 분야의 많은 조직과 행정부는 -지금까지 - 다른 분야의 조직과 약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며, 조직적인 임무는 더 넓은 주제의 맥락에서 개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개인은 규칙이라기 보다는 예외로 볼 수 있고, 보상 시스템(금융, 인정)은 분야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것은 분야-교차적인 문화 프로젝트나 연구가 종종 자금 조달, 실행 및 출판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프레임워크

우리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와 창의 분야에 영향을 주고 또 이에 영향을 받는 변화의 역동적인 프레임워크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많은 미래 시나리오가 잘 분석되고 있으며, 문화 및 창의 분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시작할 수 있다. 위기 상황과 관련 비상 조치를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을 (재)수립해야 한다.

미래의 변화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창의 분야의 시스템이 협력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이와 관련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동기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변화에 관한 새로운 협력 정책이 필요하다.

협력적 문화(정책) 변화와 기후 변화

이 새로운 변화의 협력 정책 개념은 기후 변화에 의한 주요 미래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화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생태적 변화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는 전체 CO2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따라서 도시 지역은 기후 변화 완화 조치에 상당히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030년까지 달성되어야 하는 CO2 배출량의 상당한 감소를 고려할 때, 분야-교차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긴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 및 기타 목표와 관련된 상충되는 가치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먼저 도시의 공예 부문과 문화인들을 포함하는 "녹색" 문화로 협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가치들을 이해해야 한다.

생태적 문화정책은 고전적 혁신정책을 넘어선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사회 그리고/또는 경제를 위한 자원 사용을 정당화하는 활동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은 토론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 예술 활동을 포함하여 어떤 하나가 자원의 집중적인 사용을 더 이상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공공 문화 기금으로부터 더 이상 이익을 얻거나 심지어 규제 정책 측면에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문화 교류와 관련해 특히 명확해지며, 문화 협력을 위해 극동이나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여전히 허용해야 하는지, 어떤 문화 종사자들이 어떤 비유럽 국가의 활동을 위해 유럽

로 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 중 하나이다."⁹

이러한 맥락은 문화적 권리와 문화 참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성찰을 의미하지만, 국가와 도시에 의한 이동성 정책의 더 넓은 맥락과 미래에 어떤 종류의 이동성 사회와 관련 정책이 여전히 어떤 대가로 허용될 것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정책) 또한 이러한 가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예를 들어, 새로운 문화 건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문화 건물이 토양의 추가적인 밀봉을 정당화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생태적 건축물, 특히 문화적 건축물의 의미에서의 건축은 자원을 최소화하는 건축사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연합의 계획인 신유럽 바우하우스는 이런 노선의 주장을 따른다. 그러나 논증의 각 단계는 아직 가치에 기반한 기준 프레임이 아니며, 사회 전체, 경제 전체, 미래의 생태적, 문화적 생태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되거나 정의되고 있지 않다."¹⁰

이 두 번째 예는 또한 도시의 문화 정책과 종종 도시 중심부를 둘러싼 시골 지역의 문화 발전에 대한 관련 미래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문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접근, 균형 잡히고 문화적인 지역 개발, 대중 교통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의미한다.

위의 두 예는 기후 변화 분야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다른 주제 영역과의 상호 연결성뿐

9. Sylvia Amann (2021): Die Transformation zu einer ökologischen Kulturpolitik ... weit über einen Technologiewandel hinaus . In: KULTURELLE BILDUNG ONLINE <https://www.kubi-online.de/artikel/transformation-einer-oekologischen-kulturpolitik-weit-ueber-einen-technologiewandel-hinaus>

10. Sylvia Amann (2021): Die Transformation zu einer ökologischen Kulturpolitik ... weit über einen Technologiewandel hinaus . In: KULTURELLE BILDUNG ONLINE <https://www.kubi-online.de/artikel/transformation-einer-oekologischen-kulturpolitik-weit-ueber-einen-technologiewandel-hinaus>

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 의제와 관련한 가치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충되는 옵션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문화 및 공예 분야를 보다 생태적으로 만들기 위한 분야-교차적인 노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어떤 분야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생태계의 생태적 변화를 위한 구성요소¹¹

생태적 변화는 사회와 경제와 관련된 다른 주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화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문화 장소의 관리나 축제나 공예 박람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한 방법 등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생태계 전체의 생태적 변화 개념은 중요하며 생태 관리와 같은 대안적 개념에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문화생태계의 이해당사자들은 우선 정책과제와 우선 순위를 정의하는 거버넌스 수준과 가치체계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가용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생태계의 추가적인 참여자들은 그들의 임무와 실행 계획에 의해 우선 순위를 정의하는 행정부와 문화 기관들이다. 또한 문화생태계의 각 개인은 자신의 전문적이고 사적인 맥락에서 더 나은 생태학적 틀을 지향하는 행동을 제안, 구현, 공동 자금 조달, 권고 또는 전파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변화의 행위자이며 문화분야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처할 때, 우리는 도시의 CO2 감소를 위해 활동하는 부서, 즉 기후 변화 완화 전략, 에너지 및 물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 및 도시 개발, 관광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교차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11. Sylvia Amann (2022): Collaborative Policies of Transformation with and by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Brussels: Creative FLIP (full research to be published in 2023)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생태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체들(섹터를 가로지르는 이해에서 의미하는)은 최첨단 생태적 현대화, 문화 생태계의 생태적 변화, 그리고 변화의 갱신된 내러티브에 대한 기여로 구성된 세 가지 다른 개입 영역에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

기술적 기회를 기반으로 하고 과학과 공동의 실천이 이미 개념 증명을 제공한 최첨단 생태 현대화는 기후 변화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다. 공예 분야와 관련하여, 이것은 연료 기반에서 목재 기반 대체품으로 장인 및 공예 여성의 작업장 난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 있다. 난방 시스템을 교환하기 위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생태적 변화와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미 제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유럽의 관점에서 관련 과제는 오히려 2021-22년에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붕괴와 관련하여 이용가능한 태양광 패널과 같은 충분한 인력과 구성 요소를 보유한 회사의 부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보호된 건물에 대한 생태학적 개입은 다양한 보호 목표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우려와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설된 문화유산의 보호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일부이지만,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교환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담보물인 보호된 건물 구조물에 대한 상당한 개입을 의미할 수 있다.

다시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적 전환을 위해 유리한 프레임워크는 문화 영역을 포함한 유럽 그린딜의 이행 관점에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유럽 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CO2를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문화적 건물의 난방 교환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전반적인 임무와 전략에 (상당히) 간접하지 않는 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정책과 조직의 생태적 변화는 일부 기술적인 적응을 훨씬 뛰어넘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문화부나 전체 문화 기관에서 다루는 작업 분야와 같은 전체 시스템에 위한 이러한 CO2 감소 전략은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말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조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생태학적 변화는 이 분야-교차적인 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결정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과제이다.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와 그 배경이 되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 문화부 장관이나 정당들은 생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다른 의견들도 옹호할 수 있다.¹² 예를 들어 주립 극장에서 새로운 임무 보고서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적 현대화 프로세스는 이러한 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위치와 힘에 따라 횡단적인 주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문화 생태계의 민간 행위자들은 생태적 변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매우 다른 개념과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도시에서 문화 생태계의 생태적 변화 과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비슷한 질문이다. 관련 변환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정치적 헌신과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그룹이 필요하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관련 전략과 실행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분야를 초월하여 작업할 때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다.¹³

이러한 분야-교차 전략 및 실행 계획의 필요성은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서 직원과 청중의 이동 패턴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교통부, 문화 장소의 시설 관리자와 협력해야

12. NEMO (2021): Green Museum Podcast: <https://www.ne-mo.org/news/article/nemo/nemo-discussed-sustainability-in-the-green-museum-podcast.html>

13. Inforelais (2021): „More than a 100 green cultural dreams” – A serious game for cross-sectoral green action planning in cities

하는 접근가능한 대중 교통의 필요성을 의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위한 주차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마케팅 및 관광 부서는 현지 및 국제 고객을 위한 새로운 접근성 기회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인사부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거나 버스 시간표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시간과 관련된 수정을 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 간 협력과 공동 이니셔티브의 다른 많은 요소들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CO2 감축 목표에 대처하기 위해, 예를 들어, 너무 많은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피하기 위해 전체 규칙과 규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생태학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을 암시한다. 게다가, 규칙과 규제는 예를 들어 그들의 문화적 생태계를 더 생태적이고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 역량의 일부일 수 있다. 일부 규칙은 주 차원과 같은 다른 거버넌스 수준에서 오히려 결정될 수 있다. 어쨌든, 생태 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 조직 혁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 변화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변화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적 변화

일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문화적인 노력이다. 기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동료들과 사회 전체에서 어떤 태도를 존경하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은 자연과 문화 사이의 강력한 이분법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인간이 거리감을 느낀다면, 확인된 도전에 대한 해답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와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 달라질 것이다.

"자연은 종종 문화 혹은 다른 방식과 맞서는 것으로 설정되며, 인간의 개입과 활동에 의해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온전한 자연의 이상을 들먹인다. 프랑스 철학자 Baptiste

Morizot의 흥미로운 추가 고려사항은 인간의 자아상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립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녹색 공간은 손대지 않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화적 풍경이라는 인식이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유럽의 산중 목초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들 중 일부가 만들어진 너무 키가 자란 소 목초지에도 적용된다.^{14 15}

예술, 문화, 창조산업 및 공예는 현대 사회가 그들의 위치와 현재 가치 세트를 반영하고, 현재의 태도에 도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대안적인 행동 방식을 실험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COAL 계획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예술가와 문화 행위자들을 동원하고, COAL 예술&환경상, 전시회 큐레이션, 기관과 지역사회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유럽 협력, 회의 애니메이션, 워크숍 및 리소스 웹 사이트와 같은 행동을 통해 생태 문화의 출현을 지원한다."¹⁶ 문화, 공예 및 그 이상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분야-교차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유럽 정책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연합의 정책과 의제는 분야-교차적인 도전을 반영한다

유럽 연합(EU)¹⁷은 그린딜을 통해 광범위한 횡단적 접근 방식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이니셔티브는 참여적 접근 방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전

14. Pearce, Fred (2016): Die neuen Wilden, München: oekom

15. Sylvia Amann (2021): Die Transformation zu einer ökologischen Kulturpolitik ... weit über einen Technologiewandel hinaus . In: KULTURELLE BILDUNG ONLINE <https://www.kubi-online.de/artikel/transformation-einer-oekologischen-kulturpolitik-weit-ueber-einen-technologiewandel-hinaus>

16. <http://www.projetcoal.org/coal/>

17.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환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유럽 바우하우스이며, 건축 및 건축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이 생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기능과 미학을 (다시) 상호 연결할 수 있다. 주요 관련 프로젝트는 또한 더 나은 것으로 변화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 영역에서는, EU 도시 혁신 행동은 문화 및 유산 영역을 포함한 실험적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리스의 도시 할란드리¹⁸는 시민, 창의 분야, 그리고 물 관리 회사가 참여하는 물과 유산 공유의 포괄적인 개념과 관련된 다년간의 분야-교차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그밖의 많은 다른 사례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의 이해당사자와 시행자가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조치로 해결되는 광범위한 분야-교차적인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의 혁신 시나리오를 다루는 협업 정책과 관행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8. <https://uia-initiative.eu/en/uia-cities/halandri>

참고문헌

- Alvarez, Hugo, Clémence Marcout, Quentin Nam, and Enzo Sauze. 2021. *Rebuilding Europe: The cultural and creative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crisis*. Paris: Ernst & Young for GESAC.
- Amann, Sylvia. 2021. "Die Transformation zu einer ökologischen Kulturpolitik ... weit über einen Technologiewandel hinaus." *Kulturelle Bildung Online*. <https://www.kubi-online.de/artikel/transformation-einer-oekologischen-kulturpolitik-weit-ueber-einen-technologiewandel-hinaus>.
- . 2023. *Collaborative Policies of Transformation with and by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Brussels: Creative FLIP.
- Amann, Sylvia, Isabelle De Voldere, Martina Fraioli, and Joost Heinsius. 2021. *Build Better with Innovation: Relaunch Policy Initiatives for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Brussels: Creative FLIP.
- Dunphy, Dexter. 1996. "Organizational Change in Corporate Setting." *Human Relations* 49.5: 541-552.
- European Commission. 2021. "New European Bauhaus." https://europa.eu/new-european-bauhaus/index_en.
- European Union. 2021. *2021 Strategic Foresight Report—The EU's capacity and freedom to act*. Brussels: Joint Research Centre.
- IDEA Consult, Goethe-Institut, Amann S. and Heinsius J. 2021. *Research for CULT Committee—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in post-Covid-19 Europe: crisis eff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Structural and Cohesion Policies, Brussels.

- Inforelais. 2021. "More than a 100 green cultural dreams—A serious game for cross-sectoral green action planning in cities."
- Morizot, Baptiste. 2020. *Manière d'être vivant*. Arles: Actes Sud.
- Munduate, Lourdes, and Kilian M. Bennebroek Gravenhorst. 2003. "Power Dynamics and Organisational Change: An Introduction." *Applied Psychology* 52.1: 1–13.
- NEMO (Network of European Museum Organisations). 2021. "NEMO discussed sustainability in the Green Museum Podcast." <https://www.ne-mo.org/news/article/nemo/nemo-discussed-sustainability-in-the-green-museum-podcast.html>.
- Nonås, Kathe. 2005. *Vision versus reality in organizational change*. Göteborg: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 Pearce, Fred. 2016. *Die neuen Wilden*. München: oekom.
- Weick, Karl E., and Robert E. Quinn. 1999.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361–386.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논문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김희선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야만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장수현, 김도은**

초 록

연구는 진주실크의 역사와 진주의 문직물 제직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구술 조사로 이루어졌다. 진주실크는 1910년대에 우수한 실크 생산력과 기술력에 원료 수급이 원활한 지역적 이점이 더해져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공장들이 근대식 설비를 갖추었고, 뛰어난 생산성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1990년대부터 실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체들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진주실크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쏟고 있다. 진주의 문직물 제직 과정은 직물 분해·설계, 문지 설치, 제직 준비, 제직으로 나뉜다. 먼저 제직하려는 직물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제직을 계획하고, 직기를 셋팅한다. 그 다음, 직물 설계에 따라 문지를 만들고, 설치한다. 제직 준비는 제직할 경·위사를 준비하고, 그 실을 직기에 거는 과정이다. 제직 준비가 끝나면 직수들이 직물을 직조한다. 진주의 문직물 제직 과정마다 다양한 기술자들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고령의 기술자들만 남아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진주실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진주의 전통 문직물 제직 기술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초 자료의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키워드: 진주 실크, 근현대 한국의 직물, 한국 전통 공예, 한국 문직물, 직물 공예

* This paper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inju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Excavation Project, which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Samgwang Cultural Research Foundation and the Jinju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in 2021.

** Eunjin LEE is Professor of Clothing and Textiles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where Jaehwi HAN is a Ph.D. candidate and Soohyun JANG is currently a Ph.D. student. Doeun Kim also completed her master course at GNU.

I. 서론

경상남도 진주시는 국내의 대표적인 실크 명산지로서, 한국 전통 문직물의 복원·복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진주실크는 약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실크 제직 기술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기술과 노하우, 경험 등은 한국 전통 문직물(紋織物, patterned textiles)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전통 문직물은 복식 유물의 주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어진의 장황(粧纒), 의궤의 책의(冊衣) 등의 국보급 문화유산을 비롯해 회화, 고서, 외교문서, 병풍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물 복원 및 복제에 사용된다. 그리고 직물의 무늬는 직물의 조직, 특성 등과 더불어 직물 유물의 시기를 감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옷감에 나타난 무늬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¹

그러나 1990년대부터 국내의 실크 산업이 위축되면서 진주의 직물 공장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실크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의 복식 유물 복제도 직물부터 고증하기보다 복식의 형태에 집중하였다.² 그러다보니 한국의 전통 문직물 제직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은 전통 수공문직기를 비롯한 전통 문직물의 제직 기술이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인접한 중국, 일본에서는 전통 수공문직기와 문직물 제직 기술을 계승하여 수공으로 직물을 제직하고 있다.³ 수공으로 제직된 전통직물은 유물 복원, 복제 외에도 작품, 장식품, 여행 기념품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면서 그 지역의 로컬리티(locality)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진주실크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신진 기술자의 양성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진주실크 제직 기술자들은 실무를 통해 기술을 몸소 체험하여 익혔고, 그러다보니 기술이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리되어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 국립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놀와. 2006. 11쪽
 2. 김정수. 조선시대 문직물 복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쪽
 3. 이은진 외 3인. 진주실크 제직기술 실태연구, 진주문화관광재단·삼광문화연구재단, 2021. 13쪽

한국 전통 문직물 제직이 가능한 진주의 기술력을 보존·계승하고, 로컬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주실크 제직 기술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주의 전통 문직물 제직 및 기술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근·현대 한국의 견직물 제직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개관 예정인 진주 실크박물관의 특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와 구술 조사이다. 먼저, 근·현대 신문 기사와 문헌을 통해 진주 실크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제직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진주의 기술자들에게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크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 구술 조사를 통해 문헌으로는 알 수 없는 제직 과정별 기술을 파악했다. 특히 복식 유물 복원·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통직물 제직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II. 진주실크의 역사

1. 1910년대 ~ 해방 이전

1910년대에 일본은 조선에 회사령을 공포했고, 광업과 상공업, 농업 등을 규제했다.⁴ 일본은 특히 조선에서 양잠업을 크게 장려했다.⁵ 이는 조선의 땅과 기후조건이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⁶ 양잠은 일제수탈의 중요한 종목 중 하나였다. 진주는 기후 조건과 지

4. 진주시사편집위원회. 진주시사 中卷, 진주시, 1995. 406쪽

5. 山口 精. 조선산업지(中), 보문관, 1910. 538-539쪽. 재인용:진주시사편집위원회. 진주시사 中卷, 진주시, 1995. 406쪽

6. 요코타 모토코. 일본 자료로 고찰하는 한국 잠사(蠶絲)에 대하여, 아시아민족조형학보 20, 2019. 42쪽

리적 이점이 뛰어나 양잠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⁷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양잠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주의 양잠 농가 수와 누에고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다.⁸

진주는 실크의 원료 수급에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기술력도 갖추었다. 1910년경 진주목의 행정구역이었던 산청군의 한 마을에서는 150여 가구의 주민들이 수직기를 사용해 실크를 제직했다.⁹ 1910년 경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산청군 단성면 목곡리에서 생산한 견직물은 품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진주는 이러한 이점들을 기반으로 근대적 생산 형태도 빠르게 갖추기 시작했다. 진주가 근대적 직기를 사용해서 공장형 제직을 시작한 것은 '동양염직'이 설립된 이후로 보인다. 1925년 경북 유일의 직조 공장인 대구동양염직이 진주에 지점을 설립했고, 연수입금이 좋은 편이었다.¹⁰ 1931년에는 기업(機業)전습소 제1회 도내 순회 강습지로 진주가 결정되었다.¹¹ 이러한 내용을 통해 1920~1930년대에 이미 진주는 직물 생산에 유리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해방 이후 ~ 1960년대

해방 이후 진주실크 산업은 근대적 공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진주의 '동양염직'은 문직물을 제직할 때 역직기(力織機)를 사용했다.¹² 1946년에는 진주의 '조일견직'이 현대식 설비를 이용해 '뉴똥[유똥, 뉴텐]' 직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했다.¹³ 뉴똥은 당시 일본에서

7.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진주비단,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1986. 23쪽

8.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의 120년사,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2006. 259쪽

9.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진주비단,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1986. 24쪽

10. 조선일보. 大邱東洋染織(대구동양염직)의發展(발전), 조선일보 1월 5일, 1926. 8쪽

11. 동아일보. 機業傳習問題(기업전습문제)로 晋州市民有志會(진주시민유지회), 동아일보 4월 9일, 1931. 5쪽

12. 김은숙. 견직공업의 발달과 입지특성,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5쪽

13. 이은진 외 3인. 진주실크 제직기술 실태연구, 진주문화관광재단·삼광문화연구재단, 2021. 27쪽

수입하던 직물로, 국내에서는 조일견직이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다.¹⁴

1950년대에는 진주의 '동양염직'에서 생산한 뉴똥이 '제3회 전국 국산품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¹⁵ 진주에서 생산된 뉴똥 직물은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진주 뉴똥'이라 불리게 되었다.¹⁶ 1950년대 후반에는 <그림 1>처럼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건물과 시설을 재건하고 현대식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다.¹⁷

1962년에는 '지상박람회(紙上博覽會)'가 열렸는데, 경남관에서 <그림 2>처럼 경남의 특산품으로 '자카드 문직기'¹⁸가 전시되었다. 이처럼 진주를 비롯한 경상남도는 역직기나 자카드 문직기 등 직물 산업이 근대적 공업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현대 설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이 뛰어난 직물을 생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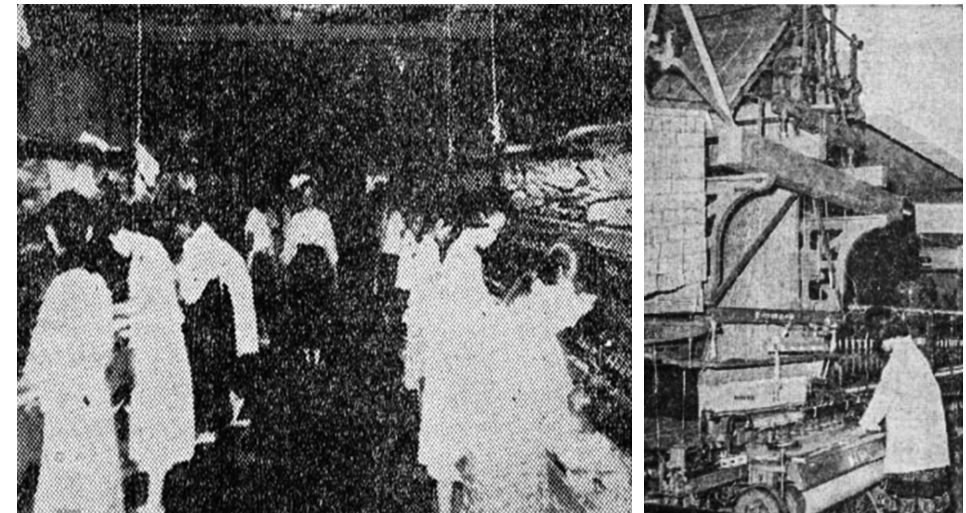


그림 1. 합동제사 진주공장조업, 조선일보 1959년 8월 22일 (왼쪽).

그림 2. 박람회에서 선보인 경남의 직기, 동아일보 1962년 5월 9일 (오른쪽).

14. 김은숙. 견직공업의 발달과 입지특성,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5쪽

15. 동아일보. 어제授賞式(수상식)盛大(성대)히舉行(거행), 동아일보 11월 12일, 1954. 2쪽

16. 이은진 외 3인. 진주실크 제직기술 실태연구, 진주문화관광재단·삼광문화연구재단, 2021. 28쪽

17. 조선일보. 合同製糸(합동제사) 晋州工場操業(진주공장조업), 조선일보 8월 22일, 1959. 4쪽

18. 동아일보. 紙上博覽會(지상박람회) (12) 慶南館(경남관), 동아일보 5월 9일, 1962. 2쪽

3. 1970년 ~ 1980년대

진주실크의 호황기는 1970, 80년대였다. 1960년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1970년대에는 직물과 의류 등의 섬유제품은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했다.¹⁹ 1970년대 이전까지 진주실크 생산업체를 비롯한 섬유공장은 진주 시내에 가내공업 형태로 산재해있었다.²⁰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들은 기존의 공장들끼리 합치거나 공정별로 분리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1977년에 ‘한국생사(韓國生糸)’는 26개의 진주 중소 견직물 업자들과 함께 ‘진주연사주식회사’를 설립했다.²¹ 1978년에는 산재해 있던 실크 업체들이 상평 지방공단으로 이전해 직물 단지를 조성하였고, 공장들의 설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²²

1982년에는 진주실크가 제24회 서울 올림픽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았다.²³ 1988년에는 진주실크의 잠재력에 비해 부족한 신기술의 개발지원과 기능공 양성을 위해 ‘한국견직연구원’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²⁴ 1980년대 후반에 진주는 국내 실크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실크 명산지가 되었다.²⁵

4. 1990년 ~ 2000년대

1980년대 후반부터 관세 환급 제도의 폐지,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 국내외 수요와 수출 감

19. 나수지. 1970년대 '수출효자' 섬유, 1997년엔 사양산업 '낙인'...2016년 사상 첫 무역적자, 한경경제 7월 16일, 20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683471\(2022.09.16.\)](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1683471(2022.09.16.))

20.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의 120년사,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2006. 914쪽

21. 매일경제. 韓國生糸(한국생사) 연내 緞攪糸(견연사)공장 건설, 매일경제 4월 13일, 1977. 4쪽

22.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의 120년사, 진주: 진주상공회의소, 2006. 921쪽

23.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진주비단, 경남진주지구직물공업협동조합, 1997. 30쪽

24.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120년사, 진주상공회의소, 2006. 490쪽

25. 경향신문. 韓國新圖(34) 晉州, 경향신문 9월 1일, 1987. 13쪽

소 등의 악순환으로 인해 진주실크의 정체기가 시작되었다.²⁶ 1990년대에는 진주실크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진주실크를 경남의 대표 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전시 판매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²⁷ 진주의 경남 직물공업협동조합과 직물업체 대표들은 실크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선정했다.²⁸ 국내 판매용 브랜드는 진주산 최고의 비단을 의미하는 ‘진주기라(Jinjukira)’로 하고, 수출용 브랜드는 실크시민을 의미하는 ‘실키안(Silkian)’으로 지었다.²⁹

2004년에는 진주실크가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³⁰ 진주는 2005년부터 진주실크밸리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실크생산업체, 한국실크연구원, 실크산업혁신센터 등을 유치하여 실크산업 생산체제를 구축했다.³¹

5. 201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의 공예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진주에서 자카드 수공문직기(hand-weaving Jacquard draw loom)를 제작했다. 한국은 전통수공문직기 유물이 현존하지 않아서 중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직기와 기술 등을 참고했다.

2011년에는 전통 문직물을 복제할 때 수직(手織)과 기계직(機械織)의 차이를 비교하

26. 매일경제. 慶南(경남) 晉州(진주) 견직물조합 견직물업체 倒産(도산)위기, 매일경제 12월 16일, 1988. 7쪽

27. 박종성. 9개지역 특화산업 육성, 경향신문 9월 2일, 1998. 13쪽

28. 지성호. 晉州실크 공동브랜드 `실키안' 선정, 연합뉴스 8월 13일, 19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190984?sid=102\(2022.09.1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190984?sid=102(2022.09.16.))

29. 이은진 외 3. 진주실크 제작기술 실태연구, 진주문화관광재단·삼광문화재단, 2021. 32쪽

30. 김은주 · 이종호. 진주 실크산업 집적지의 혁신 역량과 활성화 정책 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4), 2012. 393쪽

31. 이은진 외 3. 진주실크 제작기술 실태연구, 진주문화관광재단·삼광문화재단, 2021. 32쪽

여 직물 복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수공문직기로 문직물을 제작할 때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서, 자카드 수공문직기를 기계의 힘을 쓰는 형태로 개조해서 문직물을 복제했다.³²

2019년에는 진주시가 목공예, 전통춤, 전통가요, 실크산업 등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2021년에는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와 같은 시기에 진주실크박람회가 열렸고, 공예와 실크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다.³³ 2023년에는 진주실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진주실크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³⁴ 이처럼 진주는 진주실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과 지원, 기관을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

III. 진주의 문직물 제작 과정과 기술

1. 직물 분해·설계(Fabric analysis and designing)

1.1. 직물 분석

진주의 문직물은 <그림 3>처럼 직물 분해·설계, 문지 설치, 제작 준비, 제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전통 문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작하려는 하는 직물을 조사·분석하여 직물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섬유의 종류, 실의 꼬임과 방

32. 김정숙. 조선시대 문직물 복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발로 답판을 밟아 통사를 끌어올리는 개구운동은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하루에 약 90cm밖에 제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힘이 필요해서, 사람의 힘으로만 제작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빌려도 직물의 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유용식. 2021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마무리, 뉴스경남 11월 24일, 2021. [http://www.newsgn.com/317387\(2022.09.14.\)](http://www.newsgn.com/317387(2022.09.14.))

34. 강진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탄력', 경남신문 11월 11일, 202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7552\(2022.09.22.\)](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7552(2022.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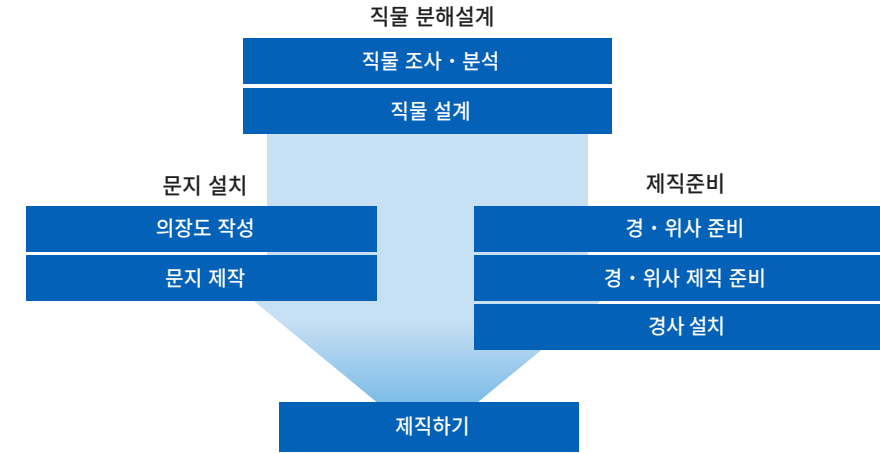


그림 3. 진주의 문직물 제작 과정

향, 실의 굵기, 밀도, 조직 및 제작법, 무늬의 형태 및 크기 등이다.

T직물 문화재는 유기물의 특성상 물리적, 화학적 원인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기술자는 실물의 유물을 직접 보기보다 유물 담당 연구원 및 기관에서 조사한 유물 자료를 통해 직물 정보를 얻는다. 제작기술자의 실견이 필요할 때는 유물 표면과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유리판 등을 올린 후 유물을 관찰하기도 한다.

유물의 실의 꼬임과 방향, 굵기, 밀도, 조직 및 제작법은 대개 현미경 사진을 보고 판단한다. 실의 꼬임이 있는 경우는 꼬인 방향이 좌연(Z연)인지 우연(S연)인지 판단한다. 실의 굵기는 현미경 사진을 보고 추정하여 굵기가 유사한 샘플을 만들고, 사진과 샘플을 비교하여 굵기가 유사한 것을 선정한다. 실의 밀도는 가로·세로 1인치(inch) 규격의 분해경으로 경·위사 울수를 세어 측정한다. 직물 조직은 사진을 통해 바탕 조직과 무늬 조직을 각각 파악하여 제작법을 분석한다.

무늬의 형태와 크기는 <그림 4>처럼 자 2개를 수직으로 놓고 촬영한 뒤, 사진을 통해 무늬 크기를 측정한다. 전통 문직물은 현대 직물과 달리 직물에 들어가는 모든 무늬의 크기와 무늬 사이 간격을 하나하나 측정해야 한다. 전통 문직물은 주로 수직기(手織機)로 제작하



그림 4. 영친왕비 구등적의(九等翟衣) 평무늬 실측 사진 (연구자 촬영, 2021).

다보니 제작하는 사람의 힘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각각의 무늬 크기와 사이 간격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2. 직물 설계

직물 설계는 직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을 계획하고, 직기를 셋팅하는 작업이다. 제작의 계획은 직물의 정보와 생산량, 직기의 셋팅값 등을 설계표에 작성하는 것이다. 직물의 생산량은 목표 생산량과 필요한 실의 소요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직기의 셋팅값은 직물의 폭, 총 경사 수 등이 있다.

제작의 계획을 통해 설계표가 완성되면 자카드 수공문직기를 셋팅한다. 자카드 수공문직기의 셋팅은 직기 상단의 자카드 장치에 통사(harness)를 걸고 목판(comber board)에 통과시킨 다음, 종광(heald)을 목판을 통과한 통사에 매는 것이다. 진주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공사'라고 부른다. 공사는 경사 한올 한올의 조작을 위해 일일이 설비하는 매우 섬세한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직물 설계는 의장사가 담당한다. 의장사는 직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직물을 설계한다. 직기의 여건이 직물 설계에 맞지 않으면, 의장사는 모든 제작 공정을 책임지는 총괄기술자와

의논하여 직물의 설계를 직기의 여건에 맞추어 수정한다. 반대로 직물 설계에 따라 직기의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총괄기술자는 직물 분해설계 과정을 의장사와 함께 진행한다.

이처럼 의장사는 문직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자이다. 특히 전통 문직물은 현대의 직물과 달리 조직이 치밀하고, 중조직이 많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 직물 작업만 해본 의장사는 전통 문직물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2. 문지(紋紙) 설치

2.1. Drafting Plan in Weaving

(1) 의장도(意匠圖) 작성

직물 분해·설계가 끝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장도를 만든다. 의장도는 의장지(意匠紙, design paper)에 경사와 위사의 엮임을 표시한 조직점으로, 즉 무늬를 표시한 것이다. 진주에서는 의장지를 '딱종이'라고도 부른다. 딱종이는 모눈종이처럼 직사각형이 그려진 종이다.

의장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딱종이에 <그림 5>처럼 손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진주에서는 1990년대까지 종이에 손으로 그렸으나, 1990



그림 5. 딱종이에 문양을 그린 의장 디자인 (연구자 촬영,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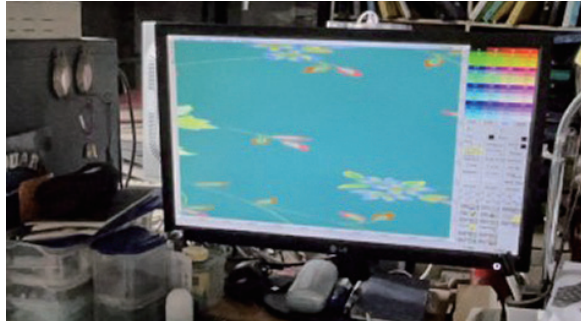


그림 6.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장 디자인
(연구자 촬영, 2021).

년대 후반에 의장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그림 6>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현재 유물을 복제 할 때에도 의장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2) 문지 제작

문지는 의장도의 설계에 맞춰 구멍을 뚫은 종이로, 자카드 수공문직기에 사용된다. 문지의 구멍은 경사의 상하운동을 조절한다. 의장도에 맞춰 문지용 마분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은 '천공(穿孔)'이라고 한다. 천공은 <그림 7>처럼 천공기로 구멍을 뚫는다.

천공을 거친 문지들은 순서대로 있는데 이를 '편철(編綴)'이라고 하며, <그림 8>처럼 편철기를 사용한다. 편철한 문지들은 <그림 9>처럼 완성된다. 문지의 매수는 일완전무니(repeat)에 들어가는 위사 올 수와 동일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사용했던 직기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직기여서 문지를 사용해 경사의 상하운동을 조절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지털화된 직기가 사용되면서 경사의 상하운동은 문지 대신 디스켓, USB와 같은 디지털 저장도구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자카드 수공문직기로 직물을 제작할 때는 디지털 저장도구가 아닌 문지가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비가 대부분 디지털화되면서 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의장사와 장비는 점차 사라졌고, 현재 진주에서 문지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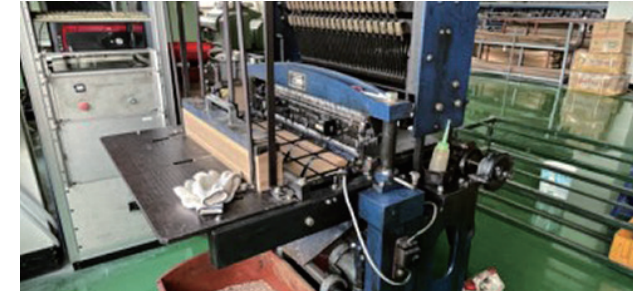


그림 7. 천공기 (연구자 촬영, 2021).



그림 8. 편철기 (연구자 촬영, 2021).



그림 9. 편철한 문지 (연구자 촬영, 2021).

남아 있다.

3. 제작 준비

(1) 경·위사 준비

직물 분해·설계가 끝나면 의장사는 의장을 준비하고 준비공들은 제직을 준비한다. 경·위사 준비는 분석한 자료에 알맞은 상태의 경사와 위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먼저 실의 원료를 준비하기 위해 원사를 입고한다. 원사는 뽀뽀하고 불순물이 묻은 실이 타래 형태로 입고된다. 이 원사를 유연제 용액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이 공정을 '하지'라고 부른다. 하지를 거친 실은 표면이 매끈해지고 유연성이 증대되어 절사(絶絲) 현상이 잘 일

어나지 않는다.

하지를 거친 실은 타래 형태이나 다음 공정에서는 타래 형태의 실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실타래를 보빈(bobbin)에 감아준다. 이처럼 실타래를 보빈에 감는 공정을 ‘해사(解絲)’라고 한다.

그 이후 직물 분석 자료에 따라 보빈에 감긴 실에 꼬임을 가한다. 이 공정을 ‘연사(撚絲)’라고 한다. 꼬임이 가해진 실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꼬임을 고정시키기 위해 실은 ‘셋팅(setting)’ 과정을 거친다. 셋팅은 꼬임을 준 실을 셋팅기에 넣어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실의 꼬임을 고정하는 작업이다.

셋팅이 끝난 실은 정련이나 사염(絲染)을 위해 다시 실타래 상태로 만든다. 이 과정을 ‘작태(緯態)’라고 한다. 정련 및 사염 공정까지 거친 실타래는 다시 해사 과정을 거쳐 보빈에 감는다.

이처럼 경·위사 준비는 여러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990년대 전후에는 해사공, 작태공 등 각각의 실 준비 공정을 전담하는 기술자가 있었으나, 현재는 1~2명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실 준비 공정을 담당한다.

진주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원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물을 복원할 때도 원사를 수입한다. 2008년 법보종찰 해인사와 합천군청이 진행한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국내산 원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물의 섬도에 맞게 제사할 수가 없어 중국에서 반수동식 방법으로 제사한 실을 사용했다.³⁵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산 원사를 주로 사용한다.

경·위사 준비 공정에서 장비는 직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기계화된 장비를 사용한다. 이는 이 공정에서 장비의 종류가 직물의 외관과 태(fabric hand)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직물과 현대직물 관계없이 경·위사 준비 공정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35. 법보종찰 해인사·합천군.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 합천군, 2008. 69쪽



그림 10. 수동위권기 (연구자 촬영, 2021).

(2) 경·위사 제직 준비

경·위사 제직 준비 과정은 경·위사 준비 과정을 거친 실을 직기에 장착하여 제직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위권(緯捲)’과 ‘정경(整經)’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위권(緯捲)

위권은 위사용 실을 목관에 감는 공정이다. 진주에서는 목관을 꾸리라고 부른다. 꾸리는 <그림 10>처럼 수동위권기로 실을 감고, 위사용 실이 감긴 꾸리는 북에 끼워서 사용한다.

1990년대까지 진주실크 업계에는 꾸리를 감는 ‘꾸리공’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었다. 그 당시는 꾸리공이 처음 입사하면 맡는 직무였으나, 현재 진주실크 업계에는 신진 기술자들이 없어 경·위사 준비 공정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꾸리공의 역할을 맡는다.

2) 정경(整經)

정경은 경사용 실을 경사빔에 감는 공정이다. 진주에서는 ‘꼭지정경’이라는 방법의 정경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부분정경’ 또는 ‘모습정경’으로 부른다. 꼭지정경은 색사(色絲)를 배치하여 경사 방향으로 다른 색을 표현할 수 있고,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여³⁶ 유물 복원 작업

36. 교육부. NCS학습모듈 정경, 교육부, 2018.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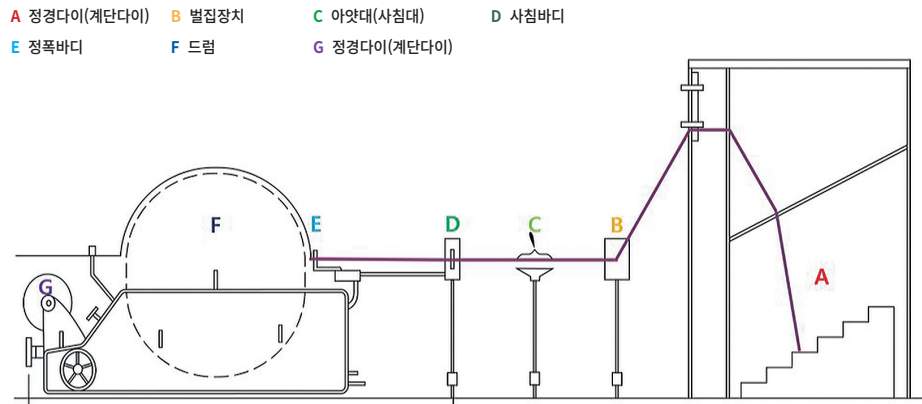


그림 11. 진주에서 사용하는 꼭지정경 장치 전체 모습

에서도 사용된다. 꼭지정경은 <그림 11>의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공정에 따라 정경기에 실을 끼우는 ‘준비’, 정경기에 끼운 실을 드럼에 감는 ‘정경’, 드럼에 감긴 실을 경사빔에 옮겨 감는 ‘비밍’으로 구분된다.

① 준비(Primary process)

준비는 경사용 실을 꼭지정경 장치에 끼우는 것이다. 먼저, 경사용 실이 감긴 보빈을 <그림 11>처럼 정경다이(A)에 놓는다. 정경다이는 경사실을 배치하는 지지대의 총칭으로, 진주에서는 <그림 12>처럼 층계가 있는 계단다이를 주로 사용한다. 계단다이는 설비가 간편하고, 실에 가해지는 장력이 작아 얇은 실을 작업하기 적합하다. 계단다이는 전통직물을 제작할 때도 주로 사용된다.

정경사는 정경다이에 배치한 실을 <그림 13>처럼 일일이 벌집장치(B), 아얏대(C), 사침바디(D), 정폭바디(E)에 차례대로 끼운다. 이때 업체의 기기 설비에 따라 벌집장치와 아얏대 사이에 보조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많은 실을 여러 개의 장치에 끼우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와꾸다시’라는 작업을 한다. 와꾸다시는 진주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경장치에 이미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실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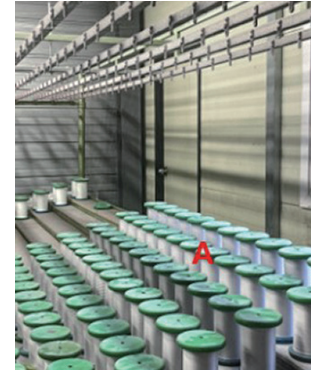


그림 12. 계단다이(A)
(연구자 촬영,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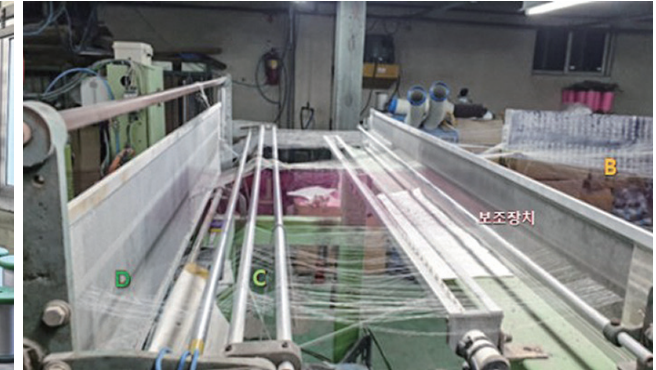


그림 13. 벌집장치(B)와 보조장치, 아얏대(C), 사침바디(D)
(연구자 촬영, 2021).

운 실을 연이어 연결해서 새로운 실로 바꾸는 작업이다.

앞선 과정을 거친 경사용 실은 정폭바디(E)에서 한 묶음으로 모인다. 이 한 묶음을 ‘꼭지’라고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숨’이라고 부른다. 꼭지 한 개의 실 올 수는 정경다이에 배치된 보빈의 개수와 같다.

위권은 북(shuttle)을 사용하는 북직기(shuttle loom)를 제작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공정이다. ‘북’은 직기에서 경사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사를 푸는 기구이다. 현재 진주실크 업체 대부분은 북직기보다 레피어직기(rapier loom)를 더 많이 사용해서 위권 과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량작업이 가능한 자동위권기를 사용하지만, 전통 직물 복원, 복제 시에는 수동위권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② 정경(warping)

정경은 준비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꼭지를 드럼(F)에 정해진 실의 올 수와 길이만큼 감는 것이다. 먼저, 정폭바디(E)에 끼워진 실을 한 손에 쥐 뒤, 사침바디(D)로 사침을 나눈다. 그리고 사침을 나눈 실을 매듭지어 꼭지를 만든 뒤 드럼의 튀어나온 부분에 건다. 그 후, <그림 14>처럼 손으로 실의 장력을 감지하면서 드럼을 회전시켜 정해진 길이만큼 감는다. 정해진 길이

만큼 감으면 경사실을 자르고 매듭지어 드럼에 고정한다. 필요한 총 경사 올 수와 폭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정경사가 정경할 때 손으로 실을 만지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경사실의 장력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이다. 장력의 변화는 원단 불량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므로 정경사는 매우 민감하게 장력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둘째, 작업 중 발생하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정경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는 실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도록 만든다. 따라서 정경사는 <그림 15>처럼 정폭바디(E)로 모이는 실을 손으로 실을 만져 정전기를 없앤다. 정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 가슴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경은 정경사의 감각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그리고 정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단 표면에 세로줄의 흠이 생길 수 있어, 숙련된 기술자가 주로 담당한다.

진주에서는 주로 부분정경을 사용하는데 이를 ‘꼭지정경’이라 부르며 대구 등에서는 ‘모슴’정경이라고 부른다. 직접정경은 진주의 일부 업체만 사용하고 있다. 직접정경은 ‘논 드럼 정경’이라고도 한다. 수많은 와꾸의 실을 빔에 직접 감는 것으로, 규모가 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꼭지는 일정한 양의 경사 한 묶음을 지칭하며, 꼭지 한 개의 실을 수는 정경다이에 놓인 와꾸 또는 콘의 개수와 같다. 꼭지 정경은 먼저 일정한 양의 경사



그림 14. 실의 장력을 확인 후 감는 모습 (연구자 촬영, 2021) (왼쪽).



그림 15. 손을 이용한 정전기 방지 (연구자 촬영, 2021)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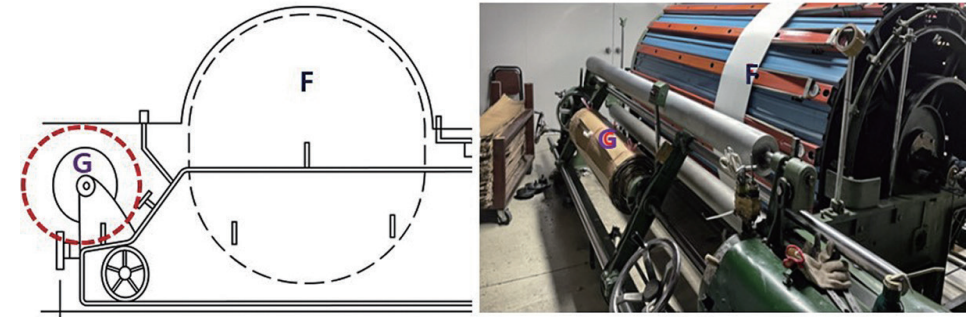


그림 16. 비밍과정의 드럼(F)과 경사빔(G) (연구자 촬영, 2021).

수를 한 단위로 하여 원통형의 드럼에 차례대로 한 단위씩 감는다. 그리고 필요한 경사 수를 드럼에 모두 감은 뒤에는 경사빔에 다시 옮겨 되감는 것이다.

③ 비밍(Beaming)

비밍은 <그림 16>처럼 드럼(F)에 감긴 실을 경사빔(G)에 다시 감는 것이다. 먼저, 정경기에 경사빔을 장착하고, 앞선 과정에서 드럼에 고정해놓은 꼭지의 매듭을 풀어 경사빔에 고정한다. 경사빔에는 ‘가심포’라는 갈래갈래로 갈라진 천이 부착되어 있다. 가심포의 각 갈래마다 꼭지를 묶어 경사실을 경사빔에 고정한다. 꼭지를 경사빔에 고정시킨 후, 정경기를 가동하여 드럼에 감긴 실을 경사빔으로 옮겨 감는다. 경사빔을 옮겨 감을 때 경사빔과 경사 사이에 마분지를 끼워 넣는다. 마분지는 경사가 일정한 간격과 장력으로 감기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사 설치

경사 설치의 정경을 거쳐 경사가 감긴 경사빔을 직기에 설치하는 것이다. 직기에 경사를 새롭게 끼워야 하면 ‘통경(通經)’을 하고, 직기에 실이 이미 끼워진 상태에서 경사를 설치하는 경우는 ‘연경(蓮經)’을 한다. 두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기계로 대체할 수 없다.



Figure 17. Hand tying-in (연구자 촬영 2021).

1) 통경(通經, Drawing-in)

통경은 경사빔(warper beam)에 감겨 있는 경사실을 직기의 종광(heald), 바디(reed)에 일일이 통과시키는 작업이다. 진주에서는 통경을 ‘경통(經通)’이라고 부른다. 이 작업 또한 경사실을 순서에 맞게 일일이 작업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진주에서는 경통을 ‘직물 설계’ 과정에서 언급한 공사 작업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통 작업은 외주로 맡기고 있다.

2) 연경(蓮經, Tying)

연경은 제직이 끝난 직기에 걸려 있는 경사의 끝부분과 새롭게 제직할 경사의 시작점을 매듭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연경은 경통처럼 종광과 바디에 실을 일일이 끼우지 않고 경사를 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진주에서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매듭지어 연결하는 손연경을 주로 한다.³⁷ 매듭의 크기는 바디를 통과할 때 걸림이 없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 손연경은 주로 2명의 연경자가 한조를 이루어 작업한다. 연경은 직기에 걸려 있는 경사의 순서와 새롭게 직기에 걸 경사의 순서가 일치해야 한다. 손연경을 할 때는 <그림 17>처럼 연결된 양쪽 실을 한 올씩 잡아당겨 손가락으로 비벼서 자연스럽게 잇는다.

37. 실크사(絹絲, silk yarn)로 한복원단을 제직할 때는 주로 손연경을 한다. 진주는 한복 원단 제직 업체가 많기 때문에 손연경을 주로 한다.

이처럼 손연경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경자의 고도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1990년대 연경자 중 일부는 연경뿐만 아니라 ‘경통’, ‘쓰리꼬미’³⁸ 등의 공사 작업에도 참여했었다.

4. 제직

제직은 앞선 과정들을 통해 직기에 설치된 경사를 위아래로 움직여 복길을 만들고, 복길에 위사를 통과시킨 후 바디로 위사를 치는 것이다. 제직을 반복하면 원단이 만들어진다.

제직 중에는 경사가 끊어지거나 원단에 흠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직 중 경사가 끊어지면, ‘직수’는³⁹ <그림 18>처럼 끊어진 경사를 ‘이음실’과 묶고, 연결한 이음실은 통사끈에 묶어서 직기 쪽에 임시로 고정한다. 그 후 끊어진 경사와 이음실을 매듭지은 부분까지 직조하여 끊어진 경사를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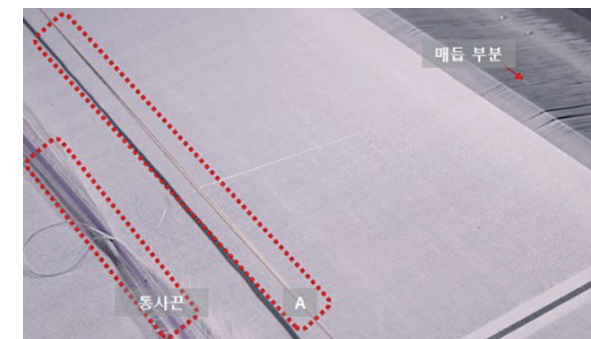


그림 18. 이음실을 통사끈에 묶은 모습 (연구자 촬영, 2021).

38. 쓰리꼬미는 종광과 통사를 연결하는 작업이다. 통사는 무늬경사가 끼워진 종광을 조작할 수 있도록 직기의 상부와 종광을 연결한 실이다.

39. 직을 하는 기술자는 직수라 부른다.

제직 중 원단에 흠이 생기면 직수는 흠을 없애는 ‘뜨개질’ 작업을 한다. 뜨개질은 먼저 흠이 발생한 분량만큼 <그림 19>처럼 흠대로 위사를 모두 풀어낸다. 그리고 흠이 생기기 전과 풀어서 다시 제직하는 부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그림 20>처럼 ‘흠대’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흠대는 제직 중 위사를 풀기 위한 것으로, 직수가 직접 나무나 플라스틱을 다듬어 만든다. 흠이 생긴 만큼 위사를 한 올씩 풀어야 하므로 끝은 뾰족하게 한다.

정경작업을 하는 ‘정경사’가 작업 중 경사실을 만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사실의 장력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장력의 변화는 원단 불량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데, 기계는 실의 장력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경사의 기술과 경험에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작업 중 발생하는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정경 시 발생하는 정전기는 실의 간격이 벌어지거나 좁아지게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실을 만지거나 물기있는 천이 실에 닿도록 한다. 공장의 시설에 따라 기술자가 직접 정전기를 방지 하지 않고, 가습 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다.

연경은 제직이 끝난 직기에 걸쳐 있는 경사의 끝 부분과 새로 제직할 경사의 시작점을 연결하는 작업이다. 실이 끼워져 있는 경사에 새로운 경사를 연결함으로써 경통작업을 생략



그림 19. 흠대로 위사를 빼내고 있는 모습 (연구자 촬영, 2021).



그림 20. 다양한 재료로 만든 흠대 (연구자 촬영, 2021).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연경은 실을 잇는 주체에 따라 손연경과 기계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연경은 실을 잇는 주체에 따라 손연경과 기계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연경은 손으로 경사를 잇는 방법으로 연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매듭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한다. 손연경은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올씩 섬세하게 매듭을 짓기 때문에 굵기가 가는 실을 연경할 때 필요하다. 따라서 가는 실을 사용하는 한복용 직물을 제직하는 진주에서는 손연경을 많이 한다.

기계연경은 기계를 사용하여 경사를 잇는 방법이지만 기계는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만 하며, 매듭 짓는 작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는 수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계연경은 주로 굵은 실이 사용되는 넥타이용 직물에 많이 활용된다. 손연경은 제직이 끝난 직기의 경사와 새롭게 제직할 경사를 잇기 위한 준비작업과 두 경사를 서로 잇는 연경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제직이 끝난 직기에 걸쳐있던 경사의 끝부분이고, B는 새롭게 제직할 경사의 시작점이다.

아얏대를 끼운 다음 경사의 엉키거나 끊어진 부분을 정리해준다. 엉킨부분은 손으로 빗어 풀어주고, 끊어진 부분은 매듭으로 이어준다. 경사가 끊어진 부분을 십자매듭을 이용해 매듭짓는데, 십자매듭은 매듭의 부피가 작아 바디살, 종광 등을 지나가야 하는 경사를 이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제직이 끝난 직기에 걸쳐 있던 경사의 끝부분(A)과 새롭게 제직할 경사(B)를 정리한 후 일정하게 나누어 올이 흩어지지 않게 각각 매듭으로 뭉친다.

양쪽 경사를 팽팽하게 당겼을 때 양쪽의 매듭 위치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좌우 매듭이 팽팽하게 당겨서 서로 묶어서 잇는다. 좌우매듭을 연결할 때 섬유유연제를 뿌리면 단단한 매듭이 만들어진다. 양쪽을 이은 매듭 부분에 끈을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겨 작업자의 허리에 둘러 묶는다. 준비과정이 끝나면 치약가루를 고무 골무에 바르고 이때 치약가루는 골무를 낀 손가락을 비빌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준다.

연결된 좌우실은 한올씩 잡아당긴 뒤 손가락으로 비벼서 자연스럽게 잇는다. 좌우 실을 잡아 당기면 이어진 매듭 부분이 끊어지고, 그 부분을 비벼서 끊어진 실끼리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준비과정에서 설치한 아얏대를 제거하면 제직을 하기 위한 새로운 경사가 설치된다. 의장도는 딱종이에 조직점, 즉 경사와 위사의 엮임을 표시하여 무늬를 표시한 것이다. 진주에서는 의장지를 딱종이라고 부른다. 딱종이는 조직점 외에도 밀도 비율을 나타낸다. 딱종이는 경위사의 밀도 비율에 따라 다양한 규격이 있다. 경위사의 밀도가 같을 때 모눈 한 개는 정사각형이 된다. 비율이 여러 가지일때 일정한 단위 거리에서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모눈은 각각 다른 직사각형이 된다. 이전에는 의장지에 직접 그림을 그렸으나 1990년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의장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장도를 그린다. 의장 컴퓨터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천공은 의장도에 그려진 도안에 맞춰 천공기로 문지용 마분지에 구멍을 뚫어 문지를 만드는 것이다. 문지는 자카드 직기에서 문양의 설계에 따라 경사의 운동을 조절하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다.

IV. 결론

경상남도 진주는 국내의 대표적인 실크 명산지이다. 1980년대 진주실크는 국내 실크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현재도 진주는 실크박람회, 실크패션쇼, 기술개발 지원 등 실크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진주실크는 진주를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진주실크는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

진주는 1910년대부터 활발한 양잠업으로 실크 원료 수급에 유리했다. 또한 당시 진주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수직기로 직물을 제직했다. 해방 이후에는 진주실크 업체들이 근대식 설비들을 갖추고 품질이 뛰어난 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는 진주실크의 호

황기로, 진주실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들이 결집하고 공정에 따른 분업화 등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신기술 개발과 부족한 기능공 양성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국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으나, 진주실크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진주기라’, ‘실키안’ 등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진주에 진주실크 밸리를 조성하고, 한국실크연구원, 실크산업혁신센터 등을 유치하여 실크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진주의 문직물 제직 과정은 직물 분해·설계, 문지 설치, 제직 준비, 제직으로 나뉜다. 직물의 분해·설계는 제직하려는 직물을 조사한 뒤, 분석 결과에 맞춰 제직을 계획하고 직기를 셋팅하는 것이다. 유물을 복원·복제할 때는 설계 과정에서 진주의 기술자 없이는 설계가 불가능하다.

직물의 분해와 설계가 끝나면 문지 설치와 제직 준비가 이루어진다. 의장사는 의장도를 만들고, 문지를 제작해서 문지를 설치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직접 손으로 의장도를 그렸는데,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의장도를 만든다. 의장사의 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진주에는 자카드 수공문직기에 사용하는 문지를 설계대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만 남아있다.

제직 준비에서는 하지, 해사, 연사, 정련, 염색, 작태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필요한 경사와 위사를 준비한다. 준비된 경·위사는 위권과 정경 과정을 통해 직기에 장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그 다음으로 경사용 실을 정경기에 감은 뒤, 그 실을 드럼에 감는다. 드럼에 감긴 실은 다시 경사빔으로 옮겨 감는다. 이와 같이 정경한 다음 경사실을 직기에 연결한다. 일련의 준비 과정이 끝나면 직수가 바디를 쳐서 직물을 직조한다.

진주실크 기술자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직물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의 숙련도, 감각 등을 쌓았고, 그것들이 진주에서 전통 문직물 제직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진주에 남아있는 기술자들과 그들의 경험, 기술이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직 기술과 기술자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했다. 특히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은 체계적인 전승보다는 구전과 개개인이 몸소 배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직 기술의 기록화와 신진

기술자 양성이 되지 않는다면 진주의 문직물 제직 기술은 절멸될 위험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관습, 지식 및 기술 등이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 오는 전통이자 살아있는 문화이다.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화, 관심 부족 등으로 여전히 많은 무형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기계화, 산업화, 대량화 등으로 직물 공예 전통 기술은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진주실크도 우리의 전통 섬유 공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직 기술을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본 연구가 진주실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창의도시 진주로서의 로컬리티 강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논문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김희선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주세페 비아지니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실비아 야만

진주의 문직물 제작 기술 실태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서론

종이와 제조업의 도시이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기계 산업지역 중 하나인 파브리아노는 2013년부터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UCCN)의 회원국이 되었다. 몇 년 전, 이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도시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생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파브리아노는 토리노, 제노바, 그리고 몇몇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함께 산업 경제에서 다른 형태, 다른 조직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 변화 이후, 그 도시는 그 새로운 발전 패턴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의성과 문화에 집중하였다.

1. 창조도시 국가 조정그룹

2016년 스웨덴의 오스테르선드에서 연례회의가 열리기 직전 파브리아노에서 5개 도시의 시장들에 의해 서명됐던 의정서에 의거, 알바, 베르가모, 비엘라, 볼로냐, 카라라, 코모, 파브리아노, 밀라노, 모데나, 팔마, 페사로, 로마 그리고 터린 등 13개 이탈리아의 창의도시들은 국가 조정 그룹을 설립하였다. 초기 단계에는 볼로냐가 조정 그룹을 이끌 계획이었다.

파브리아노는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과 함께 “창의적인 이태리: La Citta Ideale - 이상적인 도시”라는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2019년 UCCN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 그룹이 추구하고자 하는 창의도시의 비전은 UCCN 미션 언명에 기술되어 있으며, 창의성 그 자체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전략적인 역할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문화와 혁신은 경제, 사회, 영토 발전의 핵심 도구로 간주된다. 국가 조정 그룹이 설정한 목표들은 UCCN내에서의 이탈리아UCCN 도시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이탈리아 정부, 유네스코 이탈리아 국가위원회, 이탈리아의 유네스코 상임 대표단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UCCN 내 여러 클러스터에서 생기는 기회들과 계획들을 공유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조정 그룹은 회원 도시들 간의 협력 계획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른 주제의 네트워크들을 통해 우리의 유산과 창의성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창의도시들과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이트 들에서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조정 그룹은 이탈리아 정부의 해비테트 III 를 위한 프로젝트들과 연결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 연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의제 2030 을 지원한다

2. 연구

ISTAO (아드리아노 올리베티 연구소), INU (이탈리아 국립 도시 계획 연구소), Fondazione Aristide Merioni, 많은 대학들, 폴리테크닉 스쿨 UNIPA, 국제 건축 전시회는 모두 파브리아노와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에 의해 시작된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지난 두 에디션, 건축 2021 과 예술 2022에서의 이탈리아안 스탠드(Italian Stand)는 “공유된 예술작품으로서 도시의 관념”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서비스를 위한 예술과 건축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건축가들은 사회적 포

용, 참여, 보건, 통합, 합법성의 원칙에 부응하는 건축물을 만들자는 미션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외의 개념은 다른 가치를 가정한다. 그것은 도시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 산다는 관념이 가지는 문화적 유연성과 관련된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선진 세계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곳은 미래에 그곳에서 거주하게 될 새로운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새로운 지역은 대규모 이주 움직임의 결과이며, 기존 도시 중심지와 깊이 연계되어 있다. 이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언어,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점증적 도시주의"는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기원이 되는 도시들을 통합했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위한 설계"라는 이상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국제 건축 전시회와 중국 선천에서 열린 바이시티 비엔날레 (2015 UABB) 에서 보았던 것처럼 글로벌한 수준에서 긴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이다.

3. 주제

우리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적 및 목표' 중 2개의 목표를 선정하였으며,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의 기여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1) 목표 8: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 일자리의 촉진

이탈리아 내 영토와 도시들의 새롭고 중요한 경제 발전 노선은 전통 제조업 분야와 문화 및 창의적 기업체들간 협력의 결과이다. 이탈리아의 산업화는 잘 알려져 있듯이 주로 제조업 기

업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마르케(Marche) 지역은 이탈리아 최초이자,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러한 유형의 기업 밀도가 높아진 지역 중 하나였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진화는 지역 생산 업계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조업의 대표적인 구조적 약점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 업계는 본질적으로 “성숙한” 섹터들에서 작동하는, 연구 개발 등에 그다지 투자하지 않는 소규모의, 또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생산 사슬에서 다른 업체들과 사업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나마 맺고 있는 몇 안되는 사업 관계는 엄격한 하청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거친 기업들이다. 이 전환은 제품, 프로세스 및 조직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개발 경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이 기업들은 또한 품질, 혁신 및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ICT가 제안하는 큰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 지식을 홍보하고 환경과 생산 현장을 보호한다. 발전된 기술과 개발자들 덕분에, 일자리들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마을들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산업과 창의성의 관계, 제조업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창의적 동력을 향한 혁신과 문화의 발전은 어떤 기업의 지원과 후원에 의해서만 고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무형의 문화 유산과 지역의 정체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서도 고무된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한 기업들은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들의 디자인 콘텐츠에, 강력하고 인식가능한 브랜드 이름에, 그리고 가치, 라이프스타일, 역사 및 전통을 제품들과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해 왔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업들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모든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Made in Italy” 브랜드화에 이와 같은 모든 경쟁 요소들을 재적용 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가적 부분의 성공, 즉 경제적 부분의 성공이 공동체의 사회적 진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이 주제는 유네스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주요 원칙들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

2) 목표 11: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는 탈 산업화 도시에서 창의도시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특징짓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브리아노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사례이며, 또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에 대비하여 혁신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것은 또 "IncrediBOL"을 진행한 창의도시 볼로냐의 사례이기도 하다. "IncrediBOL"은 2010년에 시작된 지역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지역의 창의 및 문화 계획을 위해 자원과 장소를 무료로 제공받는 공공 및 민간 협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와 지역 창의산업들의 개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창의산업들을 개발 및 도시 재생과 지역 홍보를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목표 또한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볼로냐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민들의 계획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도시 공공재의 보호와 재생을 위한 도시와 시민의 협력에 관한 지침"을 따르는 협력도시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시민들과 행정당국은 아이디어와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과 집단의 복지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도시의, 무형 또는 유형의, 그리고 디지털 형태의 공공재들의 재생을 위한 실천을 함께 모색한다. 현재까지 220건의 이런 형태의 실천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창의도시들 내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대응적인 계획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데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많은 창의 도시들은 이미 순수하게 지식 노동자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던 1단계에서, 마을이 창의성, 경제발전,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협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단

제로의 큰 도약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창의경제가 도시의 중요한 요소들, 정체성과 인적 자본, 그리고 새로운 제조 및 훈련 시설들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재생에 있어 큰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fab시티”와 “창의도시 3.0” 같은 정의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이 도시들은 3 Cs(Culture문화, Communication소통, Cooperation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의 시나리오와 과도기 도시 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와 새롭고 창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가 새로운 도시 정책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와 교통 수단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공공 장소의 사용 방식을 바꾸고,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심지가 아닌, 다시 한번 제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들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의사결정권자들과 활동적인 시민들 사이의, 디지털과 물리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동맹을 장려하는 도시들이 되고자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대담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주세페 비아기니
(Giuseppe BIAGINI, 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정병훈
(Byung Hoon JEONG, 진주, 포컬 포인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로니 로피스
(Ronny LOPPIES, 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위티야 피통나푸
(Witiya PITTUNGNAPOO, 수코타이 UCCN 포컬포인트, 나레수안대학 교수)

비토리오 살모니
(Vittorio SALMONI,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대담자]



주세페 비아기니
(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정병훈
(진주, 포컬 포인트,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로니 로피스
(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위티야 피통나푸
(수코타이, 포컬 포인트, 나레수안대학 교수)



비토리오 살모니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서 문

유네스코(UNESCO)가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은 2004년이다.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세계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선진국의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경제, 사회, 문화를 획일화하려는 시도였다. 세계화는 문화영역마저도 획일화하고자 하였다. 문화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기본 입장이었다. 다양한 문화들이 접촉하여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며, 교류하는 가운데서만 새로운 문화 창조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의 창의성은 곧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유네스코는 각 도시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라는 단위에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아가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간의 인정과 협력을 토대로 하는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년마다 한 번씩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문학, 영화, 미식 등 7개 분야에서 새로운 회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총 93개국, 295개 도시(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42개국 59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유엔의 2030 의제를 발표하였다. 이 때부터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요구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는 전 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일,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는 일에서 창의도시들 간에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분야를 넘어서는 도시들 간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대한 문화의 기여와 도시의 미래 발전에서의 문화산업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다양성, 연대, 그리고 다국간주의(multilateralism)라는 유네스코의 근본적 가치를 지지한다.

I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근본 가치와 미션에 동의하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도시들은 사회, 경제, 환경과 더불어 문화를 도시 발전의 네 가지 기둥으로 삼고자 한다. 또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된 이후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다른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좋은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다. 회원 도시들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도시의 신인도를 높여주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도시들은 가입 신청 당시 유네스코에 제안한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와 지역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행해 감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창의도시 사업은 여러 가지 난점들에 직면해 있다. 우선 도시의 의사결정 담당자들을 움직여서 문화와 창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창의도시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도 시장이나 거버넌스의 일부가 교체되거나 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재원을 적절히 마련하기 어려워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불평등 해소 등 유네스코의 미션을 실행하는 일이 생각같이 간단치 않다. 문화와 창의성이 주도하는 문화정책이나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의 시민들과 특히 후속 세대들을 창의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시키는 일도 녹록하지 않다. 다른 창의분야의 도시들과 교류하는 일, 교차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일도 많은 경험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난점들을 극복해 가면서, 도시의 당면한 문제들을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며, 창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호에서는 창의도시 활동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 도시의 연락 담당자들을 패널로 모셔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A. 총괄 문항

1. 창의도시 추진에서 각 도시는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 미흡, 예산 확보의 어려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미흡, 시민들의 참여 부족, 문화산업 육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귀 도시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난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위티아 피통나푸: 수코타이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회원이 된 후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정치 선거에 따른 행정직의 변화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UCCN 사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할당뿐만 아니라 국제 참여와 네트워킹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 담당자가 상호 이해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방정부의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코타이의 경우 태국 북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인 나레수안 대학(Naresuan University)의 주도하에 공동 연락 담당자들(co-focal points)을 새로 두고 있으며, 이는 수코타이 UCCN의 이니셔티브이자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코타이 UCCN은 연락 담당자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코타이의 공동 연락 담당자는 나레수안 대학의 사명(교육, 연구, 공공 및 지역사회 참여, 문화 기반 활동 촉진)을 통합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UCCN의 사명을 이행하며, 자금 조달 기회를 활용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니 로피즈: 음악 창의도시인 암본(Ambon)에서 창의도시를 개발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산 제도입니다. 작은 도시인 암본은 제한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도시는 수입이 매우 적어서, 암본음악사무소(Ambon Music Office, AMO)이 관리하는 25개의 전략적 단계에 있는 기존의 모든 UCCN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

니다. 기존의 예산 자원은 이미 우선순위의 긴 목록에 올라와 있는 49개의 정부 사업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더불어 암본 시는 이러한 경쟁 예산을 수시로 줄이고 재할당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공약이 문화적 창의성을 미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약속을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실행할 경우 예산 활용을 포함한 기존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MO가 개발한 전략은 “Sound”(음악)과 “Green”(환경)[이하 Sound of Green(SoG)이라 함]에 중점을 두면서, 서로 협력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SoG는 음악 관광과 숲 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하며, SDG 11을 위한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상승 효과는 예산기관(집계자)의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oG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과 조정 활동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헥사 헬릭스 행위자들”(hexa-helix actors) (학계, 기업, 지역사회, 정부, 미디어 및 집계자)이라고 합니다.

주세페 비아지니: 1) 단기 비전 대 장기 비전: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UNESCO Creative Cities, UCC)와의 협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와 창의 공동체 간의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는 지역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창의적인 사람, 시민이 목표를 설명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관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 기반 사업에 전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과 시민들은 시범 사업의 효과와 잠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단기적인 결과를 보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초기의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대화는 종종 매우 어렵습니다.

2) 상향식 접근방식: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포용

적이고 개방적인 상향식 접근방식을 가진 사업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잘 고안된 사업까지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안자와 사업 수혜자들이 결과를 얻는 속도가 종종 서로 달라서, 사업 관리자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대신에 이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을 끌어들이며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병훈: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 창의도시가 되어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우리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도시 옆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이는 광고탑을 세워 두고,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주요 공공시설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적 수준에서나 국제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도 늘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가 창의도시인 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평가회를 해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지적되곤 합니다. 물론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고, 많은 행사가 중단되거나,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 좀더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각종 SNS를 이용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면 별로 관심있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창의도시 안내 리플릿이 직접 전달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시에서 간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창의도시 소식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는 지자체가 창의도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비토리오 살모니: 유네스코에서 가장 일찍 지정된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기관이나 문화기관과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과 자금 조달 그리고 프로젝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창의도시의 문화적 권리, 문화 다양성, 사회적 포용, 불평등 해소 등의 이념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 도시가 창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가장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한 난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실현해 가는 플래그십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연대, 그리고 다국간주의라는 근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포용을 강조하여, 시민들 사이의 문화적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도 이러한 유네스코의 가치를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는 도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진주에서 개최한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의 주제가 “다양성—창의성의 토대”였듯이,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포용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화적 취약지역에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보내서 공연하게 하는 “문화예술택배”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권 신장을 위해서는 1인 1예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사회적 포용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문화적 인프라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에 접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역시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평등의 문제로 적지 않은 난점들이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여러 문화와 사회 영역에서 젠더 간의 불평등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온 다른 도시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로피즈: 경제적 불평등은 주요 요인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높은 경제적 불평등은 1) 환경적, 2) 사회적, 3) 문화적, 4) 정치적, 5) 공간적, 6) 교육적 격차 등 6가지의 격차를 만듭니다. 암본 은 빈곤과 실업률이 높은 도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2017~2021년의 지니계수가 각각 0.58, 0.57, 0.56, 0.55, 0.56으로 산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가 지니계수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암본 시의 빈곤율은 증가했습니다. 중앙통계청(BPS)의 데이터를 인용하면 2021년 빈곤율은 23,670명(암본 전체 인구 347,288명 중 5.02%)에 이를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암본의 경제 성장은 5.78%에서 -1.95%로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발 예산에 다시 집중되면서 암본 시 정부는 빈곤을 완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혁신은 암본음악사무소(AMO)이 수행하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창조경제를 강화하여 다른 하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견인차로 음악에 의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새롭고 독특한 혁신의 형태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 성장과 고용 기회를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혁신의 대상은 10개의 음악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창조경제 행위자들을 활용한 지역 음악 창의산업은 47.8%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비음악 창조경제 행위자들이 96.36% 증가했습니다(2019-2021년).

피통나푸: 수코타이는 SDG 10(불평등 감소)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성별, 소득, 연령, 교육, 능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를 위한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코타이 UCCN 사명 중 하나로는 모든 지역 공예 창작자와 기업가가 새로운 디지털 시장에서 상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디자인 적용 기술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수코타이 9개 구역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학습 이니셔티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코타이와 그 주변 지역에서 창의적 기반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학습 플랫폼이라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통해 특정 워크숍이나 학습 활동을 현장과 온라인 이벤트 모두에 적용하여 현지 공예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구역이 학습 IOT(사물인터넷)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살모니: 이탈리아의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공예, 문화·창의 부문은 일방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기업가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민간부문과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비아지니: 우리는 후보도시 신청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든 다양한 범주의 창의적인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했으며, 이 신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단체들이 두 개의 지역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1) 전략위원회: 후보도시의 주요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개발 4개년 계획을 가입 신청서에 작성하고, 그 계획이 도시개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창의공동체 등이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과 제안을 받는다..

이 두 위원회의 목적은 연령, 성별, 종교, 사회적 및 교육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경청하며, 후보도시의 문화재를 인정하는 외부 지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위원회들은 창의도시 지정을 관리하는 시 부서와 협의 역할을 하는 조직에 통합되거나,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민관 협력 조직) 또는 지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담할 외부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원회가 없는 경우, 후보도시 신청 과정은 유네스코에서는 성공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가입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최대) 6개의 사업을 조직하고 자금을 조성할 만큼 충분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창의적인 사람들이든 아니든)이 창의도시 지정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지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도시들이라도 지정 후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참여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을 관리하는 조직과 협력하면서 (최대) 6개의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B.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의도시

3. 당신이 사는 도시는 어떤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도시가 되려고 하였습니까? 창의도시가 됨으로써 당면과제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비아지니: 그동안 분석된 많은 사례들 중에서 UCCN 내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1: 카라라,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이탈리아, 2017년 지정)

카라라(Carrara)는 대리석 채취와 채석에서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리석을 예술작품으로 변모시키는 장인 기술과 예술성에 대한 독특한 지역 전문성은 지역 창조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수년에 걸쳐 쇠퇴해 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이후 처음 4년 동안 후보도시 활동과 가입 기념 활동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로젝트 1: “일하는 손”(Hands at Work)은 시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프로젝트로, 카라라의 예술가와 장인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현재 어떻게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를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역, 국가, 국제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와 장인의 역할에 관한 카라라 선언」(Declaration of Carrara on the Role of Artists and Artisans)은 상향식 접근방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 창조자들은 당면한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도시 지정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기회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그리고 창의공동체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장기 성과는 6가지 우선순위로 정리되어, 최근에 임명된 신임 시 정부에 전달되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카라라 시는 2017년에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모든 수혜자를 완전히 참여시키지는 못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요청을 도시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 사례 2: 베르가모,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이탈리아, 2019년 지정)

베르가모(Bergamo)와 오로빅 밸리(Orobic Valley)는 1,000년의 장인 치즈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단순한 재료와 맛의 혼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연 서식지의 보전을 선호하고 도시와 비도시 경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복잡하고 훌륭한 예입니다. 이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양치기부터 치즈 제조업자에 이르기까지 장인 치즈 가치사슬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 보물로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치즈 생산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입 신청 과정은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뒤집고 장인의 치즈 제조 과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화된 농업지구(특정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지원)를 조성하고, 독특한 서식지를 변모시켜 오로빅 산맥의 높은 산악 목초지에서 베르가모 알타의 역사적인 도심까지 뻗어 있는 치즈 가치사슬을 따라 문화관광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르가모 시는 “장인 치즈”(Artisanal Cheese)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베르가모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참여하여 도시의 6가지 우선순위에 기여함으로써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살모니: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문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동인과 도시 재생 정책을 통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더 넓은 UCCN 커뮤니티와의 참여에 특히 적합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다차원적이고 다선형적인(multi-linear) 방식으로 도시 재생 정책에 접근하고, UCCN이 제공하는 자산과 연락 정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 우리 도시가 창의도시가 되고자 한 것은 크게 3가지 당면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어 공공기관이 이주해 오고, 도시 인근에 새로운 거주 지역이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둘째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적 활동이 증가하고, 문화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화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과 농촌 지역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결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4. 창의도시들은 지역의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도시를 말합니다. 또 창의도시가 되면 창의산업 진흥,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분위기 조성, 국제교류의 활성화, 불평등의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귀하의 도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창의도시로 선정된 일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십니까?

로피즈: 암본 시는 창의도시가 되면서 풍부한 음악 문화로 인해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의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시의 음악 문화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정부가 다양한 사회·문화, 경제, 환경, 교육 의제를 실행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도구인 음악 창의도시로의 비전은 인종, 민족, 종교 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이 결속하여 많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암본은 지역사회 간 예술과 문화의 평등을 시작으로,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는 음악 창의도시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5개교에서는 음악가들을 음악 교사로 계약하거나 국내외 국제 가상 이벤트에서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등 10개의 DTW 음악 투어에 음악과 비음악 창조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본은 창의도시로서 창의성을 이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음악, 요리법 등을 비롯하여 암본 시의 최대 비즈니스 유형을 기반으로 각 하위 지구의 창의적인 경제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고, 또한 마케팅(61.54%), 금융기관(82.24%), 제품 아이디어(34.56%), 인증(28.68%), 과학 벤처(47.19%), 지원(63.94%), 홍보(47.61%), 교육센터(33.47%), 연구센터 및 개발센터(35.72%) 등을 통

해 암본 시의 생태계의 준비 상태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암본 시는 국가 차원에서 UCCN 창의도시(2022년 기준 295개 도시)와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시 또는 지역이 UCCN 회원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음악가와 전통음악을 알리고 다른 UCCN 회원도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음악 창의도시와 UCCN 창의도시 간에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통나푸: 2019년에 UCCN의 회원이 된 이후 수코타이는 UCCN 사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에 따라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서 수코타이 UCCN의 5개년 실행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이행했습니다. UCCN에 가입한 수코타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예와 창의 부문을 장려하여 SDGs(SDG 1: 빈곤 퇴치,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SDG 10: 불평등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개발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는 모든 사람들이 UCCN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살모니: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기반으로 창조적 동력의 균형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정책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파브리아노와 UCCN의 파트너십은 SDG 17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년간의 경제 위기를 겪은 파브리아노는 회원도시 자격으로 인해, 특히 2019년에 개최된 UCCN 연례회의 덕분에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C. 창의도시 추진 거버넌스와 지자체

5.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담당부서를 두어서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도 있고, 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으며,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창의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귀 도시에서는 창의도시 추진을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방식에서 비롯되는 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 관리는 민간재단과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맡고 있으며, 이들은 연락담당자(focal point)와 상설 사무실을 관리합니다. 시 정부는 전략적 지침을 작성하고 결과를 평가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어려운 조정기를 거친 후 파브리아노는 다시 조화를 이루며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 우리 도시는 창의도시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매우 고심해 왔습니다.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을 때는 지자체에 창의도시팀이라는 부서가 있었고, 두 사람의 공무원이 창의도시 사업의 실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을 창의산업진흥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단 안에 창의도시추진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창의도시 사업의 대부분을 재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창의도시 사업이 재단에 위탁되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민간이

참여하는 창의도시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창의도시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이 컸고, 그것이 장점이었는데 말이지요. 또 재단에다 사업을 전부 위탁하고 지자체에는 창의도시팀 자체가 없어지고 전담직원조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라는 기관이 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갖는 경직성 때문에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창의도시 사업에 적합하는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재단이 고유하게 진행하는 다른 지역문화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다시 지자체로 가져와서 직접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거버넌스의 문제는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지니: 저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인 투손(미국, 2015년 지정)이 따르고 있는 접근방식을 검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볼까 합니다.

투손(Tucson)은 복잡한 인류학과 고고학 주장을 바탕으로 창의도시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요리법은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민자들이 투손을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기여한 노력 덕분에 반건조 지역에서 3,500년간 이루어진 지속적인 농업과 인류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손 시는 가입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이 고유한 창의적 지식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요구를 관리할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특별 비영리단체를 지정하여 가입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비영리단체, 투손의 독특한 요리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창의공동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몇 가지 예를 들자면, 토호노 오오덤(Tohono o'Odham) 종족과 기타 지역 원주민인 멕시코인, 중국인 및 유럽인 등). 비영리단체와 도시 간의 관계는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가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느슨한 편입니다. 그 결과, 비영리단체는 창의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는 데는 아주 자유롭지만, 제안된 사업을 위해 시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와 비영리단체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미션과 정책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일련의 질적, 양적 측정이 있어야 합

니다. 투손 시는 지정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영리단체를 위한 주요 자금원이 아니며 정책 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투손이 사용하는 모델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창조자들에게 최고의 장기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5년마다 도시를 관리하는 하나의 정치적 비전에 국한되지 않고, 단기적인 결과에 압박을 받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으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로피즈: 암본 시에서 UCCN 프로그램을 위한 거버넌스는 시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UCCN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암본음악사무소(AMO)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AMO는 암본 시장이 직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AMO의 주요 업무는 전략 수립, 음악도시 구현,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4년마다 유네스코 평가를 위한 문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AMO는 음악교육, 음악 커뮤니티, 음악 규제, 음악 비즈니스와 관련된 25개의 전략적 단계를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MO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으로는 예산 집행과 암본 시 정부 범위 내에서 여러 지역기구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든 기관이 궁극적인 목표로 창의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악적 창의성은 여전히 지역의 소득 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에서 벌이고 있는 운동들은 도시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창조적인 경제력으로서 음악적 창의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MO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암본 시의 장기 업무 계획에 UCCN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AMO는 중앙정부(관광·창조경제부, 교육부, 문화부, 연구·기술부 등), 인도네시아 창의도시 네트워크(ICCN),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CCN 회원들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D.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

6. 창의도시에서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는 도시의 문화자산과 더불어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가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환류되어야 합니다. 귀 도시에서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창의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지난 4년간 전개해 온 민속춤 보급 활동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갑니다. 매년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진주의 전통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분들은 진주가 창의도시라는 것과 문화자산을 전승하고 생활 속에서 즐기는 일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있었던 전통공예비엔날레나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역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근본적으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는 생각이 시민들의 정신에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시들의 사례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2019년에 공개 회의, 오픈 경연대회, 협회의 행사와 주제 제안 등으로 조직된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 시민의 참여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줄어들었지만, 지진 이후 재건에 창의도시가 직접 참여한 덕분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브리아노 시는 UCCN 정책과 기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을 개선할 것입니다.

로피즈: 암본 시의 경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참여가 성공적인 이유는 암본 시의 사람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음악은 타고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보다 방법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역사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암본 시의 전략입니다. 10개의 시범사업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교과 의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모든 성별의 어린이와 부모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 창의공동체를 포함한 창조자본(Creative Capital) 창출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음악 창조경제 행위자 5,300명, 가수 133명, 기타 연주자 36명, 키보드 연주자 56명, 베이스 연주자 29명, 드럼 연주자 15명, 색소폰 연주자 4명, 편곡자 6명, 작곡가 55명, 래퍼 45명, 힙합 100개 그룹이 형성되었고, 또한 780개의 합창단, 17개의 하와이안 밴드, 45개의 밴드, 23개의 사왓/하드랏(sawat/hadrat) 그룹, 1개의 대나무 관악단, 15개의 토토투부앙(totobuang, 말루쿠의 전통 합주악기) 그룹, 1개의 바이올린 앙상블, 49개의 스튜디오, 80개의 브라스 밴드와 120개의 아카데미가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창조자본은 46.26%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UNPATTI(Universitas Pattimura) 캠퍼스에 지어진 국제 프로 리코딩 스튜디오(International Pro Recording Studio) 형태의 크리에티브 아레나(Creative Arena) 1개, 전국적으로 총 850편의 지역 대중가요를 제작하는 8개의 중형 스튜디오와 25개의 홈 스튜디오, IAIN 캠퍼스 내 민속음악 공연장 1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가나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창조공간은 60.47% 증가했습니다.

E.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국제교류

7. 각 도시들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함으로써 같은 서브네트워크들의 다른 도시들과 지식,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네트워크 가입은 기대한 만큼의 국제교류, 지식과 경험의 공유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주된 원인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피통나푸: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UCCN 회원으로서 수코타이는 창의부문을 통해 도시 개발에 SDGs를 통합하는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UCCN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코타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한 이니셔티브들이 가입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UCCN 서브네트워크 회원들의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각 도시가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분야에서 그리고 다른 창의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배우는 데 통찰력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창의도시 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과 연구 또는 기술과 혁신이 이전됨에 따라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면, UCCN 회원 가입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모니: 파브리아노는 UCCN 덕분에 국제협력의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고립 시기를 보낸 후, 파브리아노는 UCCN을 통해 클러스터 내에서 그리고 클러스터 간의 이니셔티브에 장기간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2019년 연례회의가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UCCN 활동은 역량 구축, 연계 사업, 과학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창의도시들은 2년 전에 설립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파브리아노는 회의와 연락처, 솔루션, 모범 사례의 교류를 위한 연락 담당자이자

국가위원회의 중재자로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저희 도시는 창의도시 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서브네트워크 회의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전체 네트워크 회의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저널의 목표가 바로 각 창의도시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널이 우리 서브네트워크의 교류 매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른 창의분야 간의 교류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올해 개최한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와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비엔날레 7개 도시, 레지던스에 3개 도시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고는 이런 수준의 국제행사들을 개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진주시민들과 참여도시의 예술가들이 문화의 다양성이 창의성의 토대임을 함께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 창의도시 분야 설정과 타 기관과의 협업의 난점

8. 각 창의도시는 하나의 서브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즉 창의도시들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한 가지 창의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야 설정이 다른 분야와의 균형 있는 발전 혹은 다른 분야 도시와의 교류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살모니: 아니요. 공예와 민속예술 클러스터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우 능동적입니다. 또한 이 클러스터는 UCCN의 광범위한 개편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JEONG: 올해 진주에서 열렸던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주제는 바로 “창의분야들 간의 융합과 협업”이었습니다. 지난 ‘산토스 제13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차회의 결론’에서도 “각기 다른 창의분야를 넘나드는 이벤트, 교류사업, 연계사업을 통해서 창의분야 간의 협력과 교차협력의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의분야에 특히 많은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서브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분야의 발전만을 강조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음악, 영화, 문학, 디자인, 미식, 미디어 아트 등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들을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떤 한 분야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분야 자체의 발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국가의 국가위원회, 그리고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사무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의 사업들을 서로 소개해 주고, 연결해 주는 일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차회의에서 협업과 융합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피통나푸: 태국의 도시들이 UCCN 가입 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창의분야를 선택하도록 코칭한 경험을 통해 저는 적절한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수코타이는 2019년에 UCCN 가입; 팻차부리는 2021년에 UCCN 가입; 난(Nan) 시). 다른 도시들이 상호 합의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창의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각 도시는 자신의 창의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시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앞과 뒤를 모두 살펴볼 것을 제안합니다. 전자는 선택한 창의분야가 특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의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후자는 도시의 문화적 맥락과 선택한 창의분야가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만큼 고유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단계: 창의분야를 선택한 후 검토 과정에서 각 도시마다 특정한 SDGs에 따라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창의분야가 도시의 문제와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주요 UCCN 도시 메커니즘으로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 간의 추가 논의가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선정된 개발 창의지역에 대한 예상 기여도가 한정된 주민 집단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 특정한 창의분야를 선택한 후 잘못된 인식을 피하고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도시가 6가지의 다른 창의분야와 함께 선택한 창의분야에 대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각 도시가 선택한 창의분야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경우, 도시는 특정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창의분야에 걸쳐서 창의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9. 귀 도시의 교육기관, 예술문화단체, 언론기관 등은 귀 도시의 창의도시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창의도시 사업에서 이 기관들 사이의 연계와 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비아지니: 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클러스터인 공예와 민속예술(카라라) 그리고 미식(투스)을 분석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첫째, ‘학술적 지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기관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자금 지원을 받으며, 중앙정부가 설정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경우는 ‘실용적 지식’에 대한 특정 지역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들이 정부 규제, 자금 조달, 프로그래밍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례 1: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개입

카라라의 창의공동체는 지역 교육기관들과 상호 유익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카라라 선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로 지역 장인과 산업 부문에 필요한 전문 교육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2개의 전문 기술 공립학교조차도 차세대 지역 예술가나 장인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실용 기술에 일부 시간만을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졸업생은 지역 기업에 즉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국립미술원(Academia di Belle Arti, 대학 수준의 미술학교)은 고도로 전문화된 과정을 제공하므로, 지역 기술학교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은 충분히 진학 준비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술학교 졸업 후에 교육과 훈련을 계속할 수 없어서, 대신에 저임금의 지역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문제가 되는 교육시스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창의적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길고 복잡하며 종종 무급인 견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석공 분야에서 경력의 기회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카라라 선언」에 요약되어 있는

권고사항은 지역사회가 협의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라라 시는 이 권고사항에 따라 최근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00명의 작은 마을인 카라라에서 지역 언론은 국내외 관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협력의 중요한 정보원이 되지 못합니다. 대기업이나 드물게는 지역 예술가와 장인들만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재단을 비롯한 기타 문화단체들은 창의적인 개인들을 위해 보조금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행사나 박람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 관리자는 지속적인 협력과 컨설팅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지역 재단의 목표와 창의도시의 목표 사이에서 공통된 비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2) 사례 2: 재단의 교육에 대한 강력한 개입

투스의 창의공동체(농부, 목장주인, 채집인, 음식 트랜스포머, 요리사 등)는 카라라의 창의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달리, 미국의 기술학교 교육과정은 실용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요구(예: 건조한 토지 환경)에 맞게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 재단이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기술학교, 전문대학,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주기를 마친 후 즉시 지역 시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급 일자리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식 가치사슬에 따른 일자리와 관련된 저임금이 지역 지식을 새로운 세대로 전수하는 데 미치는 유일한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투스의 지역 언론은 카라라의 지역 언론과 동일한 한계를 겪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역 블로그나 출판물은 지역 행사와 창의공동체에 좀 더 주목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청은 지역의 독특한 미식 장면을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을 포함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지정은 투스 관광청의 예산에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투스는 유료 광고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고, 많은 언론 매체들이 미국 최초의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무료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의도시 지정을 관리하는 비영

리단체의 현명한 조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회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 지역 관광청, 지역 비영리단체 중에서 구성원을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살모니: 지역 문화협회들이 2019 UCCN 연례회의에 참여한 이후 창의도시 사업에 관여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마이크로 협회나 마이크로 사업들과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알-하사, 사우디 아라비아

비다, 나이지리아

김해, 대한민국

퀴타히야, 튀르키예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파두카, 미국

산타페, 미국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알-하사, 사우디 아라비아

알-하사 장인 마켓의 장인의 집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매우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고대 아랍 문화가 있다. 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번성하는 산업들과 예술 장소들이 많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독자적인 예술 형태를 만들어내고 관광 활동에도 활용되어진다. 특히 동부 지역은 알-아사가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의 국제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덕분에 매년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을 유치한다.

다양한 수공예 사업들과 제품들은 단순한 도구들과 원자재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천연자원들,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온 선천적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최상의 원자재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산업과 수공예품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진정한 유산으로 여겨진다. 공동체는 공예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민족적 기원, 사회적 유산을 유지할 수 있다. 고대 역사와 풍부한 야자수가 특징인 알-아사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은 그들의 직업을 위한 수단들을 제공해 준다.



알-아사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제조와 장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와 걸프 만 주변에서 학생들이 알-아사로 이주해왔다.

알-아사 가족들은 이제 전 세계에까지 알려진 비시트(Bisht)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사우디 정부가 학문적이든 전문적이든, 취미이든 문화적이든간에 수공예 분야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한편 전통유산과 관련하여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의 최근 행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알-아사의 장인 시장에 위치한 장인의 집(The House of Craftsmen) 프로젝트는 수공예 분야에서 재능 있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주요 대상은 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자선 활동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취약자, 그리고 고아들이다.

알-아사 장인 시장은 역사적인 호푸프(Hofuf) 지구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 1만2000m²에 98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 시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 및 공예의 보존을 향한 알-아사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거기에는 숙련된 장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립



아카데미도 있다.

장인의 집 프로젝트는 도자기, 목공예, 석고, 니트의류 등 다양한 8개월 과정의 강좌들을 제공한다.

그 결과, 알-아사 주의 장인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한 장인의 집의 발전, 제품들을 선보이는 소매점 오픈, 다양한 관련 행사나 활동의 개시, 제품의 향상 및 홍보 등을 비롯하여 기대 이상의 많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었다.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는 21세에서 45세 사이여야 하며, 전일제(하루 8시간의 훈련과 업무)로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재정적 보상, 사회 보험, 디자인 분야의 교육 워크숍 접근 기회, 프로젝트 디자이너로부터 제공받는 고품질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업계 최고의 교육자들로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Al Saud)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비전 2030"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사우디 왕국의 문화적 탁월성을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고 왕국의 역사, 유산, 고대 유물 및 문화 발전을 보존하는 진정한 문화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알-하사 창의도시 팀

비다, 나이지리아

비다 도시의 공예와 민속예술



비다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고대도시로, 2021년 공예 및 민속예술 도시로 선정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회원이 되었다. 비다의 전통 기관들은 옛 왕국의 유산을 이어받아 왕족인 에츠 누페(The Etsu Nupe) 가문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도시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하에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집행 의장(시장)이 이끌고 있다.

비다라는 이름은 니제르(Niger) 강 유역에 운집한 비다코(Bidako) 마을들의 한가운데에 성벽을 쌓았던 비니(Bini)족의 족장에 의해 지어졌다. 약 12마일 길이의 붉은 진흙 벽이 랜준(Landzun) 강둑에 있는 비다코 마을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 도시에는 4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성벽의 아주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 술레자(Suleja) 마을로부터 비다(Bida)로 들어오는 길에는 아가이(Agaie) 마을의 이름을 딴 방가이(Bangaie) 문이 있고, 카두나(Kaduna) 강에서는 카두나 강변의 마을 이름을 딴 우야(Wuya) 문을 통해 비다로 들어



오게 된다. 또다른 문들은 방보기(Bangbogi)와 방바라(Bangbara)가 있다. 이 문들은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비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던 과거의 무역 경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다 도시의 주요 종족은 원래 누페(Nupe) 혈통이다. 비다는 에츠 누페(왕)(the Etsu Nupe (Emir))가 이끄는 누페 왕국의 본부 역할을 하는데, 그 왕국은 아가이(Agaie), 라파이(Lapai), 레무(Lemu), 파테기(Pategi), 쿠티기(Kutigi), 모콰(Mokwa), 도코(Doko), 밧데기(Baddeggi), 카차(Katcha)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다에는 반우야(Banwuya), 와다타 궁전(Wadata Palace), 방가이(Bangaie), 방보기(Bangbogi), 방바라(Bangbara), 비다 연방 공과대학(Politechnic), 하지야 파티마 롤로 하우스(Hajiya Fatima Lolo House), 하지야 라디디 식당(Hajiya Ladidi Food Canteen), 라마투 당가나(Ramatu Dangana), 우체국, 세인트 존스 학교, 가장 오래된 바닌-비다 회당(Banin-Bida Mosque), 시장들, 랜준(Landzun) 강 외에 많은 명소들이 있다.

비다 사람들은 11세기부터 이어져온 유리 공예, 금속 및 황동 세공, 목각, 직물 직조, 라피아 직조, 전통 음악과 노래 등 예술에 뛰어나다. 비다의 공예 창작 단계에는 마사가(Masaga) 유리, 츠와타 무쿰(Tswata Mukun) 알루미늄, 그봉보푸(Gbongbofu) 황동 세



공, 도코자(Dokodza)의 금속 세공, 말파(Malfa) 직물 직조자, 그바그바(Gbagba)로 알려진 다코앗사(Takoassa)의 목공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다. 또한 민속 축제, 음악, 춤, 그리고 노래로도 유명한 도시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더르바르(Durbar) 축제와 누페의 날(Nupe Day)이다.



식민지 이전 시대의 도시 경제 활동은 이미 14세기 초에 말리 송하이(Mali Songhai)제국, 가나의 아산티(Ashant) 제국, 보르노의 카넴-보르누(Kanem-Bornu) 제국과 같은 여러 강대국들과 유리, 황동, 은, 철 세공품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 공예품들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수도구들과 전통 용광로를 이용한 수제품으로, 특히 유리 제조 기술은 기원전 2천년경의 고대 이집트 유리 예술에서 이어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지리아에서 공예와 민속 예술의 선도 도시인 비다는 한국에서 열린 2022 진주 세계 민속 예술 비엔날레의 국제 무대에서 공연했다. 우리 도시는 에츠누페 그반도 왕실 악단(Etsu Nupe Gbando Royal Band)과 전통 앙갈레(Angale) 여성 무용수들로 구성된 에츠누페 민속예술단을 선보였다. 진주비엔날레에서 에츠누페 민속예술단은 전통 춤과 찬양 가창, 명언들, 전통 누페 음악과 누페 속담 낭송 등을 공연했다. 그반도 밴드와 앙게일의 합동공연은 비엔날레에서 다른 국제 그룹들과 함께 기쁨을 선사했다: 미국 켄터키주 파두카의 휠하우스 루스터스와 세스 머피(Wheelhouse Rousters and Seth Murphy), 이집트의 아스완(Aswan) 민속극단, 필리핀 바기오의 생야 카사이(Saeng ya Kasa) 문화 앙상블, 인도네시아

아 암본의 카이홀루(Kaihulu), 태국 수코타이의 전통 무용,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의 나바 암가(Naaba Ambga) 예술 앙상블, 한국의 진주검무 등이 함께 공연했다.

흥미롭게도, 축제 기간 동안 열린 UCCN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 네트워크 연례 회의에서, 회원들의 창의적 분야 교류 세션을 통해 성공적인 융합과 협업을 경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곳의 향토 요리를 맛보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들은 진주에서 얻은 최고의 경험이었다. 축제에서 선보인 무형문화재는 포용적 성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조화와 화합 속에서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 민족의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억들은 2022 진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전통 지식의 가교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음을 입증한다. 진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있는 평화로운 도시, 다양성을 창의성의 기반으로 삼는 위대한 유산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 공연들을 위한 시연들과 워크숍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진 야외무대 공연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 공통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선 시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UCCN에 가입한 새로운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로 공예와 민속 예술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즉,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고, 통합 워크숍 수업의 결여, 자금 결핍, 보조금 지원 기회 부족, 기술적 지원 부재, 신규 도시를 위한 구체적 실행 설명서의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프란시스 은다지사 소콤바
(비다, 포컬포인트)

김해, 대한민국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포! 새롭게 출발하다

김해시는 2021.11월 UCCN 가입한 새내기 회원도시로 이듬해 3월 창의도시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였습니다. 대신 국내 창의도시 모두(10개 도시)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고, 유튜브 실시간 송출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창의도시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2022. 8월 창의도시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들로 창의도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첫 회의에서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태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경 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창의도시 선포식

창의도시와의 교류, 한 걸음 한 걸음

2022.4월 강릉시(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년 UCCN 미식 분야 가입추천도시)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 10월 양 도시의 대표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교류하였습니다. 강릉커피축제에서는 (사)김해도자협회에서 도자기 전시·판매와 함께 도자기물레체험 행사를 진행하였고,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서는 강릉커피로스팅클럽과 (유)커피박공장에서 강릉커피 시음행사/판매,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원거리(차량 편도 5시간 소요)로 인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양 도시의 도자기와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강릉커피축제 - 김해도자기 전시·판매(위)
김해분청도자기축제- 강릉 커피 판매(아래)



“김해시-대구시-광주시” 협업공연

2022. 8월 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에서는 김해시, 대구시(음악 창의도시)와 광주시(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함께 축하공연을 하였습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작가의 기획에 따라 연출된 무대에서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과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이 협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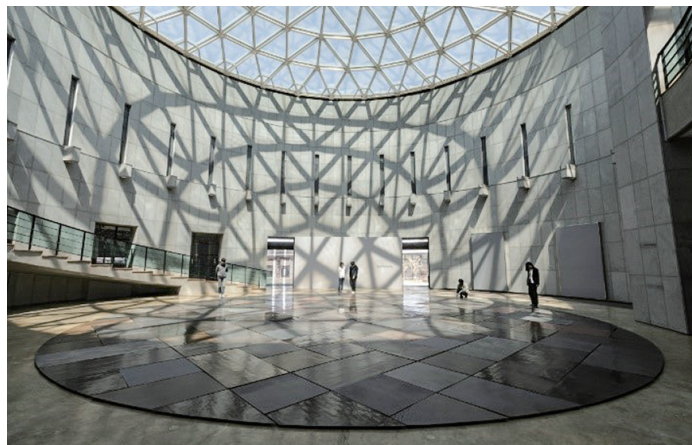
김해 진례면에 밀집된 도예 관련 시설

김해 진례면에는 도예와 관련한 미술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판매관, 박물관 등 주요 시설이 모여 있으며, 60여 개의 도예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1)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은 2006년 개관한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입니다. 클레이아크란 흙(Clay)와 건축(Architecture)의 상호 관계적 협력을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미술관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등이 있어 관람객들이 작품 감상 후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어린이미술대회, 전시 연계 교육 등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창작센터는 건축, 도예, 디자인, 회화 등 여러 분야의 시각 예술



가에게 건축도자 또는 도예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철)공실, 석고실, 소성실 등 작업공간과 게스트룸, 주방 등 생활공간을 갖추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술관 홈페이지(<http://clayarch.org>)에서 국내외 입주 작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2)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도자전시판매관에서는 도예인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도예인 교육과 컨설팅,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해외판로개척, 작업환경



김해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자소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관은 온·오프라인 통합판매관을 운영하며, 지역작가의 작품을 초대·전시할 뿐만 아니라 X선형광분석기, 이동식 3D광학스캐너 등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장비를 R&D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분청도자박물관은 2009년에 한국 최초의 분청도자 전문전시관으로 개관하여 김해도자역사와 문화를 전시·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유물 및 현대 분청도자기 전시, 지역작가 초대 전시와 함께 전통가마불지피기, 시민도예대학 등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전통 손기술의 현대화 작업, 리빙테크사업

김해문화도시센터에서는 김해 전통의 손기술을 가진 장인과 예술가를 발굴하여 현대적인 실용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를 지원하는 리빙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도예와 철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금속공예 등 김해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들이 김해의 문화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김해의 10색을 활용한 머그잔과 화포천에 서식하는 100여종의 동식물을 담은 생활용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김해 창의도시팀

쿠티히야, 튀르키예

국제무대의 쿠티히야

2017년부터 쿠티히야는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정회원이 되었다.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가입한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쿠티히야의 장인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지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통 공예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치니(Cini)는 쿠티히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술 형태인 타일 창작으로, 우리 도시의 상징이자 외부 세계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공예와 민속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여정을 나누고자 한다.



피어나는 불 속의 꽃들

치니는 점토, 고령토, 백악(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석영(수정)과 같은 원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빚어진 몸체를 조각하고, 건조시키고, 장식하고, 유약을 바르고, 소성하여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다. 게다가 터키의 전통 문양을 표현하고 다른 도자기 제품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지역 및 국제 사업

쿠티히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열린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시는 2021년 9월 쿠티히야 에블리야 첼레비(Evliya Çelebi) 사진 협회와 협력하여 스페인 마니세스(Manises)가 주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투어" 전시회에 참가했다. 쿠티히야를 소개하는 다섯 장의 사진이 전시에 사용되었다. 2021년 10월에는 세계 도시의 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2021년 11월에 일본 하마마츠(Hamamatsu) 시에서 구축한 글로벌 시퀀서 애플리케이션(Global Sequencer application)에 음향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UCLG를 향한 우리 계획의 일환으로, 쿠티히야는 2021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차 UCLG중간도시 세계 포럼을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중간도시가 그들의 도시 기반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팬데믹 직후 열린 중간도시 세계 포럼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86개 도시와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첫 번째 만남이었던 이 행사는 포럼 그 이상이었고, UCLG 도시들의 재상봉이었다.

퀴타히야 시의 범위 안에서는:

1. "튼튼한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퀴타히야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타겟 그룹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타겟 그룹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가 강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격리되었던 외로운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었다.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퀴타히야 주지사, 퀴타히야 뒤물루피나르(Dumlupınar) 대학교, 퀴타히야 상공회의소, 그리고 퀴타히야 도자기, 사진가 및 수공예 협의회이다. 약 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니와 패턴 디자인, 영어 학습, 협동 훈련, 소셜 미디어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2. 전통적, 역사적, 문화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원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닛 맨션'은 우리 지역의 장인과 예술가들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다. 캔들 워크샵, 구리 직조 기술 및 보석 디자인 워크샵, 아프리카 바구니 직조 워크샵과 같은 다양한 교육들이 이 저택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름 내내 열렸다. 또한, "튼튼한 미래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쿠타히야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이 저택에 영구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3. "쿠타히야의 디지털화 및 창의성 생태계 개발 프로젝트"가 EU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패턴과 형태 디자인의 부족, 제품 표준화의 부재, 무역의 구조적 문제, 브랜딩의 결핍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인 쿠타히야에서는 타일 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범위 내에서 창의성센터가 설립될 것이다. 쿠타히야 뒤물루피나르 대학교, 자퍼(Zafer) 개발청, 쿠타히야 상공회의소, 쿠타히야 도자기, 사진가, 수공예품 협의회가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시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쿠타히야의 치니와 도자기 타일을 감상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Hazal BABUR

(Project Manager for Kütahya Municipality's UCCN project)

Hümeyra TEMEL DÜVER

(Project Manager for Kütahya Municipality)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SIAO, 와가두구 국제 수공예품 박람회



첫번째 와가두구 국제 수공예품 박람회(SIAO)는 토마스 사나카라(Thomas Sanakara) 회장의 후원 아래 "수공예 84(Handicraft 84)"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1988년에 제도화되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장인들과 구매자가 만나 경험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아프리카 수공예품의 국제 시장이 되었다. 2022년에는 짝수 해에 열리는 제16회 아프리카 공예 비엔날레가 열렸다.

SIAO는 장인, 생산자, 아프리카 수출업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과 전문 바이어들이 직접 만나는 전문 박람회로서, 아프리카 수공예의 가장 규모가 크고 우수한 국제 시장이다. 또한 기술 네트워크, 공예 분야의 조언 및 교육에 대한 뛰어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사명과 목표

SIAO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프리카 수공예품의 국제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그 제품들의 상업적 홍보와 교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주요 목표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고 장인들을 10일 동안 한 자리에 모아 국내 및 국제시장의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전시 및 부대시설

SIAO는 7헥타르의 면적에 지어졌으며, 현재6개의 전시관이 있다.

- 에어컨이 설치된 3 개의 판매 전시관(솔레일 레반트(Soleil Levant), 아크-엔-시엘(Arc-en-Ciel), 킬리만자로(Kilimanjaro));
- 통풍이 되는 2개의 판매 전시관(고레(Gorée), 피라미데스(Pyramides);
- 공모전 창작품 전시관 1개(창의관(Creativity pavilion)).

또한 SIAO에는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두 개의 창고
- 식사 공간
-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SIAO에 승인되는 제품

박람회에는 오직 장인 제품만 받아들여진다. 장인 제품이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데에 장인의 수작업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졌든 혹은 수동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였더라도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정된다. 박람회 참가 자격은 SIAO의 등록 양식이나 SIAO 웹사이트 www.siao.bf에 명시되어 있다.

Contact management:

01 BP 3414 Ouagadougou 01

Such. : +226 56 45 41 90/ 60 85 64 09

siao@siao.bf or salonsiao@ymail.com

* * * * *

레크레아뜨랄(Le Récréâtrales)—20년!

레크레아뜨랄(Le Récréâtrales)은 저술, 창작 및 연극 연구를 위한 범아프리카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2002년에 부르키나베 연극인 에티엔 미농구(Etienne Minoungou)에 의해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작가, 감독,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시나리오 작가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들이 함께 예술적 수준이 높은 현대 연극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레크레아뜨랄은 20년 후인 지금 아프리카 현대 연극의 주요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그셈텡가(Bougsemtenga)라는 지역에 의해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는데, 그 곳 주민들은 2006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축제와 함께 행사에 참가하려 온 예술가들과 국제 관객들을 환영해왔다. 20년 사이에 레크레아뜨랄 프로젝트는 변화를 거듭하며 점차 이

벤트에서 벗어나 거주자들, 즉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일상 생활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설 극장인 레크레아뜨랄레스 극장과 더불어 시나리오작가와 기술자를 배양하기 위한 무대예술대학(Scéno College)이 세워졌다. 그 외에도 연구, 교육 및 창작 연구소인 엘란 실험실(ELAN Lab); 어린이를 위한 워크숍인 어린이 공공 프로젝트(Young Public Project);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인 예술적 동행(Artistic Companionship) 등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아리스티드 타르나그다(Aristide Tarnagd)가 감독을 맡고 2019년부터 오딜 상카라(Odile Sankara)가 실행을 해왔는데, 이 두 예술가는 레크레아뜨랄에 창작하러 온 예술가들과 그들을 환영하고 지금까지 전반적인 축제 운영에 참여해온 주민들을 연결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여성들과 젊은이들은 예술가들과 함께 교대로 다음과 같은 창작무대에 오르도록 초청받는다: 세 차례의 오프닝 쇼; 2020년 이후로 전국 순회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 연극 "지역(Le Quartier)"; 부르키나 파소의 폭력 극단주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의 젊은이들과 실향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예술 워크숍 "형제애(Terre Ceinte)" 프로젝트.





결과적으로 레크레아트랄은 대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참고 사례를 만들었다: 즉, 지역에서 문화 행사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삶의 장소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크레아트랄은 오늘날과 같은 분열과 개성의 시대에 의미와 연결을 창출하는 임무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큰 재앙에 맞설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연설, 쇼 및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인류를 되돌려 놓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Ramde Harouna

(Focal Point of Ouagadougou City)

파두카, 미국

파두카에서 창의성은 삶의 방식이다

파두카(Paducah)는 미국 오하이오 강과 테네시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이다. 초기 정착민들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육지를 이동하면서 귀했던 직물을 재사용한 것이 퀼트라는 독특한 미국 예술 형식을 낳게 되었다. 그들이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동안 가족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옷이나 밀가루 자루, 음식 자루, 두건 등 모든 종류의 천 조각들은 패치워크 퀼트로 꿰매어졌다.

미국 국립 퀼트 박물관(National Quilt Museum of the United States, NQM)은 주변 세계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늘과 실로 표현한 퀼트 예술가들을 기념한다. 이 박물관은 다양한 퀼트와 섬유 예술 전시를 통해 퀼트 제작이 미국 예술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한다. 최근 전시회에서는 섬유직물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이슈들과 노력을 조명하고 있다:

- “당신의 작품을 말하십시오(Say Your Piece)-흑인 여성: 어머니, 순교자, 그리고 오해”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에 관련된 상징성과 영감이 결합된 시각적 여정으로 문화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작품이다.
- "민권 운동에 대한 찬사: 퀼팅 스윙 코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은 미국 시민 평등권 운동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이 스토리가 담긴 퀼트작품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통적인 퀼팅 디자인과 직조 기법을 이용하여 스윙 코트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 “섬유 애호가들의 고백.” 미국 보존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Conservation)의 선임 연구원인 해롤드 메일랜드(Harold Mailand)는 인도, 독일, 영국, 미국에서 수집한 개인 소장품 중 30개의 퀼트 작품들을 공유한다.

미국 퀼트인 협회의 연례행사인 파두카 퀼트위크(QuiltWeek)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퀼트 전시회이다. 퀼트위크에는 전통적인 손바느질 작품과 재봉틀로 만든 퀼트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적으로 완벽한" 퀼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의 퀼트 애호가들이 모인다. 다양한 강좌들과 워크샵을 통해 유서깊은 전통과 과거의 직물을 소개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퀼팅 기법과 최신 퀼팅 트렌드를 제공한다. 미국 퀼트인 협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큰 상금을 수여할 정도로 파두카의 퀼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파두카의 창의적인 문화는 교육 및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진화하여 미래로 창의성을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비영리 디지털 경제 개발 단체인 스프로킷(Sprocket)은 기업가들이 모여 새로운 솔루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국



제 경연대회를 후원한다. 경연의 우승 프로젝트와 1년간의 레지던시 지원은 농촌 건강 관리 솔루션을 연구하는 인도 출신의 창작자와 섬유 산업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도구를 개발하려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수여되었다.

파두카의 메이든 알리 극장(Maiden Alley Cinema)은 미국에서 유일한 레즈비언 영화제인 시네마 시스템즈(Cinema Systems)를 매년 개최한다. 레즈비언 영화제작자들의 비전과 목소리를 높이고 레즈비언 예술을 공개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가로부터 참가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2022년의 주요 영화 제작자들은 영국, 헝가리, 스위스, 독일, 남아프리카와 캐나다에서 참가하였다.

리버스 엣지 국제 영화제(Rivers' Edge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 밖에서의 활동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파두카는 2017년 영국의 창의도시, 브래드포드가 주관하는 스몰 월드 영화제(Small World Film Festival)에 참가했다. 영화제 주제는 "나의 도시(My City)"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파두카는 웨스턴 켄터키 대학의 프로그램인 "마운틴 워크샵(The Mountain Workshops)"에서 제작한 영화를 출품하였다. 수상작 5편은 프랑스 앙기엔레뱅(Enghien-les-Bains)에서 열린 2017년 UCCN 연례 회의에서 상영되었다. 주목받은 영화는 산토스(브라질), 깬웨이(아일랜드), 나고야(일본), 브래드포드(영국), 몬트리올(캐나다), 로마(이탈리아)의 작품들이었다.

영화부문 창의도시인 브래드포드는 파두카와 계속 협력하여 리버스 엣지 국제 영화제에 심사위원을 보내주었다. 유네스코 영화의 도시 브래드포드의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감독이 파두카를 방문해 영화축제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인구 27,000명의 작은 도시인 파두카는 자랑스럽게도 파두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합창단, 지역 실내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다. 심포니는 현재 저렴한 주택과 경제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예술과 음악을 통합하여 파두카의 창의적인 문화와 경제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던랩(Dunlap)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제튼 스쿨하우스(Jetton Schoolhouse) 안에서 생활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파두카는 각각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파두카는 켄터키 서부에서 성별이나 성성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성 조례를 최초로 승인한 도시이다. 도시에 있는 2 개의 주요 병원 시스템은 공평한 치료를 위해 그 시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의 우수한 학교, 2개의 지역 대학 캠퍼스,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을 가진 파두카는 양질의 교육을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파두카 시, 맥크라켄(McCracken) 주, 그리고 파두카 로타리 클럽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무료로 대학 준학사 학위(2년)를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물 밑 생활(Life Under the Water)"은 파두카가 번영하는 강의 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지역 환경 보호 활동가와 단체들은 하천 시스템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토종 하천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파두카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 일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성을 계속 활용하도록 만든다. 파두카에서 창의성은 단순한 속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Mary Hammond

(Focal Point of Paducah)

산타페, 미국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 뉴 멕시코의 산타페 와 쿠바의 트리니다드

미국의 인구 87,500명의 작은 도시인 뉴 멕시코주 산타페는 2005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되었다. 예술과 문화 산업은 산타페 경제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본을 유치하며 세금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예술가들을 위해 국제적 기회를 찾고자 했던 산타페의 목표가 2022년 산타페와 쿠바 트리니다드의 장인들 간의 교류를 만들어냈다. 트리니다드는 2019년에 선정된 네트워크의 새로운 회원이다. 두 도시 모두 공예와 민속 예술 도시로 지정되었다.

산타페 예술문화부의 컨설턴트인 사브리나 프랫(Sabrina Pratt)은 트리니다드 보존국(Office of Conservation) 책임자이자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담당자인 두즈넬 자케라 아마도르(Duznel Zaquera Amador)에게 연락했다. 교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양쪽 도시에서 역사적 전통을 살리고자 하는 공통된 열정을 가진 장인을 선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선정된 네 명의 여성들은 바느질작품에 매우 탁월하고, 판매용 작품을 만들거나 그 작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르치고 시연하는 데에 모두 능숙하다.



산타페의 줄리아 R. 고메즈(Julia R. Gomez)와 바바라 로메로 알바(Barbara Romero Alba)는 17세기부터 전해져온 스페인 식민지 콜차 스티치(colcha stitching)의 전문가들이다. 줄리아는 이 자수 스타일을 바바라에게 가르친 스승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타페에 있는 역사 박물관인 엘 란초 데 라스 골론드리나스(El Rancho de las Golondrinas)와 스페인 식민지 미술관과 같은 기관에서 시연하고 가르치면서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콜차 자수는 뉴멕시코 북부의 추로(Churro) 양들에게서 수집한 털을 수작업으로 염색하고 짠 털실로 만들어진다. 그것은 담요를 수선하기 위한 바느질로 시작되어 커튼, 의류 수선, 식탁보 등을 장식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트리니다드의 장인들은 조베이다 곤잘레스(Zobeida González)와 오브둘리아 곤잘레스(Obdulia González)이다. 그들은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독학으로 공예 기술을 배운 자매들로서, 자수와 코바늘 뜨개질, 그리고 실을 뽑는 기술의 전문가들이다. 조베이다와 오브둘리아 외 우르딤브레(Urdimbre)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트리니다드의 메인 광장에 있는 낭만주의(Romantico) 박물관에서 그들의 공예품을 시연하고, 가르치고, 판매한다. 이 건물은 1808년에 완공되었고, 현재 19세기 트리니다드의 부유 계층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는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바느질 작품을 전시하므로써 우르딤브레 장인들이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 때에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르딤브레는 2017년부터 8명의 회원이 함께 작업을 하며 젊은 사람들을 가



르치고 있다.

예술가들이 서로의 도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두 명의 예술가들이 4개의 작품을 따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각 장인들은 다른 도시의 장인이 완성한 22인치 정방형 천의 절반을 자신의 도시의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놓는 방식으로 두 도시의 전통을 결합하였다. 사브리나 프랫은 2022년 4월 트리니다드를 방문하는 기간에 절반이 완성된 작품을 교환했다.

2023년 여름 산타페에서 완성된 두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산타페 시 예술문화과장인 파울린 카나코 카미야마(Pauline Kanako Kamiyama)는 “우리는 이 교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그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아이디어와 전통을 보존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라고 말했다.

산타페 시 예술문화과는 2023년 6월 산타페 컨벤션 센터에 있는 커뮤니티 갤러리에 이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회의 주요 작품은 이 교류를 통해 완성된 예술 작품 두 점(나머지 두 점은 트리니다드에 있다)과 장인들의 인터뷰를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다.

Sabrina Pratt
(Focal Point of Santa Fe)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리뷰

진주시의 국제교류 활동
정병훈

파두카에서 진주로
렉시 밀리칸

진주시의 국제교류 활동

1. 이 글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가 올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실행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도시의 당면과제를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진주시는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될 무렵, 크게 세 가지의 당면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첫째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진주시는 근대 산업화에서는 소외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도시, 역사도시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진주 인근에 항공우주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공기업들이 진주로 이전하게 된다. 그 때부터 진주에서는 뒤늦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진주시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있었다. 진주 시민들은 산업과 문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희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당면과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도시 외곽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근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진주성 부근의 도심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이다. 진주의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다. 중심가는 저녁이 되면 어두컴컴해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물고, 밤문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면서 진주관광은 주로 낮에 진주성을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민들은 주야를 막론하고 볼 것이 많아서 관광객이나 여행자가 머물고 가는 도시를 원하고 있었다.

셋째, 진주시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고 있었다. 진주시의 면적은 720km² 정도이고, 그 중 도심과 농촌의 면적의 비율은 2:8, 인구비율은 8:2이다. 특히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도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농촌 지역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진주시가 포용력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 사람들과 농촌지역 사람들이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었다.

2. 진주시는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커다란 정책적 전환을 하게 된다. 문화를 사회, 경제, 환경과 더불어 도시 행정의 4대 기둥의 하나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일이다. 둘째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파이럿 도시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를 통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법정 문화도시가 되려고 하였다. 지난 5년간의 노력하는 가운데, 2019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UCLG 파이럿 프로그램을 완수하였으며, 올해는 법정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3.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주문화를 국제화하는 일이었다. UCLG 파이럿 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 진주시의 문화현황과 문화정책을 자체 평가한 결과에서도 진주시가 고유한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전승해 온 데 반해, 그것을 창의적으로 산업화하고 국제화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진주시 문화자산을 국제화하기 위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진주 민속예술/전통공예 비엔날레>, <진주 아티스 인 레지던스>, 그리고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 저널> 간행 사업이다. 이것과 더불어 넷째, 국제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도시들과의 지식,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해외의 예술가들을 진주에 초청하여 한달간 머물며 진주의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진주의 문화자산을 국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주의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국제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게 하고, 진주의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창의도시들의 예술가들을 초청함으로써 개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개발협력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해외 예술가들이 진주에 와서 활동한 기간은 10월 전후 1달간이었지만,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개되었다.

먼저 지난 6월 진주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어서 7월부터 해외도시들에 대해서 진주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 안내와 홍보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모에 지원한 여러 해외 예술가들 중 개발협력 대상에 속하는 도시의 예술가 세 사람을 선정하였다. ①인도네시아 암본시의 리오 에프루안, ②태국 치앙마이시의 피앵라위 시리숙, ③트리니다드 토바고 프트오브스페인의 사첼 토마스씨가 선정되었다. 8월에는 그들과 협업할 지역의 단체를 공모하였는데, ㉠푸른버들예약원(대표 남선희), ㉡전통예술원 놀제이(대표: 유진),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대표 강동열) 이 선정되었다. ①-㉠, ②-㉡, ③-㉢는 한달 간의 협업 기간을 통해서 협업 공연을 기획하고 공동연습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들 공동작업의 결과는 10월 20일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발표되었다. ①-㉠팀은 인

도네시아 암본의 음악과 진주의 춤을 결합한 협업 작품을 선보였다. ②-㉡는 진주의 탈춤과 태국의 란나춤을 결합하여 역병 퇴치를 위한 구나춤(역귀를 물리치는 춤)을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③-㉢팀은 한국의 전통장단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스틸팬이 어울리는 음악을 공동창작하였다.

세 팀 모두 진주의 민속예술가들과 해외의 민속예술가들이 협업함으로써 각각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새로운 미적 경험을 추구하자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5.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는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와 더불어 격년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이다. 작년에는 전통공예비엔날레가 열렸었고, 올해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7일간에 걸쳐서 민속예술 비엔날레가 열렸다. “다양성-창의성의 토대”를 주제로 걸고 열린 올해 행사에는 레지던스 참가 도시를 포함하여 모두 9개 창의도시의 민속예술단이 참가하였



다.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합류하기 전인 2019년 6월에 열렸던 제 1회 행사에서 6개의 참가도시 중 필리핀의 바기오시 하나만 창의도시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참가도시 모두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였고. 음악 창의도시인 암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이었다. 지난 5월부터 창의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참가도시 공모와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차회의에 참가한 진주대표단의 홍보를 통해서 모두 12개 도시가 참가 신청을 접수했다. 예산 상의 이유로 그 중 7개 도시만 초청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이지리아의 비다, 태국 수코타이, 미국 파두카, 부르키나 파소의 와가두구, 필리핀의 바기오, 인도네시아 암본, 이집트의 애스완 등 7개 해외공연팀의 54명의 예술가들이 진주시의 7개 공연단체 48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 태국 치앙마이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예술가의 예술가 2명도 참가하였다. 행사는 개막공연과 폐막공연, 본공연, 택배공연, 교류회와 워크숍, 레지던시 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개막공연과 본공연은 진주시내에 자리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행해졌고, 폐막공연은 진주성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예술택배공연은 관봉초등학교, 지수면의 고택 등 진주시 외곽의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거주지 등에서 진행되었다. 예술택배 공연은 사회적 포용성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행사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속예술을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하며, 진주시의 민속예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에 잘 부합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유네스코의 관심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세도시가 참여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잘 실현한 이벤트였다. 특히 폐막공연의 경우, 한국의 전통악기와 장단에 맞추어 모든 출연자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광경이 연출되어 관람자들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폐막공연을 관람한 창의도시 대표자들은 국제 문화교류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 창의도시의 미션을 실현한 놀라운 이벤트라고 평가하였다.

비엔날레에 참가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준 각 도시의 예술가들과 대표단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6. 진주시는 올해 매우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난 7월 브라질 산토스에서 개최된 제 14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차회의에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신중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병훈 창의도시 운영위원장, 강동민 문화관광국 문화산업팀장, 성윤학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장이 참석하였다. 신중우 부시장은 시장포럼에 참석하여 진주시의 창의도시 활동을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간행을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정병훈 위원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미팅에 참가하여, 진주시의 국제교류행사인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진주아티스트인레지던스 등을 홍보하였다. 그는 공예 및 민속예술 클러스터 연차회의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열리는 10월 하순 진주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도시들의 호응을 얻어내었다.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서 올해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진주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회의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7.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 연차회의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동안 진주시 진주지식산업센터와 진주시 일원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서브네트워크(의장 메리 해몬드, 파두커 포칼포인트)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의 연차회의 준비팀이 주관한 것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크게 4 가지였다. 첫째, 2021 신규 가입도시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것, 둘째, 연차회의의 주제인 “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의 가능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것, 셋째, 서브네트워크 내의 여러 위원회 활동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것, 다섯째, 서브네트워크 도시들간의 친목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다. 이 회의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서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59개 회원 도시 중 30개 도시(오프라인 11, 온라인 19)에서 50명(오프라인 25명, 온라인 26명)의 포컬 포인트 혹은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외에 음악 도시 암본에서 1명의 포칼포인트가 발표자로 참가하였다. 참가도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참가: Aswan, Baguio, Bida, Carrara, Gimhae, Icheon, Jinju, Ouagadougou, Paducah, Santa Fe, Sukhothai, Ambon(음악), 온라인 참가: Al Ahsa, Bursa, Chiang Mai, Como, Duran, Fabrino, Gabrove, Kanazawa, Kuthaya, Manises, Nakuru, Nassau, Perth, Porto-Novo, San Christobal, Sasayamam Suzhou, Trinidad, Weifang 총 31개 도시.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개최된 첫날 회의에서는 먼저 박초연 교수(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의 사회로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정병훈 진주시 포컬 포인트(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가 개회사를 하였고, 이어서 메리 하몬드 서브네트워크 의장이 환영사와 더불어 회의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진주시를 대표하여 환영사를 하였고, 한경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데니스 백스 UCCN 사무국 담당자가 영상으로 축사를 하였다.

이어진 세션 1은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오사카 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팬데믹 이후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의 기조발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2012년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들의 소개가 있었다. 김해시와 비다(Bida)시가 먼저 발표를 하고, 진행 일정 때문에 다른 도시들 소개는 그 다음 날로 미루어 졌다. 저녁 7시부터는 진주시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20일, 둘째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세션 2는 전날 진행하지 못했던 신규도시 소개가 앞서 진행되었다. Como, Manises, Perth, Weifang이 도시와 주요활동을 소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창의분야간의 융합과 협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으로 활기가 있었다. 위티야 피통 나푸(수코타이 공동포컬 포인트, 나레수안 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 1: “융합과 협업”, 피터 아이브(산타페, 전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발제 2: “공동체 내의 창의적 지식의 역할”, 주세페 비아기니(카라라,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 발제 3: “UCCN 거버넌스의 새 길: 국가 코디네이션과 새로운 UCCN 규정 :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비토리오 살모니 (파브리아노 포컬 포인트, 이탈리아 창의도시 국가 코디네이터)
 - 발제 4: “네트워크 간 창의성 협업”, 로니 로피스(암본, 포컬 포인트, 파티무라대학 교수)
- 신중우 부의장 주최로 저녁 만찬이 행해졌고, 이후 시간에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남강 유등축제를 나룻배를 타면서 관람하였다.

셋째날에는 세션 3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각 도시의 포컬포인트들만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미팅이었다. 이 미팅은 시간대가 다른 전 세계 각 대륙에서 많은 포컬포인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각각 한번씩 진행하였다.

이날 비즈니스 미팅은 모두 메리 하몬드 의장이 진행하였다. 먼저 메리 의장은 코디네이터 보고를 통해서 신규도시 선정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2021년에 19개 후보 도시 중 1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어서 멤버십 모니터링 리포트 심사 내역을 보고하였는데, 현재: 2021년에 제출된 20개 도시들의 보고서가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UCCN 산토스 연차 회의의 결론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각 도시의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앞으로 네트워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산토스 회의에서 결정한 지역 코디네이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섯 개 지역의 대표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 Africa: 6 cities—Gitau Thabanja, Nakuru (Kenya)
- 2) Arab States: 7 cities—Al-Ahsa (Saudi Arabia)
- 3) Asia & the Pacific: 21 cities—Byung Hoon Jeong, Jinju (Republic of Korea)
- 4) Europe & North America: 15 cities—Anabela Dias, Barcelos (Portugal)



5) Latin America & Caribbean: 10 cities—Marianne Gaudêncio, João Pessoa (Brazil).

이어서 우리 서브네트워크에 속한 각 위원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먼저 웹사이트 위원회의 주세페 비아기니 대표는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계획 발표하였다. 우리 서브네트워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게 된다. 거버넌스 위원회의 피터 아이브 대표는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그룹 거버넌스 규정”을 발표했고, 채택 여부를 내년 3월 리모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서 서브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창의지식재단 창립자 조세페 비아기니씨가 “창의도시의 빵” 프로젝트의 중간보고, “실의 연결, 문화의 연결”(“Connecting Threads, Connecting Cultures”) 계획을 발표하였다. 진주시는 이 두 프로젝트 모두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세션의 마지막에 <북아메리카 창의도시 선언>에 대한 지지를 공유하기로 했고, 2023년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3월 23일-25일 리모주(프랑스)에서 개최할 것을 공지했다. 또한 현재 공식으로 있는 서브네트워크 부의장도시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저녁 만찬 이후에 진주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를 다함께 참관하였다.

연차회의를 마치고, 메리 하몬드 이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은 짧은 준비 일정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회의를 준비해 준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와 연차회의 개최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대표들을 용서히 대접해 준 진주시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번 연차회의가 앞서 언급한 회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8. 진주시의 국제 활동은 진주시가 다른 도시들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스킨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창의도시와 관련된 사업, 행사, 회의를 주관하는 진주시의 창의도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진주시민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며, 사회적 포용력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정병훈

(진주시, 포컬포인트)



파두카에서 진주로

켄터키 주 파두카 시는 미국 중남부 시골 지역에 있다. 인구는 약 25,000명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에는 공예와 민속 예술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들이 많이 있다. “미국 퀼트 도시(Quilt City USA)”로 잘 알려진 파두카는 퀼트 제작자들에게 영감과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 퀼트 박물관이 있는 곳이다. 오하이오 강, 컴벌랜드 강, 미시시피 강, 테네시 강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교통과 휴양 및 교류의 중심지가 되면서 도시의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파두카는 지난 2년 동안 유네스코 창의도시 행사에서 대한민국 진주와 협력해 왔으며 개인적으로 진주에서 파두카를 대표하는 영광을 누렸다. 나는 예술가이자 예술 관리자로서 섬유와 혼합 미디어 작업에 중점을 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사 깊은 파두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 아트 센터, 예이저(Yeiser) 아트 센터의 전무이사로도 일





하고 있다. 전통예술과 공예 실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들을 찾아가거나 지역 사회 행사를 통해 예술을 교육하는 것을 나의 최우선 임무로 여기고 있다.

2021년 가을,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에 나의 섬유 작품을 전시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작품은 버려진 데님과 카키색 작업 바지를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퀼트 연결을 탐구한 것이다. 특히 페르난도 자카리아(Fernando Zaccharia), 손챗 창타와랑(Sonchat Changthawarang), 행사 코디네이터인 정병훈 교수와 원탁토론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 공예인, 큐레이터, 교육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엄청난 영광이었다. 나는 한국, 베냉, 이탈리아, 태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의 장인들과 교류하였다. 이번 한국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내가 진주라는 도시와 이토록 사랑에 빠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주와 파두카는 전통 직물의 역사, 아름다운 강 풍경, 특별한 레스토랑들, 따뜻하고 친절할 주민들 등 공통점들이 무척 많았다.

2022년 가을 진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JWFB)를 위해 두 번째로 진주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들뜬 마음으로 파두카의 참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에이저 아트 센터의 전무이사로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 최대의 음악 및 예술 축제인 로어 타운 예술음악 축제(Lower Town Arts & Music Festival:LTAMF)의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축제

는 매년 봄 파두카의 유서 깊은 로어 타운 지역에서 개최되며 행사 기간 동안 약 20,0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우리 지역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더 휠하우스 루스터즈(The Wheelhouse Rousters)는 "미국 내륙 수로의 소리를 공유하는(sharing the sounds of the American inland waterways)" 지역 그룹으로서, 진주에서 파두카를 대표하여 완벽하게 연주했다. 사운드를 완성하기 위해, 로어 타운 예술음악 축제의 음악 감독이자 첼리스트인 세스 머피(Seth Murphy)가 우리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행하면서 나는 2년 새 두 번째로 이 지역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진주에 도착한 후 진주세계민속비엔날레를 준비하느라 많은 리허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광과 새로운 동네 탐방, 향토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계획된 워크샵에서 뿐만 아니라 연습과 공연 중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간 협력이었다. 한국, 부르키나파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미국, 이집트 등에서 온 사람들과 새로운 우정을 쌓았다. 식사를 함께 하고 환상적인 공연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웠다. 우리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며 함께 진주 시내와 주변 일대를 탐방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언어장벽을 초월하여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였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 간의 교류는 함께 개최된 협력 행사의 개수나 전체 참가자들과 지역사회들의 숫자와 같이 즉각적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시들이 서로에게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친구들의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다. 진주에서 열린 행사들의 예술, 음악, 공연은 이제 여러 새로운 나라들로 이동하여 소셜 미디어, 인쇄 출판물, 혹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공유될 것이다. 앞으로의 조리법들, 언어들, 그리고 연구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그 특별한 행사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진주는 국제교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했다. 진주는 이제 내 마음 속에 살고 있으며, 진주의 노력 덕분에 만나게 된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함께 진주의 예술과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렉시 밀리칸

(Executive Director of Yeiser Art Center, Paducah)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문화유산

이탈리아 텍스타일 벨리의 중심 코모
콘스탄스 페라리니

Como at the Heart of the Italian Textile Val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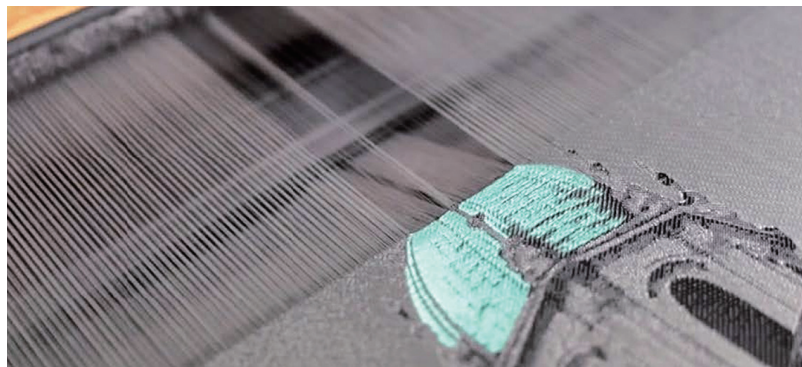


In 2021, the city of Como was designated a UNESCO Creative City and joined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UCCN). Located at the heart of the Italian Textile Valley, Como is founded on its textile industry heritage. Craftsmanship and the textile industry played such a decisive role in characterising the landscape of the Como district that it can be considered the Italian Textile Valley due to its representation of the range of skills involved in textile manufacturing. In “Storia di Milano,” Alessandro Visconti states that Ludovico Sforza was called “il Moro” (the Moor) for having disseminated mulberry (morus) trees, crucial for cultivating silkworms. Manufacturing activity was established in the eighteenth century on the initiative of Maria Theresa of Austria. With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Como took leadership in the sector and underwent an architectonic shift: one fifth of the valley was occupied by factories, and the lake and valleys



were filled with spinning mills. In the hills, mulberry trees to support sericulture were planted alongside the vines. The most prominent silk cocoon market in Brianza (located in Inverigo, a village nearby) remained active until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district's textile production chain is one of the most complete and varied in the world: production, washing, weaving, dyeing and of course packaging and selling of fabrics and finished products; all these processes developed in the



Como area during the years making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silk districts in the world. The District of Como has a great responsibility: to reach the future through the past, to protect the long-lasting legacy of previous generations and at the same time to continue to invest in research and innovation. Como is a leading city in the Italian textile industry. Today, it produces 70 percent of European and about 30 percent of the world's silk. The textile industry in Como has a deep tradition.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ar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are constantly improved.

The pairing of craft and creativity is the cornerstone of the “Made in Italy” brand. It is the distinctive element and Como is at the heart of the Italian Textile Valley, an area founded on the textile industry. The textile sector is one of the fullest expressions of the “Cultura del Fare” (Culture of Making) and the importance of Made in Italy products. The textile industry has deep-rooted traditions and is regarded as a huge patrimony of experience and technical and artistic skill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ontinuing to improve over time. This is thanks to the constant push for innovation, which is ensured by the support of excellent training centers and promoted by the commitment and creativity of the industry’s artisans and textile manufacturers.

Thanks to the engagement of all the institutional, entrepreneurial and scientific realities of the district, the vision for Como, the City of Sustainable Fashion, has been achieved. Como Creative City shines the spotlight on craftsmanship and the Culture of Making and puts strategies in place for a circular economy that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regeneration and inclusion.

The industry focuses on intricate and complex production methods, where improvisation is not an option; the art of silk craft, along with the tradition of sericulture, plays a fundamental role.

The Cultura del Fare and the craftsmanship of Como’s textile producers offer a viable starting point for protecting the Italian textile industry and the authenticity of its produc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e textile industry must be seen as intangible infrastructure, a patrimony of knowledge invaluable for recovery. Como is the most advanced city in Italy with regard to the variety of training opportunities, not only in the field of textile design but also in the technical and scientific fields related to the sector. The district has a robust student community which gathers a huge volume of students (over 3,000) of different age groups.

Como’s textile vocation is backed by scientific input from a host of exceptional training institutions: the Setificio school, the oldest textile school in Italy (1868) and the only one to offer a course in textile design; the University of Insubria, which promotes research,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in its textile chemistry courses; and the Silk Museum, which preserves the traditions of the industry’s production methods.

In joining the Creative Cities Network, Como has pledged to place culture and creativity at the heart of its sustainable development. Como’s efforts to integrate culture and creativity into its post-pandemic recovery plan which is particularly inspiring in this regard. Like all member cities, Como is expected to place the 2030 Agenda at the heart of its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lans, especially SDG 11, “Make cities inclusive, safe and resilient.”

As a Creative City of Crafts and Folk Art, the following steps will be

important:

- Putting in place strategies for a circular economy that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urban regeneration and inclusion;
- Making its centers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available to other UCCN member citie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exchange and development of best practices; and
- Sharing experiences, knowledge, and best practices while collaborating within the UCCN on innovative projects.

Costanza Ferrarini
(Focal Point of Como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3, 2022

UCCN 도큐먼트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 결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 14차 연차회의의 결론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

Foro de Ciudades Creativas de Norteamérica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 결론 대한민국, 진주 19-21 October 2022

결론

메리 하몬드 의장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2022년 연차 회의가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참석하거나 Zoom을 통해 가상으로 서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회의에는 59개 서브네트워크 회원 도시 중 31개 도시(오프라인 12개, 온라인 19개)에서 총 51명(오프라인 25명, 온라인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서브네트워크에는 59개의 회원 도시가 있습니다. 회의는 50% 이상의 참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를 주최해 주신 진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연차 회의 및 관련 활동의 준비와 조직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보조뿐만 아니라 베풀어주신 넉넉한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정병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현지 직원과 하이브리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사, 사회자 및 각 도시 대표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문가인 진주교육대학교 박초연 교수와 태국 나레수안 대학교 건축, 예술 및 디자인과 위티야 피통나푸 교수가 각각 연차 회의 첫날과 둘째날의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는 2021년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에 10개의 새로운 도시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각 새로운 도시의 포칼포인트들이 연차회의에서 그들의 도시를 소개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10개의 신규 회원 도시 중 6개 도시가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은 “팬데믹을 넘어선 창조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오사카시립대학교의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가 맡았습니다. 사사키교수는 창조 도시와 창조 경제라는 새로운 분야의 국제적 리더입니다. 일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교수는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온 일본의 중규모 창의도시 두 곳을 예로 들었습니다. 3가지 트렌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이들 도시는 다양한 전통공예와 공연예술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현대미술과 기술과 연계하여 미래공예의 발전을 도모하고 생명-문화 다양성의 새로운 콘서트를 대중화시켰다.
2. 전통적인 성곽 도시와 타운 하우스들은 보존되어 아늑한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개조되었으며, 젊은 공예가와 예술가는 창의적인 관광을 통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3. 창조관광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지역 고유의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진정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몇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션 2에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 서브네트워크와 음악 창의도시에서, 4명의 연사가 참석했습니다.

1. 산타페(미국)의 피터 아이브스(Peter Ives)는 산타페 시에서의 "융합과 협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이브스 씨는 <문화연결 보고서>에 요약된 심층 성찰 과정과 산타페 시가 지속 가능성, 다문화 커뮤니티의 다양성, 경제적 미래와 번영에서 문화와 창의성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했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는 특히 시장 프레젠테이션 및 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 관광 진흥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2. 쥬세페 비아기니 (카라라, 이탈리아, 창의지식재단, 투산, 미국)은 ““공동체 내의 창의적 지식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비아기니씨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협력프로젝트에 속하는 7개 클러스터 구성원 간의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창의지식의 역할과 "창의적 사람들"의 작업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는 창의지식재단(CKF)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CKF 모델, "미래는 당신의 발밑에..."를 사용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고, CKF가 "창의도시들의 빵"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UCCN 회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3. 비토리오 살모니 (포칼포인트, 파브리아노, 이탈리아)는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식: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칙: 파브리아노 시의 두 가지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살모니씨는 새로운 개발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산업 도시의 실패한 경제가 창의성과 문화에 중점을 둔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조정 그룹'을 구성하는 13개의 이탈리아 창의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창의적 이탈리아 - 이상적인 도시" 프로젝트와 함께 파브리아노에서 UCCN 연례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는 UCCN 내 이탈리아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탈리아 정부, 유네스코 이탈리아 국가위원회, 유네스코 이탈리아 상임 대표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UCCN 내에서 이니셔티브 및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정보 교환을 장려합니다. 국가 조정 그룹은 이탈리아 도시의 가시성과 클러스터 간 협업 참여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국가 차원에서 창의성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 개발 및 관광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듭니다. 국가 조정 그룹은 회원 도시, 주제별 네트워크 간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유산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도시와 유네스코 사이트 간의 활동들을 코디네이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로니 로피스(포칼포인트, 암본, 인도네시아 음악 창의도시)는 "네트워크 간의 창의적 협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로피씨는 음악 창의도시와 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의 강점이 되는 도시 문화의 유사점을 공유하여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2022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 행사를 통해 진주시가 선보인 컨퍼런스와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인 "크래팜플러스 (CraFAM+)"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작은 섬들에 창의도시를 개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성: 창의성의 기초"라는 주제로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들, 아티스트들, 관계자들 간의 경험과 모범 사례의 공유를 강조한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조직과 실행에 찬사와 감사를 전합니다. 비엔날레는 또한 예술가들에게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다른 소외된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연차회의와 비엔날레에 참석하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2030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브네트워크 간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유네스코의 원칙을 지원하고 홍보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연차회의 성과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연차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강력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주제인 "창의분야 간의 융합과 협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립니다.
2. 2022년 7월 브라질 산토스에서 열린 제 14차 UCCN 연차 회의의 결론을 수락합니다.
3.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지속가능한 창의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커뮤니티의 창의적인 지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 도시의 시장 및 거버넌스와 협력합니다.
5. 네트워크 간의 협업을 촉진합니다.
6. 성장하는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내에서의 질서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첨부 1).
7. 서브네트워크 내에 상임 위원회(상설 위원회) 및 임시 위원회(특정 작업을 위해 임명된 임시 위원회)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지지합니다
 - a. 유네스코 창의도시 웹사이트에 정의된 대로 5대륙 지역별로 지역 코디네이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5개 도시가 자원하여 지역 코디네이터로 봉사합니다. (상임위원회)

- 1) 아프리카 - 나쿠루(케냐)
 - 2) 아랍 국가 - 알 아샤(사우디아라비아)
 - 3) 아시아 및 태평양 - 진주(대한민국)
 - 4) 유럽 및 북미 - 바르셀로스(포르투갈)
 - 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 조아오 페소아(브라질)
- b.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 조정 및 평가하는 과학위원회(상임위원회)
 - c. 거버넌스 및 프로토콜을 정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코디네이터 및 부코디네이터의 선출 및 의무, 연례 회의 및 특별 회의, 정족수 및 투표, 회원 도시 포탈 포인트의 의무 등을 정의합니다. (임시위원회)..
 - d. 신입회원 환영 패킷 작성을 통해 신입 회원의 동화를 지원하는 회원 위원회(임시 위원회)
 - e. 서브네트워크 웹 사이트 제작을 연구하고 서브 네트워크에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웹 사이트 위원회(임시위원회)
 - f. 연차회의 조직 및 홍보에서 서브네트워크의 다음 번 연차 회의가 열리는 회원 도시를 지원하는 연차회의 위원회. 차기 연차 회의가 열릴 회원 도시가 이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임시위원회).
8. UCCN 프로젝트인 “창의도시의 빵”(Breads of the Creative Cities)와 새로운 프로젝트인 “창의도시의 직물과 섬유”(Textiles/Fibers of the Creative Cities)에 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9. 2022년 8월 멕시코 케레타로에서 열린 북미 창의도시 선언에서 채택된 선언을 지지합니다(첨부).

전망

2023년 프랑스 리모주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

이제 우리는 현재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리는 공예 및 민속 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이 4개월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저

는 개최 도시에 가능한 한 빨리 2023년 리모주 연차 회의 임시위원회에서 봉사할 회원을 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2 하이브리드 연차 회의의 계획 및 조정에 대해 진주시와 긴밀히 협력한 경험이 있는 본인은, 진주가 이 위원회에서 일할 사람 한 명을 지명하여 시기와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을 돕습니다.

2022년 서브네트워크 연차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23년 리모주에서 열리는 서브네트워크 연차 회의에서 제정될 거버넌스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된 거버넌스 규칙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강화하고 향후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

참고: 코디네이터는 2022년 11월 22일에 리모주 시(프랑스)가 2023년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23 XV UNESCO Creative Cities Annual Conference, 이스탄불, 터키

2023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차총회는 “미래를 보장하는 도시”라는 주제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됩니다. C&FA 서브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서 저는 이 중요한 회의 계획에 대해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정보가 접수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 배포됩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연차회의 참석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차회의에 대한 생각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유네스코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UCCN 다가오는 문제

유네스코는 현재 창의도시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UCCN은 20주년을 맞

이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향을 결정할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UCCN 참여의 영향을 측정하는 일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정보는 매우 가치있을 것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UCCN의 영향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더 완벽하게 준비할수록, UCCN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첨부 2 Santos 회의 결론

첨부 1 거버넌스 규칙

UCCN의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그룹을 관리하는 첨부된 규칙은 다음 서브네트워크 회의에서 비준된 후 발효됩니다.

첨부 3 사진 및 비디오 링크

다시 한번 진주시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진주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며, 많은 창의적인 음악가와 무용가들이 모여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들의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도록 한 진주시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즐겨주세요.

[포토 아카이브] 2022 UCCN 공예 및 민속 예술 하위 네트워크 연례 회의

http://creativityjinju.kr/bbs/board.php?bo_table=shorttermproject&wr_id=6

[동영상 링크] 2022 UCCN Crafts and Folk Art Sub-Network Annual Meeting(1일차)

http://creativityjinju.kr/bbs/board.php?bo_table=shorttermproject&wr_id=5

[동영상 링크] 2022 UCCN Crafts and Folk Art Sub-Network Annual Meeting (2일차)

http://creativityjinju.kr/bbs/board.php?bo_table=shorttermproject&wr_id=4

[동영상 링크] 2022 UCCN Crafts and Folk Art Sub-Network Annual Meeting (3일차)

http://creativityjinju.kr/bbs/board.php?bo_table=shorttermproject&wr_id=3

[영상링크] 2022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http://creativityjinju.kr/bbs/board.php?bo_table=shorttermproject&wr_id=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 14차 연차회의의 결론

JULY 202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사무국과 회원들은 네트워크의 제 14차 회의를 위해 브라질 산토스에서 모였다.

우리는 주관도시 산토스의 융숭한 대접에 대해서, 또 브라질이 행사 준비와 조직을 지원하고 도와 준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한다.

우리는 컨퍼런스를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한 국제, 국가, 지역의 스태프들의 노고와, 모든 시장들, 대표들, 그리고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그밖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그 목표를 위한 유엔의 2030 아젠다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유네스코의 권한과 원칙을 강력히 준수함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강화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2030 아젠다의 틀 내에서 '10년간의 행동'을 지지하고 도입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같이 한다.

전지구적인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도시들 간의 또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과 좋은 실천 사례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우리는 COVID19 이후의 회복과 도시의 미래 발전에서, 문화산업과 창의산업의 완벽한 통합에서 문화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위해 활동한다.

따라서 제 14차 UCCN 연차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도시들 사이의 협력과 혁신을 위한 유네스코의 플래그십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그것의 역량을 토대로: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양성, 연대,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한 유네스코의 근본적 가치를 지지한다.
2. 문화가 갖는 최고의 중요성, 특히 위기의 시대에 문화 유산,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창의적 자산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일의 필요성, 그리고 문화와 창의적 섹터가 회복과 재생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3. 문화와 창의성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잠재력과 그것들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촉매로서 갖는 역할을 재확인한다.
4.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는 일에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로서의 도시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5. 도시 발전에서의 핵심적 주창자이자 실행자인 지역의 의사결정권자, 특히 시장으로 하여금 문화와 창의성이 추동하는 지역 정책과 행동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들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멤버십을 육성하고, 창의도시들의 지역적, 지방적, 국제적 봉사과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6. 유네스코의 우선 관심 지역, 특히 아프리카와 작은 도서 지역(SIDS)의 개발도상국 등과 기술과 혁신(특히 인공지능), 성평등, 청년들의 참여유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과 행동, 국제협력, 포스트 팬

데믹 회복 등에서 활동의 공조를 강화한다

7. 유네스코의 우선 관심대상지역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발전 아젠다와 포럼에 대한 UCCN의 기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그 구성원들이 명백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유일무이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제별 사업과 내용을 발전시킨다. ;

8. its e1. 각기 다른 창의분야를 넘나드는 이벤트, 교류사업, 연계 사업을 통해서 구역 간의 협력과 교차협력의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

9. _멤버십 모니터링 리포트의 가치를 지식, 정보 그리고 좋은 실천 사례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미션 진술에 대한 회원도시들의 확고한 준수의 증표로서 강조한다. 나아가 이 보고서들을 더욱 활용하고 홍보하도록 한다.

10. _코디네이션 그룹(CG) 멤버들이 부의장으로 시작해서 첫 번째 재임기간이 끝나면 의장의 역할을 이어받음으로써 최대 2년씩 연속 2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CG의 순환 기제를 지지한다. 유네스코의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는 이 기제는 지역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며, CG의 연속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2023년 연차회의 기간 동안 CG 교체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컨설팅을 통해서 도입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11. _회원도시들의 활동과 사업뿐만 아니라, 연차회의의 조직과 같은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에 대한 고찰과 환경적 요인의 통합을 통해서 기후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12. _포스트 COVID 19 회복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지식, 경험, 좋은 실천사례의 공유를 통해서 보다 의미있고, 통찰력있는 문화와 창의성의 통합을 지지한다.

13. _지역적 수준에서, 특히 문화와 창의성의 근본적인 기여를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서 업적과 진보를 증명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발적인 지역적 논

평, 그리고 그밖의 국제적 보고와 모니터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14. 네트워크의 주요 이벤트, 특히 연차회의에서 현장의 인적 참여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디지털한 참여를 통해서 네트워크에의 포용성과 참여를 증대하는 일을 권장한다.

15. **Promotes** UNESCO's t1. 특히 유네스코 도시 플랫폼(UCP)을 통해서, 기구가 수행하는 도시 중심의 혹은 도시 관련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사이의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접근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트랜스버설한 접근을 강화한다.

16. 가장 탁월한 UCCN 사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학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협업적 창의 프로젝트 등을 권장한다.

17. “미래-증명 도시”라는 주제 아래, 2023년 이스탄불 시에서 개최될 15회 연차회의를 환영한다.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

우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Craft and Folk Art Subgroup, C&FA)에 등록된 도시들은 C&FA의 행정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UCCN 규칙을 인정하며, C&FA 규칙과 UCCN 규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UCCN 규칙을 따른다

우리는 C&FA 회원도시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C&FA의 행정과 운영에 관한 일관성, 투명성,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C&FA 규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본 C&FA 규칙의 일부로서 UCCN 사명선언문, 전략 프레임워크, 회원 지침 및 유네스코 2030 의제를 인정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본 문서에 각각 별첨 A, B, C, D로 첨부되어 있다(총칭 ‘유네스코 거버넌스 문서’로 통합).

우리는 유네스코 거버넌스 문서와 C&FA 회원도시 모두로부터 행정과 운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I. C&FA 조직 구조

A. C&FA 조직 구조조직 구조

C&FA 의장도시 및 부의장도시 선출 절차

C&FA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를 둔다.

1. C&FA 의장도시 또는 C&FA 부의장도시를 수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서브네트워크 회원도시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통지는 연례회의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회원도시들에게 발송된다.
 - a. C&FA 의장도시로 약 2년 또는 C&FA 부의장도시로 약 2년을 역임하겠다는 서약과 신임장 등을 포함하는 공식 의향서를 현 의장도시에게 제출해야 한다.
 - b. C&FA 의장도시에게 창의도시 시장의 지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c. 의장도시 또는 부의장도시 직책에 지원하는 C&FA 회원도시들은 최소 2년 동안 UCCN 회원이어야 하고, C&FA 연례회의 및 UCCN 연례회의에 각각 최소 1회 참석해야 하며, 최소 1개의 C&FA 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d.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각각 UCCN이 명시하고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 아랍국가, 아시아·태평양, 유럽·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
 - e.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FA 서브네트워크의 연례회의에서 선출된다.

- f.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 g.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FA 서브네트워크의 연례회의에서 직접 또는 전자적 수단(가능한 경우)을 통해 C&FA 연례회의에 참석한 회원도시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다.
- h. 의장도시가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경우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의 직무를 맡게 되며, 새 부의장도시의 선출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 C&FA 연례회의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 i. 부의장도시가 의장도시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경우, 선출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 C&FA 연례회의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 j.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재선출될 수 있다. 단, 의장도시가 다시 의장직을 신청하려면 2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 k.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재임 기간 동안 서브네트워크의 활동 기록을 관리하여 C&FA 웹사이트의 아카이브에 보관해야 하고, C&FA 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C&FA 의장도시와 C&FA 부의장도시의 임무 및 의무

의장도시

C&FA 의장도시와 C&FA 부의장도시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의무를 갖는다.

- a. C&FA 의장도시는 C&FA 내에서 그리고 유네스코 및 UCCN과의 소통 측면

에서 주요 연락 담당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b. C&FA 의장도시는 UCCN 운영위원회에 임명된 C&FA 회원도시로, C&FA 회원도시들을 대표하여 UCCN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UCCN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할 책임이 있다.
- c. C&FA 의장도시는 C&FA, UCCN 및 유네스코 간의 소통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의장도시는 회의에서 C&FA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CN과 유네스코의 계획과 의제를 C&FA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 d. C&FA 의장도시는 UCCN 연례회의 및 C&FA 연례회의에 필요한 기획이나 조정에서 C&FA를 이끌어야 하고, 필요 시 C&FA 회원도시들, 기타 UCCN 도시들 및 서브그룹과 협력하여 UCCN 회의와 행사를 조정해야 한다.
- e. C&FA 의장도시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 f. C&FA 의장도시는 UCCN 연례회의 및 C&FA 연례회의에 필요한 계획 및 조정에서 C&FA를 이끌어야 하고, 필요 시 개최 도시, 기타 UCCN 도시들 및 서브그룹과 협력하여 UCCN 회의와 행사를 조정해야 한다.
- g. C&FA 의장도시는 서브네트워크 활동, 프로토콜, UCCN 진행상황, 서브네트워크 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든 상시 기록을 서브네트워크 웹사이트 아카이브에 업로드하도록 해야 한다.

- h. C&FA 의장도시는 가능한 한 많은 C&FA 회원도시를 참여시켜 C&FA 후보 도시의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서브네트워크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 여기에는 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 전달이 포함된다. 평가 완료 후 C&FA 의장도시는 재검토/권고사항을 요약하여 UCCN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i. C&FA 의장도시는 C&FA, UCCN 및 유네스코와의 모든 소통과 계획에 C&FA 부의장도시를 최대한 참여시켜야 한다.
- j.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 사이의 관계는 C&FA 회원도시들을 대신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의장도시

- a. C&FA 부의장도시는 C&FA의 보조 연락 담당자이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b. C&FA 부의장도시는 UCCN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서브네트워크의 공식적인 회원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c. C&FA 부의장도시는 가능한 한 많은 C&FA 회원도시를 참여시키고 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C&FA 회원도시들의 '회원도시 모니터링 보고서'(Membership Monitoring Report, MMR)를 평가하기 위한 서브네트워크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 MMR 평가 완료 후 C&FA 부의장도시는 평가를 요약하여 C&FA 의장도시와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C&FA 의장도시는 그 평가 결과를 UCCN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B. C&FA 운영위원회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FA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보좌한다. 이 지역 대표들은 UCCN이 명시하고 있는 대륙인 아프리카, 아랍국가, 아시아·태평양, 유럽·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을 대표하며, 대륙별로 각각 한 명씩 구성되어 있다.

1. C&FA 지역 코디네이터는 C&FA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및 C&A 회원도시 간 소통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 C&FA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발생할 경우 회의 개최 전에 C&FA 회원도시들에게 UCCN과 유네스코의 계획과 의제를 전달하며, 그 회의의 결과를 C&FA 회원도시들에게 전달하는 데 의장과 부의장 도시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C&FA 회원도시들이 추진하는 UCCN 관련 활동의 공동 의제를 유지하면서 UCCN과 C&FA 회원도시 간 연락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C&FA 지역 코디네이터는 특정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특정 이벤트나 이니셔티브를 위한 협업이나 지식 및 역량 이전을 진행하기 위해 지리적인 기반에서 C&FA 회원도시들과 협력해야 한다.
3. C&FA 지역 코디네이터는 예비 후보도시가 UCCN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새로 지정된 도시를 가입 첫 해에 UCCN에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4. C&FA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선출 후 약 2년이며,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5. C&FA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대륙별 해당 지역(아프리카, 아랍국가, 아시아·태평양, 유럽·북아메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회원도시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선출해야 한다.

6. C&FA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C&FA 운영사무국이 작성한 제안에 따라 C&FA 의장도시가 임명한다.
7. C&FA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C&FA 연례회의에서 발표할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8. 각 C&FA 지역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활동, 지침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서브네트워크가 향후 이용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를 서브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한다.

C. C&FA 학술위원회

C&FA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및 운영사무국은 C&FA 회원도시들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가 보좌한다.

1. C&FA 학술위원회는 C&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 조정 및 평가해야 한다.
2. C&FA 학술위원회의 임기는 임명 후 약 2년이며, 2년차 임기 말에 선거가 실시되는 연례회의 또는 특별회의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 C&FA 학술위원회, C&FA 의장도시, C&FA 부의장도시 및 C&FA 운영사무국 간의 관계는 C&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4. C&FA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전체 활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C&FA 연례회의를 위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D. C&FA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

C&FA 연례회의는 이전 연례회의에 출석한 C&FA 회원도시의 과반수가 직접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정한 C&FA 회원도시의 물리적 위치에서 개최된다.

C&FA 연례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도시는 해당 연도 회의가 개최되기 최소 1년 전에 미리 의장도시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는 C&FA 회원도시들의 연례회의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선출된다.

1. C&FA 특별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 a.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유네스코 또는 UCCN 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 b. 의장도시나 C&FA 회원도시 중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 c. C&FA 회원도시 중 25% 이상이 요청할 경우.

2. 통지

a. 연례회의

- 1) 차기 연례회의를 위한 C&FA 개최도시가 C&FA 회원도시들에 의해 선정된 사실을 연례회의의 요약문을 통해 통보하고, 그다음 해 동안 모든 C&FA 회원도시에게 수시로 전달해야 한다. 의장도시와 개최 도시는 C&FA 회원도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례회의 의제와 시기를 정하고, 연례회의보다 최소 3개월 전에 C&FA 회원도시들에게 해당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C&FA 회원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b. 특별회의

- 1) 위 섹션 II(C)의 요구사항에 따라, C&FA 참가 도시 중 일부 그룹, UNESCO 또는 UCCN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특별회의 개최를 공지한다. 모든 특별회의는 C&FA 의장도시에 의해 그리고 의장도시를 통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특별회의에 대한 통지는 최소 3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모든 C&FA 회원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지는 회의에 참석하는 C&FA 회원도시들이 논의, 해결 및/또는 투표할 특정 이슈에 대한 의제, 그리고 회원도시들이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에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정족수

- a. C&FA 거버넌스 규칙의 채택에 따라, 모든 C&FA 회원도시는 C&FA의 모든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에 직접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참석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C&FA 회원도시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b. C&FA 회원도시들의 지리적 분산과 회의 참석 시 전자 수단의 이용을 고려할 때, 투표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해당 회의 시작 시 C&FA 회원도시의 10%가 출석해야 한다. 일단 정족수가 성립되면, 정족수는 C&FA 회원도시들의 자리 이탈에도 불구하고 최소 10%가 충족될 수 있도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4. 회의 기록

모든 연례회의 및 특별회의는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방송되어야 하며, UCCN 및/또는 C&FA 유튜브 채널에 즉시 게시되어 UNESCO, UCCN 및 C&FA 회원도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투표

각 C&FA 회원도시는 C&FA 회원도시들의 투표가 필요한 각 조치에 대해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실시간으로 투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나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C&FA 회원도시들은 조치 안건에 대한 회의 종료 후 2일(48시간) 이후 오후 11시(파리 현지 시간) 이전까지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회의 종료 후 이 시간대 내에 투표하는 모든 회원도시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녹화된 회의를 시청하고, C&FA 회원도시의 조치에 대해 “예, 찬성합니다.” 또는 “아니요, 찬성하지 않습니다.”라는 통보를 C&FA 의장과 부의장 도시 모두에게 적시에 보내야 한다.

6. C&FA 연락 담당자

- a. 각 C&FA 회원도시는 C&FA 회원도시의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회원도시 연락 대표자)을 임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연락 대표자는 공식적인 소통, 투표 및 C&FA 회원도시의 C&FA 참여 사업 행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를 위해 C&FA 회원도시를 대신한다.
- b. 연락 대표자는 전임 연락 대표자에서 새 연락 대표자로 변경되는 공식 통보가 C&FA 의장도시와 C&FA 부의장도시에게 이메일로 전송될 때까지 C&FA 회원도시를 대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공식 통보는 C&FA 의장도시 또는 C&FA 부의장도시 중 한 명이 수령하여 승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c. C&FA 회원도시들은 C&FA 내의 소통을 위해 최소 1-2개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 C&FA 회원도시는 C&FA 의장도시 및/또는 C&FA 부의장도시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공식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변경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7. 연락 대표자는 C&FA 회원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 a. C&FA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C&FA 지도부와 소통하고, C&FA 회원도시의 투표를 적시에 실시하고, 상기 섹션 2(G)에 규정된 투표 방법과 시기를 준수한다.
- b. C&FA 의장 및 부의장 도시, C&FA 회원도시, UNESCO 및 기타 당사자들과의 이메일 소통을 정기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일주일에 1번 정도 확인, 수신, 회신한다.
- c. C&FA 회원도시의 요구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수시로 C&FA 회원도시를 대신하여 다른 C&FA 회원도시, UNESCO 및 기타 당사자들과 소통한다.
- d. C&FA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회의, 이벤트, C&FA 블로그, 2030의제, 필수 보고, 기타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되, 어떤 경우에도 각 분기 말(3월 31일, 6월 30, 9월 30일 및 12월 31일) 이내에 제공한다. 단, C&FA는 C&FA 웹사이트에 공개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자주 게시함으로써 웹사이트 검색엔진 최적화(SEO)가 향상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8. C&FA 웹사이트

모든 C&FA 회원도시는 C&FA 웹사이트에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 a. 이 웹사이트는 UNESCO, UCCN 및 C&FA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외부 공개 페이지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UCCN 및 각 C&FA 회원도시를 위한 페이지가 포함된다. 각 C&FA 회원도시는 자신의 도시나 지역에 대한 링크를 입력할 수 있다.
 - 1) 이벤트
 - 2) 문화활동, 축제 및 교류
 - 3) 2030 의제 지원
- b. 이 웹사이트는 C&FA의 거버넌스, UCCN이 C&FA에 제기한 이슈 또는 C&FA가 UCCN에 제기한 이슈를 C&FA 회원도시들이 검토, 토론, 투표, 참여할 수 있는 내부 비공개 페이지를 갖고 있다.
- c. 각 C&FA 회원도시는 도시의 행사 및 축제, UCCN 참여를 보여주는 5-10개의 고품질 이미지 요청 시 제공해야 하고, 적어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 d. 각 C&FA 회원도시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일정, 시간 교류 및 기타 활동, 2030 의제 지원을 보여주는 기타 조치 등을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하고, 적어도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2030 의제를 지원하는 이벤트, 교류 및 기타 활동의 자세한 정보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 e. 각 C&FA 회원도시는 C&FA 웹사이트의 생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연간 500달러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 f. C&FA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모든 정보는 영어, 프랑스어 및 C&FA 회원도시가 선호하는 언어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g. C&FA 회원도시들의 회의 기록은 비공개 페이지에 게시되어 모든 C&FA 회원도시가 C&FA의 활동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C&FA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 h. 비공개 페이지에는 향후 C&FA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어하는 도시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 i. C&FA 의장도시는 유네스코, UCCN 및/또는 C&FA의 모든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뉴스레터를 최소 1개월에 한 번 비공개 페이지를 통해 C&FA 회원도시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 j. C&FA 회원도시들은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중요한 이슈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Foro de Ciudades Creativas de Norteamérica

We, the creatives, cultural sector professional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from 26 citi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 and the Caribbean, have gathered in Querétaro from August 10-12 for the North American Creative Cities Forum to dialogue and foster exchange between disciplines and promote the co-creation of social and cultural value.

We recognize that there are deep roots that unite us as a region and that their cultural influence is an inexhaustible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creation of creative goods and services that benefit our communities economically and socially.


We trust in collaboration as the driving force for broad and lasting social transformations, and for this reason we assume the task of working together to face common challenges and detonate creative ecosystems at the regional level. We declare that all intentions must be translated into concrete actions, for which we commit ourselves to:

- 1.-**Work on the construction of a collaborative agenda in which the interests of organized society, universities, government and the creative sector of the 26 cities are represented.
- 2.-**Design and implement projects among the cities of North America that consider the exchange between two or more creative fields considered by UNESCO.
- 3.-**To promote the exchange and stays of creatives from the different cities for the development of capacities and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 4.-**To build a platform for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programs and creative events in the reg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ollowing editions of the North American Creative Cities Forum and to present the progress in the fulfillment of these commitments.

Under these premises we seek to strengthen ourselves as a creative region and expand the scope and impact of best practices that benefit chefs, designers, artisans, programmers, visual artists, musicians, writers and filmmakers in the participating cities.

We aspire to influence the adoption of the creative city concept by other cities and thus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North American and Caribbean region. Declare the beginning of a new stage of regional collaboration and withdraw the commitment of our cities to make this alliance a long-term project that will set a precedent for future generations.




CONTENTS

정병훈 4 편집인 인사말

논 문

김희선 7 진주 '공예와 민속예술'의 창의분야간 융합과 협업가능성

주세페 비아지니 27 공동체의 창의적 지식 활용하기

실비아 아만 47 문화, 그리고 그 이상에 있어서의 분야간 협력

이은진, 한재휘, 정수연, 김도은 65 진주의 문적물 제작 기술 실태

비토리오 살모니 93 새로운 UCCN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방법 - 국가 조정 및 새로운 UCCN 규율: 창의도시 파브리아노의 두 가지 경험

대 담

주세페 비아지니/정병훈/ 101 창의도시 사업 추진의 난점과 해결 방안

로니 로피스/
위티아 피통나푸/
비토리오 살모니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129 알-하사 (사우디 아라비아); 비다 (나이지리아);
쿠타히야 (튀르키예); 와가두구 (부르키나 페소);
파두카 (미국); 산타페 (미국)

리 뷰

정병훈 166 진주시의 국제교류 활동

렉시 밀리칸 177 파두커에서 진주로

문 화 유 산

콘스탄스 페라리니 183 이탈리아 텍스타일 벨리의 중심 코모

UCCN 도큐먼트

192 2022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 및 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연차회의의 결론

20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 14차 연차회의의 결론

204 UCCN 공예와 민속예술 서브그룹 관련 규칙

217 Foro de Ciudades Creativas de Norteamérica



9 772765 178003
ISSN 2765-1789

